

**국내학술성과의 해외교류확산을 위한 연구:
신흥지역과의 교역 및 개발협력을 위한
“창의적 지식공유연구플랫폼(CKSRP)”**

Building Global Hubs for Spreading Academic
Models of Korean Modernization:
Creative Knowledge Sharing Research Platform for
the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between Korea and Emerging Market Area.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오명석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0448A-20150021	연구기간	2015년 5월 1일 ~ 2015년 11월 30일		
정책과제명	(국문) 국내 학술성과의 해외교류 거점구축을 위한 연구 (영문) Building Global Hubs for Spreading Academic Models of Korean Modernization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오명석	참여 연구원수	총 6 명	연구 용역비	300,000,000 천원
요약					175 쪽
<p>○ 본 연구는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해외로 확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신흥지역과의 교역 및 개발협력을 위한 창의적 지식공유연구플랫폼(CKSRP)”을 제안함. 그 이유는 첫째, SDGs 시대 개발의제의 범위와 깊이의 변화와 둘째, 수원국 참여중심의 개발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때문임.</p> <p>○ 따라서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해외로 확산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지식공유적 관점에 기초한 수원국의 참여’라고 봄. 이에 본 과제에서는 ‘현지 신흥 지역 국가들의 참여’를 통한 현지 교역 및 개발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을 제안하였음.</p> <p>○ 또한 CKSRP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업팀으로 신흥지역연구사업팀을 제안함. 그 이유는 첫째, 현지 해당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이고, 둘째, 국내 지역연구거점과 해당 현지 연구거점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현지밀착형 연구 성과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연구팀이고, 셋째,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와 민간의 신흥지역 진출전략을 교역과 개발이란 차원에서 실현해 낼 수 있는 사업팀이기 때문임.</p>					
색인어	한글	한국의 발전경험, 국제학술교류, 지식공유연구플랫폼, 신흥지역, 교역이슈, 개발이슈, 현지참여 개발패러다임			
	영어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Creative Knowledge-Sharing Research Platform, Emerging Market Region, Trade Issues, Development Issues, Local country-centered participation paradigm			

제 출 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과제인 “국내학술성과의 해외교류 거점 구축을 위한 연구 ” 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12 월 31 일

- 주관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오명석 (서울대 인류학과)
- 공동연구원 : 이용권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 공동연구원 : 이충렬 (고려대 경제학과)
- 공동연구원 :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공동연구원 : 황의갑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본 연구목적은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신흥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모델과 운영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신흥지역과의 교역 및 개발협력을 위한 “창의적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의 기저에는 앞으로 전개될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프레임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하나는 SDGs 시대 개발의제의 범위와 깊이가 변화였고, 다른 하나는 공여국의 일방적인 역할이 아닌 수원국의 관점과 이해요구에 기초한 수원국 참여중심으로의 개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이다. 따라서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해외로 확산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지식공유적 관점에 기초한 수원국의 참여’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을 제안한 것이다.

먼저 본 과제를 통하여 처음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은 교역 및 개발협력의제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지식공유연구플랫폼(Creative Knowledge-Sharing Research Platform, *CKSRP*)” 구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명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신흥지역과의 교역 및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을 단순한 정보 형태가 아니라 학술적 지식형태로 생산하고 이를 신흥지역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의 일방적 전달과 확산이 아니라 지식을 함께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신흥지역 간에 협력적 연구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다양한 노선의 기차들이 만나는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하듯이,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은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신흥지역 국가들이 지식의 생산, 관리, 소통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지식공유의 장을 의미한다. 이 플랫폼은 면대면 관계를 수반하는 오프라인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온라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둘째, 교역 및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을 ‘아래로부터 창출한다’는 의미에서의 창의적 지식공유를 지향한다. ‘아래로부터

터 창출된' 지식이란 의미는 신흥지역의 현지맥락과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한국적 현실과 발전경험을 충분히 고려하며, 교역과 개발협력에 대한 신흥지역의 수요 발굴에 기반하여 지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신흥지역연구팀은 CKSRP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세 가지 측면에서 적실성을 갖는다. 첫째, 다양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CKSRP 사업으로의 네트워크 확대가능성이 충분하다. 둘째, 현지에 대한 지식생산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이며 현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공간으로 신흥지역에 관한 홈페이지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셋째, 자문, 기업설명회, 지역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청년인턴쉽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신흥지역연구팀은 교육단위로서도 역할을 해 왔다.

CKSRP이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차원의 지식공유사업과 차별성을 갖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수요에 대한 '포용적' 지식 플랫폼 둘째, '암묵적' 지식을 강조하는 지식 플랫폼 셋째, 호혜성과 신뢰성을 기초한 관계적 지식 플랫폼 넷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지식 플랫폼 다섯째, 지역연구 베이스의 지식 플랫폼 여섯째, 지식공유 이전 단계로서 공유지식 창출단계 그리고 융합지식을 지향하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CKSRP 운영을 통해 한국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는 국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되고 재구성되는 학술적 계기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CKSRP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학술적 측면에서 신흥지역연구와 개발협력 연구를 연계시킴으로써 한국의 지역연구와 개발협력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 KOICA의 ODA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현지에 밀착한 수요연구를 통해 한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급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llustrate what the most effective, feasible, and sustainable model and operational program is when spreading academic results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to emerging region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project suggested "Creative Knowledge-Sharing Research Platform" for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emerging regions. This suggestion is based on the consideration about the change of international frame focused on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lies ahead. The one is a change of range and depth of development agenda in SDGs era, and the other is a change of development paradigm to a recipient country-centered participation paradigm which is based on the recipient countries' perspective and demand of interests, not on the one-sided roles of donor countries. Therefore, an essential element to consider is a 'participation of the recipient countries based on the knowledge sharing perspective' when spreading abroad the academic results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Thus, this project proposed 'Creative Knowledge-Sharing Platform'.

First of all, researchers designate the title of this project, which is proposed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project, is an establishment of "Creative Knowledge-Sharing Research Platform (CKSRP)" focused on the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genda. In this title, there are two implicit meanings. First, we expect to produce 'knowledge' about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emerging regions not in the form of simple information but in the shape of academic knowledge and to share with them. We hope to arrange a field of cooperative research between Korea and emerging regions in the method of producing and sharing knowledge together, not in the method of one-sided transmiss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In the same manner as the place where

various routes of trains meet is called platform, 'Knowledge-Sharing Research Platform' signifies the knowledge sharing field of mutual meeting in order for emerging regions including Korea to produce, manage, and communicate knowledge. This platform will become a place of the off-line place that accompanies face-to-face relationships and simultaneously, the place where on-line communication occurs. Second, we aim at creative knowledge sharing in the sense of producing the knowledge of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the bottom' . The meaning of knowledge 'created from the bottom' is to consider the local contexts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emerging regions and the situation of Korea and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sufficiently, also to produce knowledge based on discovering demands of emerging regions about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is a new attempt to challeng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Knowledge Sharing Program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to transmit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to developing countries.

Emerging region research projects began from 2012 has three aspects of exactness to progress a CKSRP project. First, since we have various experience of local network establishment, the possibility to expand these networks to CKSRP project is sufficient. Second, we are local specialist-centered research teams consist of experts who have sufficient ability to produce local knowledge, and also have experience of running a website as a place to accumulate local information and knowledge. Third, emerging region research teams, whose members operated consultation, company presentation, local specialist training program, youth internship institution, have played roles of units of education.

The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distinct from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First, 'embracing' knowledge platform about development demand, second, a knowledge platform which emphasizes 'implicit' knowledge, third, a

relational knowledge platform based on reciprocity and reliability, fourth, a knowledge platform which considers cultural context, fifth, a regional studies-based knowledge platform, sixth, a knowledge platform that orients the phase of shared knowledge creation as a former phase of knowledge sharing and pursue merged knowledge, are distinct.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academic results about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to seek and reconstruct newly in various aspects in international level through this CKSRP management, and academic results about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will spread abroad through this process.

Also, CKSRP anticipates effects in various aspects, especially it suggests new direction to Korea's regional studie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tudies through connecting emerging region studie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tudies in academic aspects. Moreover, since it includes contents which are highly connected with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 KSP project, KOICA's ODA project in terms of policy, we expect complementary effects in policies. In addition, it will provide specific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Korean enterprises' advance into emerging market through demand research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field in practical aspect.

Contents

I. Introduction	1
1. Background of the Research	1
2. Purpose of the Research	3
II.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text of Knowledge Sharing Program	10
1. Current Situation of Knowledge Sharing Progra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0
2. Evaluation to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of Korea' 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15
3. Distinctions and Orientations of CKSRP	25
III. Model and Roadmap of CKSRP	30
1. Theoretical Model of CKSRP	30
2. Executive Model of CKSRP: Structure and Function	37
3. Roadmap of CKSRP Establishment	48
4. Expected Effectiveness of CKSRP	50
IV. Prediction of Local Demand and Case Application of CKSRP	54
1. Example of Application to CKSRP Model in Emerging Region: 'Water' Case of Indonesia	54
2. Prediction about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Demands in Emerging Regions	64
V. Subjects and Execution of CKSRP Project	92
1. Evaluation of Research Support in Emerging Region Research Team ..	92
2. Execution Budget and Result Index	100
VI. Conclusion	105
References	109

Appendix: Project Results of Emerging Region Research Teams

목 차

I.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3
II. 지식공유사업의 국제적·국내적 맥락	10
제1절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지식공유 사업의 현황	10
제2절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대한 평가	15
제3절 CKSRP의 차별성과 지향성	25
III. CKSRP의 모델과 로드맵	30
제1절 CKSRP의 이론적 모델	30
제2절 CKSRP의 실행적 모델: 구조와 기능	38
제3절 CKSRP 구축의 로드맵	48
제4절 CKSRP의 기대효과	50
IV. CKSRP의 현지 수요 예측과 사례적용	54
제1절 CKSRP 모델의 신흥지역에 대한 적용 예시: 인도네시아 ‘물’ 사례	54
제2절 신흥지역의 교역 및 개발협력 수요에 대한 예측	64
V. CKSRP 사업 주체와 실행	92
제1절 신흥지역연구팀에 대한 연구 지원 평가	92
제2절 실행예산과 성과지표	100
VI. 결론	105
참고문헌	109
부록: 신흥지역연구팀의 사업실적	

표 목차

<표 1>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한 지역별 신흥지역 국가	7
<표 2> KSP 정책자문사업 지원국과 예산	19
<표 3> 2005-2013 인도네시아 정책자문사업 리스트	20
<표 4> 지식의 구분	32
<표 5> SDGs의 17개 개발목표	43
<표 6> CKSRP 사업의 로드맵	48
<표 7> 중앙아시아 에너지 3국의 석유 및 가스 확인 매장량	65
<표 8> 중앙아시아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66
<표 9> 중앙아시아 국가 경제자유도 (2014)	67
<표 10> 카자흐스탄 수입 10대 품목 현황	68
<표 11> 우즈베키스탄의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양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에 따른 주요 발전 방향	71
<표 12> 우즈베키스탄 기업 주요 민영화 사례	74
<표 13> 한-우즈베키스탄 교역 규모 및 주요 품목	75
<표 14> 라틴 아메리카 주요 4개국 인구 및 국민소득	78
<표 15> 라틴 아메리카 주요 4개국의 주요 지하자원	79
<표 16> 라틴 아메리카 주요 5개국 수출 품목	81
<표 17> 한국의 대 중남미 교역현황	82
<표 18> 한국의 대 중남미 수출입 품목 (2014년)	82
<표 19> 한국의 대 연도별 직접 투자 현황	83
<표 20>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구매력 추이와 전망	83
<표 21>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 추이	84
<표 22>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 및 아-태 지역으로 수출의 중요성	87
<표 23> 러시아연방 전체 대비 극동지역의 에너지 및 유용광물 생산량 비 중(2013)	87
<표 24> 극동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25 기본 개요	88
<표 25>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규모 추이	89
<표 26> 각 연구사업팀별 연간 실행예산추정	100
<표 27> 사업성과 지표	103

그림 목차

<그림 1> 신흥지역 국가의 구분 및 국가군의 특징	6
<그림 2> OECD 지식공유연대의 지식공유 프로세스	11
<그림 3> 미국 USAID의 지식관리 체계	14
<그림 4> KSP 사업체계	16
<그림 5> 국가 간 지식공유사업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	33
<그림 6> 양국 간 지식공유 설계의 주요차원	34
<그림 7> CKSRP의 구조와 기능	38
<그림 8> 기업 간 지식공유 모형	47
<그림 9> 세계 문화지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문화 거리	55
<그림 10> 인도네시아 현 조코위 정부 중기발전계획	58
<그림 11> 한국과 인도네시아 물 관련 CKSRP의 구조	59
<그림 12> 한국과 인도네시아 CKSRP 기능: 공유지식 창출과 소통 ...	62
<그림 13> 라틴 아메리카의 수출 품목 비중	80
<그림 14> 2012년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지역적 범위	95

I. 서론

제1절 연구배경

2015년 9월 18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보고서의 제목은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SDGs)”이다. UN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공표된 새로운 개발의제는 향후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2000년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공동 개발목표로 설정되었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00-2015, 이하 MDGs)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MDGs가 시기적으로 종료되어가는 과정에서 Post-MDGs 논의로 이어졌고, UN은 2014년 ‘지속가능 발전 연구위원회’(Open Working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가동시켰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들로 구성된 SDGs 내용이 제출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3장 2절 참조). 따라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방향과 의제는 SDGs 체계 안에서 전개될 것이다.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17개 목표의 특징은 첫째,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둘째, 각 영역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매우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SDGs의 첫 번째 목표가 모든 형태 빈곤종식이다. “모든 형태”의 빈곤의 종식은 영양, 교육, 보건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KOICA 2015, 6), MDGs 시기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적용하지 하지 못했던 사회보호, 즉 사회복지 또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용도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빈곤해소

라는 목표는 선진국에서도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인데, 개발도상국의 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지난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SDGs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구체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간, 국내 정책기구 간 논의가 필요하고, 한국에서도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과제에서는 신흥지역연구전통과 개발협력이슈를 연계시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결합이다. 무역과 경제성장 사이에 상관성이 있고, 경제성장과 빈곤해소 사이에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무역과 개발협력은 광의의 의미에서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와 자유무역협정 지대를 구축하는 일들은 현재 모든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국제개발협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무역촉진원조(Aid for Trade)”라는 새로운 용어와 개념이 등장하여 (Hoekman & Prowse 2005), 무역과 해외원조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무역촉진원조”에는 첫째, 무역정책 및 규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 둘째, 도로, 항만 등 생산시설과 해외시장을 연결하는 경제인프라 사업 셋째, 생산역량구축 넷째,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관세수입의 하락, 특혜침식, 교역조건악화 등 다양한 형태의 조정비용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지원사업 등이 있다(곽성일 2015).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혜적 원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들 국가들이 글로벌 무역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ODA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민과 국제개발협력의 결합’이다.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UN고위급 대화’와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은 Post-MDGs 개발협력 논의 내에서 국제이주를 주요 의

제 혹은 세부목표 속에 명시화하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조영희 2014, 13). MDGs 체제의 개발협력 패러다임 안에서는 국제이주가 중요한 개발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국제이주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국제이주의 문제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개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 이주와 개발협력의 연계정책은 첫째, 이주를 고려한 개발정책 둘째, ODA와 이주요소의 결합 셋째,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등으로 구분된다(조영희 2015, 4). 또한 SDGs의 17개 목표 중에서 8번째, 10번째 그리고 11번째 목표가 이주와 개발이슈의 결합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박미형 2015).

본 정책용역과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신흥지역연구와 개발협력이슈의 접합가능성, 특히 한국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와의 접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지역연구는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축적된 역량을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에 접목시킴으로써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고려, 그리고 한국과 신흥지역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협력관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과제는 지역연구와 개발협력의 접합가능성을 지식공유사업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실행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신흥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모델과 운영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신흥지역과의 교역 및 개발협력을 위한 “창의적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의 기저에는 향후 전개될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프레임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하나는 앞의 연구배경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SDGs 시대 개발의제의 범위와 깊이가 변화였고, 다른 하나는 공여국의 일방적인 역할이 아닌 수원국의 관점과 이해요구 등 ‘수원국 참여중심’으로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해외로 확산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지식공유적 관점에 기초한 수원국의 참여’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흥지역과의 교역 및 개발협력을 위한 “창의적 지식공유연구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를 학술적으로 밝히고, 이것을 실현할 사업모델과 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과제를 통하여 처음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은 교역 및 개발협력의제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지식공유연구플랫폼(Creative Knowledge-Sharing Research Platform, 이하 CKSRP)”구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명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신흥지역과의 교역 및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정보 형태가 아니라 학술적 지식형태로 생산하고 이를 신흥지역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의 일방적 전달과 확산이 아니라 지식을 함께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신흥지역 간에 협력적 연구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다양한 노선의 기차들이 만나는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하듯이,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은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신흥지역 국가들이 지식의 생산, 관리, 소통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지식공유의 장을 의미한다. 이 플랫폼은 면대면 관계를 수반하는 오프라인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온라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둘째, 교역 및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을 ‘아래로부터 창출한다’는 의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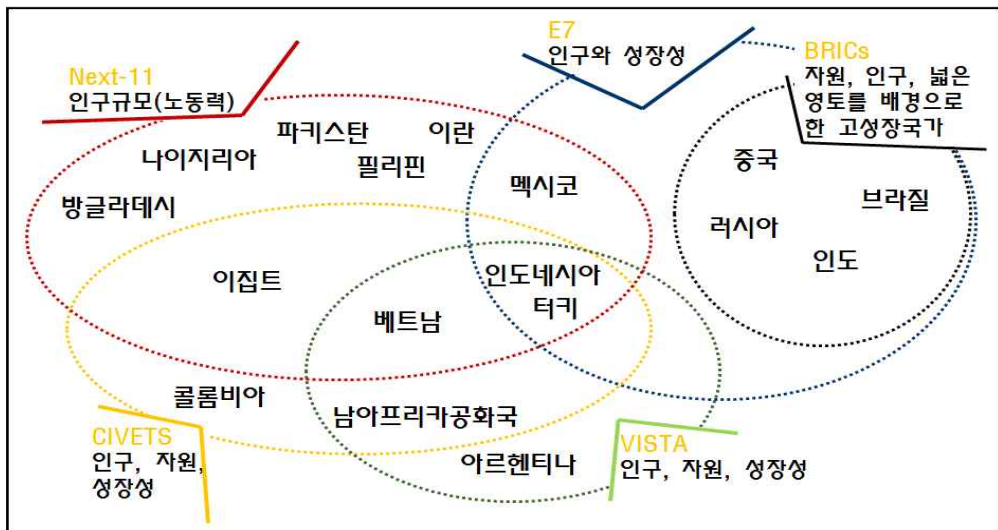
서의 창의적 지식공유를 지향한다. ‘아래로부터 창출된’ 지식이란 의미는 신흥지역의 현지맥락과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한국적 현실과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며, 교역과 개발협력에 대한 신흥지역의 수요 발굴에 기반하여 지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이 갖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KSP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1) 제공자(즉, 한국정부)의 측면에서 공유해야 할 경험에 대해 체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수용국의 실제적인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3) 지식공유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컨설턴트 그리고 관계기관의 전문성이 아직 낮고 그나마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박복영·채욱·이근 외 2007, 43).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에서 본 과제는 두 번째 문제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국발전경험에 대한 체계화된 콘텐츠의 부족문제는 2007년 이후 실행된 KSP 모듈화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개발에 대한 현지수요에 대한 조사는 현 단계에서도 매우 미흡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발협력 대상국가의 실제적 수요와 구체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발협력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수행된 사업의 효과를 수혜국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과제는 신흥지역의 교역 및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를 현지의 전문가나 지식인과의 협력 하에서 지식의 형태로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연구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신흥지역에 대한 로컬 지식을 축적해 온 지역연구와 개발협력연구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과제가 신흥지역을 대상으로 교역과 개발협력 이슈의 결합가능을 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을 채택한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성취하였는데, 일부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신장이 한계에 부딪치자 2000년대 이후 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흥지역에 대한 관심도 크게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90년대 말의 외환위기, BRICs 경제의 부상, 2000년대 말 미국의 sub-mortgage loan 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한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BRICs 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신흥시장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역과 개발협력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그림 1> 신흥지역 국가의 구분 및 국가군의 특징



출처: 2012년도 신흥지역연구지원 사업 시행계획(안), 한국연구재단, p.4

현재 신흥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어 불리고 있다(그림 1 참조). 예를 들면,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외에 Next-11(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터키, 이집트, 나이지리아, 멕시코), CHINDIA(중국, 인도), E7(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VISTA(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그러하다.¹⁾ 이러한 명칭들은 개도국을 산업화 속도, 경제 규모, 인구와 영토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만, 모두 신흥 산업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국가를 통칭해서 “신흥지역 국가”로 부른다. 신흥지역 국가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성장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풍부한 천연자원이나 많은 인구를 갖추고 있는 국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IMF가 공개한 149개 신흥국 중에서 경제성장률과 인구규모, GDP 및 1인당 GDP, 자원매장량 등 3개 지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 높은 GDP 및 1인당 GDP 성장률, 그리고 대규모 자원이 매장된 국가를 한국연구재단에서 2012년 총 26개국으로 압축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1>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한 지역별 신흥지역 국가

구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 동	아프리카
국명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러시아, 터키,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이집트

1) BRICs: 신흥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통용, Next-11: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가 만든 조어, 차세대 성장국가 11개국 E7: 세계 최대 회계법인이자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만든 조어, 브릭스에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추가 CIVETS: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든 조어, 브릭스의 뒤를 이을 새로운 다크호스로 소개 VISTA: 일본의 브릭스 경제연구소가 만든 조어이다.

※ 굵은 글씨체는 G-20국가

※ 페루와 칠레의 경우 5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해당되지만 자원현황 지표로 사용한 자원매장량에는 미포함된 다른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므로 포함.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한국(HK),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을 통해 학문적 성격의 지역연구를 지원해 오다가, 2012년부터 신흥지역연구사업을 시작하여 전 세계 중요 신흥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실용적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 결과로 신흥지역별로 특화된 대학 연구소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신흥지역은 한국과의 경제적, 정치외교적, 사회문화적 대외관계를 유지·확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서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의 폭과 깊이가 더해져야 한다. 신흥지역에 대한 순수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실용적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교역과 개발협력은 지역연구의 실용적 측면에서 핵심적인 주제에 해당한다. 본 과제는 이런 측면에서 신흥지역연구와 교역 및 개발협력의 접점을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흥지역에 포함되는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은 경제구조 및 경제발전단계, 인구, 자연지리적 환경, 인문사회적 환경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갖는 지역들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교역 및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도 지역별로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역 및 개발 수요를 지역별로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지식생산의 작업은 한국과 신흥지역 간의 교역 및 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목표를 ‘교역과 개발수요의 현지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당 신흥지역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연지리적 환경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들의 현지 수요에 부응하는 교역과 개발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는 작업이다. CKSRP는 교역 및 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과 신흥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

하기 위한 연구플랫폼으로서 실용적이고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6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은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CKSRP 사업의 적실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과 국내의 KSP 사업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통해 살펴보고, CKSRP 사업이 기존의 지식공유사업과 다른 차별성과 지향성을 제시한다. 3장은 CKSRP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으로, 이 사업의 이론적 모델과 실행적 모델을 밝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로드맵과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4장은 CKSRP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어떻게 가능한지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 각 신흥지역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시한다. 5장은 CKSRP 사업 주체와 실행예산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내용 요약과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식공유사업의 국제적·국내적 맥락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해외지역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지식공유’의 방법으로 선택하였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국제적 맥락에서 지식공유 사업이 갖는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고, 국내적 맥락에서 지식공유 사업이 갖는 학술적 차원의 한계 지점을 밝힌 다음, 본 과제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CKSRP 사업이 갖는 차별성과 지향성을 밝히고자 한다.

제1절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지식공유 사업의 현황

2015년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었던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수렴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방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핵심방향: 개발협력에 있어서 지식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은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 OECD는 1996년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으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OECD는 지식공유를 개발협력에 있어 과거의 금융지원 및 기술협력에 이은 제3의 축이라 명명하며 새로운 차원의 지식공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3년 OECD의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역량, 독일의 개발협력 담당기관인 GIZ(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 Zusammenarbeit)의 개발협력 경험, 그리고 한국 개발경험

노하우를 조합하여 OECD는 지식공유연대(Knowledge Sharing Alliance: KSA)를 창설하였다.

OECD 지식공유연대의 목적은 첫째, 협력국가에 대한 OECD 지식 개방, 둘째, 지식의 공동창출을 위한 동료 학습체계 구축, 셋째,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피드백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아래의 그림에서 지식공유 프로세스를 모델화하고 있다. <그림 2>에서 우선 공동의 관심영역을 파악한 후(1단계),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며(2단계), 지식을 공유하고 혁신적 방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3단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식을 내재화하며 학습과정을 하는(4단계) 단계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2> OECD 지식공유연대의 지식공유 프로세스



[그림 1-2] OECD 지식공유연대의 지식공유 프로세스

출처: 『KSP 10년사』 p. 23.

- 세계은행(World Bank)은 사회발전 및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식이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세계은행을 글로벌 지식 플랫폼임을 표방하고 있다. 2004년에 원조 금융기관에서 탈피하여 지식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선언하였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두 축을 개도국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혁신적인 지식공유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개발협력에 있어 지식공유가 필수요

소로 대두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세계은행은 지식공유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12년 지식공유 허브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세계은행은 지식교환(Knowledge Exchange)이 기존의 기술 및 금융협력을 보완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식공유 허브구축을 위한 노력은 2014년 서울 고위급 회의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고, 서울 회의에서 지식허브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KSP가 논의되었다.

세계은행연구소(World Bank Institute, 이하 WBI)가 세계은행 안에서 지식공유사업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도국을 위한 열린 지식, 협력 거버넌스, 혁신적 해결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WBI는 세계은행이 분포된 국가팀이 각국 프로그램에 지식공유를 포함하도록 권유하고, 전 세계 지식공유 이행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개발 학습 네트워크(GDLN: 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WBI는 남남지식협력(South-South Knowledge Exchange)을 발전시켜 중개, 재정지원, 계획, 시행, 결과의 과정을 통해 지식공유를 지원하고 있다.

- **유엔개발프로그램(UNDP)**는 지식관리 영역에서 선도적인 지식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하였다. UNDP에 따르면 지식관리는 지식의 획득, 저장, 공유를 통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를 미래에 적용하는 실천적 분야로서 개발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UNDP는 지식관리를 통해 이 기관의 사업 행태 개선 및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4년 2월에는 ‘UNDP 지식관리 전략체계(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framework) 2014-2017’을 수립하고, UNDP 지식관리 전략체계 2014-2017의 6개 집중분야는 ① 기관 내부의 지식습득과 학습 ② 지식 네트워킹 ③ 공개적인 일반 대중의 참여 독려 ④ 남남협력과 외부 클라이언트 서비스 ⑤ 성과 지표와 유인체계 ⑥ 역량관리이다. 우선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정보수집, 분석, 지식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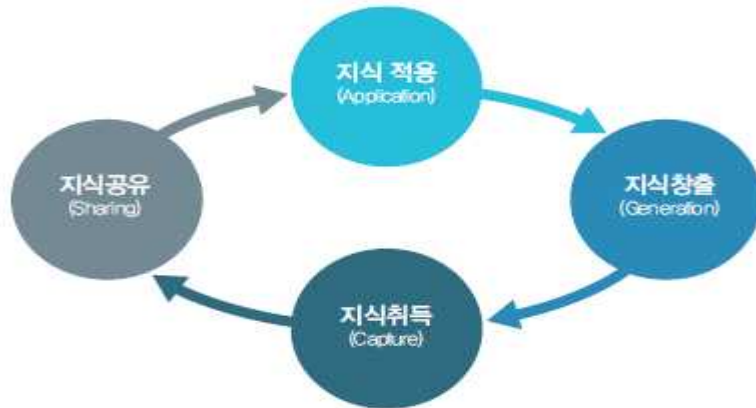
과 창출 및 교환, 나아가 조직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지식관리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 **글로벌 개발 네트워크(GDN:Global Development Network, 이하 GDN)**는 1999년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에 관한 연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국제 조직(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이다. GDN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은 첫째, 개발도상국의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역량을 지원하고, 개발연구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들과 개발도상국의 개발연구자들을 연결시키는 것 둘째, 개발지식에 관한 생산, 구조화, 동원의 새로운 방법들을 지원하는 것 셋째, 남반구 개발연구역량의 지원을 위해 연구자, 지식, 전문가 그리고 자원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것 등이다. GDN은 전 지역적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개발관련 연구소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이다. GDN의 지역 네트워크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다. AERC(African Economic Research Consortium), BREAD(Bureau for Research and Economic Analysis of Development), CERGE-EI(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Economic Institute), EADN(East Asian Development Network), EERC(Economic Education and Research Consortium), ERF(Economic Research Forum), EUDN(European Development Research Network), GDN-Japan, LACEA(Latin American and Caribbean Economic Association), ODN(Oceania Development Network), SANEI(South Asia Network of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주요 원조공여국의 사례.**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원조 공여국들도 지식공유를 통해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 원조기관에서 지식공유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예는 영국의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의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독일의 GIZ, 일본의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들 수 있다. 영국의 DFID의 경우, 개발연구원(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의 지식서비스(Knowledge Service)를 통해 개발의 각 분야별 정보와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영국은 MK4D(Mobilizing Knowledge for Development)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개발관련 정보를 얻으며, 온라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GIZ는 지식공유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참여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GIZ은 지식공유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회, 기술, 기업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였다. 모범사례로 GIZ의 주도로 창설된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룹을 위한 중앙은행, 재무부 등으로 구성된 AFI(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가 있다. 일본 JICA의 경우 2005년 지식관리시스템인 JKM(JICA Knowledge Management)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미국 USAID의 지식관리 체계



[그림 1-3] USAID의 지식관리체계

출처: 『KSP 10년사』 p. 24.

USAID는 위의 <그림 3>처럼, 지식서비스센터(Knowledge Service

Center)에서 지식관리프로그램(Knowledge Management Program)과 개발경험정보교환소(Development Experience Clearing House)를 설치하여 USAID의 경험과 지식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위의 그림과 같이 먼저 과거의 개발경험을 기초로 최적화된 개발지식을 창출한 후, 이를 체계화하여 이용가능한 수준의 개발지식을 취득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개발지식을 공유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식을 개발협력사업에 실제로 적용한 다음, 다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도록 하는 순환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식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본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CKSRP는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국제적 흐름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대한 평가

본 절에서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KSP 사업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사례를 선택하였다. KSP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술적인 평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도네시아에 적용된 KSP를 중심으로 학술적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1. KSP 체계와 영역

한국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한국경제발전경험을 해외로 확산하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KSP는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강조하는 지식공유의 중요성에 부응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 협력대상국과 한국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

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사업으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집약적 개발협력 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로 KSP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책자문 사업은 KDI, 모듈화사업은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과 시스템컨설팅 사업은 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KSP사업의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사업의 진행을 감독한다. 협력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 한국의 대외정책과 부합여부와 이를 통한 향후 경제협력의 확대 가능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 KSP는 대외적으로 협력대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점과 더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며, 민간부문의 역량을 높이고 개발협력 사업 간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KSP는 기존의 공적 원조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국가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OECD DAC에서 지정한 원조 수원국 뿐만 아니라, 중동의 자원부국, 중상 소득국 등에서도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득권 국가들과의 개발 경험 공유를 통하여 공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개발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KSP 사업체계



출처: 『KSP 10년사』 p. 40.

1) 정책자문 사업

KSP 정책자문 사업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협력대상국의 수는 2010년 15개국에서 2013년 35개국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부터는 중점지원국의 수도 확대되면서 국가별로 특정 주제에 자문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사업기획, 정책연구, 정책자문 그리고 사업평가의 총 4단계로 구분 이 되는데, 첫째, 사업기획 단계는 사전준비단계로서 협력 대상국 선정, 서면 수요조사 실시, 전문가 선정 및 현지 방문 조사 등을 진행. 둘째, 정책연구 단계는 실제로 정책 과제 연구를 실행하는 단계로 고위인사 수요 조사와 함께 세부실태조사, 정책수요세미나, 현지 보고회 및 추가 세부 실태조사 그리고 점검회의가 진행. 셋째, 정책자문 단계는 정책 분석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는 단계로 중간 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그리고 보고서 검토가 진행. 넷째, 사업평가는 최종보고회 종료 후 사업 종료 평가가 실시되고 외부위탁으로 역량 평가가 진행되며 정책자문보고서 출판 이후에 연구진, 국별 전문가 그리고 국내외 관계자들과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국내공유세미나가 개최된다.

2) 모듈화 사업

모듈화사업은 KSP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체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하여 맞춤형 종합 컨설팅 차원의 효과적인 지식공유 사업으로서의 확장을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경제개발 경험전수 사업을 평가하고 그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시행되어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집행, 경제위기 극복, 새마을운동 등 한국 발전 경험 성과에 대한 체계화를 완료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는 경제일반, 산업에너지, 행정, ICT, 인적자원 등 4개 분야에서 20개 정책사례의 모듈화가 완성되었으며, 더 나아가 국토건설, 보건의료, 직업훈련, 농어업, 환경 등 개발협력 8대 분야로 확장되어 2013년까지 총 119개 과제를 발굴하여 한국의 발전

경험을 집대성하는 통합지식보관소(Comprehensive Knowledge Repository)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현재까지 산림녹화, 쓰레기 종량제, 전자정부, 직업훈련, 기술추격, 새마을 운동 등 6개의 e-learning 강의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민관협력사례(public-Private Partnership), 기생충구제 사업 등 협력대상국에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e-콘텐츠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3) 공동컨설팅 사업

이 사업은 2011년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새로운 방식의 원조채널로 부상하였는데, 수출 진흥 및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총괄하여 협력대상국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삼각협력 당사자(한국-국제기구-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Win 지식공유 모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4) 시스템컨설팅 사업

이 사업은 기존 KSP사업과 다르게 협력대상국의 지식기반인프라(시스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시스템컨설팅 사업을 통해 경제, 금융 등 경쟁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시스템 수출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시스템컨설팅 사업은 사업발굴 단계, 사업준비 단계, 사업수행 단계, 정리평가 단계 등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2. KSP에 대한 학술적 평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G20 그룹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

에 따라 정부도 인도네시아를 KSP의 중점지원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추구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 2>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2005년부터는 일반지원국 대상 국가로 시작하였다가 2010년부터는 중점지원국 대상 국가로 변화하여 KSP 지원을 계속 받았다. 그 다음의 <표 3>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한국의 KSP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표 2> KSP 정책자문사업 지원국과 예산

연도	국가수 (일반)	국가수 (중점)	일반지원국	중점지원국	예산 (억 원)
2004	2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10
2005	2	-	인도네시아, 터키	-	10
2006	4	-	베트남, 알제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8
2007	5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나, 아제르바이잔, 쿠웨이트	-	15
2008	8	-	베트남, 오만, 도미니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모잠비크, 터키,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	25
2009	11	1	쿠웨이트, 도미니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알제리, 리비아, 가나	베트남	50
2010	15	4	몽골, 라오스, 카자흐스탄, UAE,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DR콩고,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자흐스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볼리비아, 적도기니, 가봉, 에티오피아, 알제리, 탄자니아, 남아공 UAE, 카자흐스탄, 가봉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73.5
2011	26	7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볼리비아, 적도기니, 가봉, 에티오피아, 알제리, 탄자니아, 남아공 UAE, 카자흐스탄, 가봉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가나, 페루	100
2012	33	11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161

			브라질, 에티오피아, 오만, 온두라스, 적도기니, 콜롬비아, 탄자니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터키, 파나마, 필리핀,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알제리, 리비아 ²⁾ , 가나, 스리랑카, 페루, 에콰도르	
2013	35	10	베트남, 코스타리카, 가봉, 쿠웨이트,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DR콩고, 가나, 이집트, 멕시코, 벨리즈,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러시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헝가리, 터키, 도미니카공화국, 탄자니아, UAE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161

출처, 『KSP 10년사』, p.61.

<표 3> 2005-2013 인도네시아 정책자문사업 리스트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기관의 개혁	
	양수길(PM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05	인도네시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오창석(국제금융센터)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개발 방안 연구	박종태((주)메인스트림)
	인도네시아 국세, 관세, 예산공무원교육제도 개선방안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의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경험과 인도네시아를 위한 시사점	김도훈(산업연구원)
	인도네시아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이재민(한국수출입은행)
2009	인도네시아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2) 주: 리비아는 마스터플랜 사업으로 진행됨.

	권오규(PM 한국과학기술원)		
	인도네시아 경쟁정책역량의 발전방안: 한국 경험의 교훈	신광식(김앤장)	
	인도네시아 금융감독 강화방안	송준혁(한국개발연구원)	
	인도네시아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구축방안	김필규(자본시장연구원)	
	중기재정계획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수립	박노옥(한국조세연구원)	
인도네시아의 중기 개발계획을 위한 핵심과제			
권오규(총괄 PM, 前 경제부총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			
2010	금융 자본 시장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 안정성과 민간외채관리 개선	박대근(한양대)
		회계 및 감사 시스템 발전방안 및 회계 인적자원 개발	김진태(삼정 KPMG)
		소비자 금융 선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준(코리아크레딧뷰로)
		중소기업 신용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류중현(한국기업데이터㈜)
	에너지 관 리 및 환경적 지 속 가능성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절약 정책 방향	강승진(섹터 PM, 한국산업기술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정책	김수덕(아주대)
		인도네시아 물관리정책 방안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고익환(K-water)
	무역· 투자	인도네시아의 FDI 촉진전략	최병일(이화여대)
		싱글윈도우를 통한 인도네시아 무역 활성화	김종호(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
		인도네시아 SME 발전을 위한	송정석(중앙대)

	지원정책	
2011	인도네시아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공공 재정, 신용인프라, 수자원 관리	
	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금융대학원)	
	인도네시아 국고관리 및 예산집행 시스템 개혁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 제언	강경훈(동국대)
	인도네시아 정부의 회계 및 결산 제도에 관한 KSP	배득종(연세대학교)
	인도네시아 재정정보시스템 분석 및 정보전략 기획	최용락(송실대)
	PCR 시스템 기반의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방안	이욱재, 전성준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
수자원 계획과 재원조달에 관한 지식 교류	고익환(㈜유신)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2012	인도네시아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³⁾	
	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금융대학원)	
	인도네시아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박노옥(조세연구원)
	발달된 조달시스템을 통한 국가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	김대인(이화여대)
	예산 및 국고 관전 전산화(SPAN) 및 이행기의 주요과제	윤정원, 서운석, Gregory Pokorny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인도네시아 민관협력(PPP)사업 활성화	김정욱, 서원아 (이상 개발연구원)
	인도네시아 통합금융감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김종용(㈜낙스넷)
	신용평가 등록 데이터의 품질 개선 방안	이욱재, 전성준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
	하천유역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의 비교연구	고익환(㈜유신)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HRD 시스템 개혁방	강순희(경기대)

	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2013	인도네시아 행정개혁 및 장기발전전략을 위한 정책자문	
	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인도네시아 행정개혁의 평가와 전략적 방향: 공무원 인사개혁의 실현을 중심으로	이창길(세종대)
	조직 구조개선, 법적 기반, 개발 시스템 관 리, 보안 강화,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효과 적인 국고 딜링룸(Treasury Dealing Room) 설립	강경훈(동국대)
	인도네시아 국가중장기개발계획(MP3EI)달성 을 위한 PPP제도 및 역량 배양	최진욱(고려대) 이정엽(신용보증기금)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통한 국고관리와 부채관리 간 효율적 조정	배영수(서울시립대)
	인도네시아 SPAN 구현 후 정보보안관리	곽진근(더존)
인도네시아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시건 전성감독 개선 방안	임형준(금융연구원)	

출처: 『KPS 10년사』 부록 2 중의 인도네시아 부분 정리함.

최근 2004년부터 진행된 KSP 사업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진행되어 왔는지 다양한 기관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학적인 평가방법론을 만들어, 기존에 진행한 KSP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출했다. 평가항목은 사업수요의 평가, 사업기획의 평가, 사업수행의 평가, 사업산출물의 평가, 사업효과의 평가로 총 5개 영역을 만들어 각 영역에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갖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평가항목마다 우수, 보통, 우수, 우수, 우수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의 항목이 사업기획 분야이다.

3) 국별연수 및 정책 자문관 파견 포함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평가의 대상은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시행된 사업 중 지역과 주제, 중점지원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몽골, 알제리,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그리고 온두라스를 평가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우, 여러 부처의 의견 취합 및 수요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관계자들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사업 발굴 및 연구주제 선정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사업에 책정된 예산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제언도 있었다. 또한 조사된 인도네시아 입장은 한국 연구진의 태도 및 전문성에 대한 높은 만족을 나타냈으며 최종보고회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다고 연구는 평가결과를 제출했다(한남대 산단, 2013).

그러나 본 과제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CKSRP 사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 KSP 사업은 학술적 의미에서 두 가지 측면의 한계가 존재한다. **하나는 협력대상국 연구진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한국의 연구진 구성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전문적이면서도 그 해당지역의 지역전문가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CKSRP사업의 핵심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자문 사업이 협력대상국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나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진에서 해당 지역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구진이 해당국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연구진을 활용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동시에 요구된다.**

기존 한국과 인도네시아 KSP 사업의 주요기관은 우선, 한국의 경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산업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과학기술원, 김앤장 법무법인,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토환경연구소, 국가관세종합정

보망,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노동연구원, 신용보증기금, 금융연구원, 삼성 KPMG, 코리아크레딧뷰로, (주)한국기업데이터, 개별관련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전문 정부출연 및 민간 연구소 등이 결합되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가개발기획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Kementeri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이하 PPN), PPN 산하 경제개발기획부(Bappenas), 자본시장·금융감독청(BAPEPAM), 투자청(BKPM), 관계부처, 관련 주제의 전문가로서 대학교수,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결합되었다.

이러한 사업기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첫째, 한국과 인도네시아 각각 현지에 대한 지역전문가, 지역전문가 네트워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지역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를 말한다. 둘째, 한국과 인도네시아 둘 다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은 민간연구소, 대학교수, 민간기업 등이 사업의 주체였던 적도 있지만,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반영할만한 시민단체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정부가 진행하는 KSP 사업에 대해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데는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보인다. 따라서 CKSRP 사업의 핵심주체는 한국의 신흥 지역연구팀과 협력대상국의 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플랫폼 구축에 있다.

제3절 CKSRP의 차별성과 지향성

본 절에서는 신흥지역과의 교역 및 개발협력을 위한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이 기존 국제개발협력의 지식공유 사업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1. 개발수요에 대한 '포용적' 지식 플랫폼

양국의 개발협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용국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CKSRP의 핵심적인 사업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지에 요구되는 개발수요를 어떻게 지식공유의 과정을 통해 만들 것인가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개발수요에 대한 포용적 지식 플랫폼 구축에서 '포용적'(inclusive)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수요 발굴에 있어서 공여국과 수용국 양국이 처음부터 함께 시작한다. 무엇보다 공여국의 의향과 필요가 아니라 수용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단계와 계획의 기초한 수요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수용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단계 계획에 대한 수혜국 입장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수용국 개발수요 발굴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입장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입장이 수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경우 개발수요조사는 해당 관료사회에 대한 서면조사로 국한되어 왔었다. 하지만 개발의 수혜자인 시민사회로부터 개발의제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수혜국 개발수요 발굴을 위해서 '마을공동체'의 입장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은 도시보다는 농촌에 우선하는 것이고, 농촌은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개발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로부터의 개발수요를 밀착하여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 '암묵적' 지식을 강조하는 지식 플랫폼

기존의 지식공유사업은 주로 명시적 지식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공식 문서에 담겨져 있는 지식이 주요한 대상이 되어 왔다. CKSRP 사업은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지식을 다루고자 한다. 공식 문서에서의 명시적 지

식 뿐 아니라, 비공식적 문서에 담겨져 있거나,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암묵적 지식도 그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암묵적 지식은 명시적 지식과 달리 사회성원들 사이의 일상적 대화나 행동에 의해 습득되고 전달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문화적 지식에 해당하는데, CKSRP 사업에서는 이러한 암묵적 지식을 발굴하고 이를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식공유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교역 및 개발에 대한 현지 수요를 포착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표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식적 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수요가 현지인들이 실생활에서 갖고 있는 현실적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 지식의 발굴과 명시적 지식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지식공유사업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현지 수요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묵적 지식은 지식공유사업에서 전수된 개발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3. 호혜성과 신뢰성에 기초한 관계적 지식 플랫폼

한국에서의 지식공유사업은 일회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지식공유의 본질적 성격의 측면에서 일회성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CKSRP는 일회성을 극복하고, ‘공유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먼저, 지식공유 사업은 지식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지식공유의 두 가지 동기인 호혜적 동기와 권력의 동기 중에서 CKSRP는 호혜성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한다고 할 때,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식공유는 이를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상호적 혜택을 기대하는 호혜적 동기에 기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혜성에 기초한 지식공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협력국 사이

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적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지식의 공유자와 수용자가 동등한 관계에 있으며 지식의 교환이 이들 사이의 일대일 조응과 균형적 상호성을 갖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CKSRP에서의 지식공유채널은 동등한 관계이며, 협력국 사이의 평등성, 균형성 그리고 조응성에 기초한 접근법이다.

4.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지식 플랫폼

지식의 성격, 지식공유의 동기, 지식공유의 기회가 작동하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것은 문화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집단감정,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문화는 국가 간에 지식이 이전되고 공유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 문화는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차원에 긴밀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 어떤 지식이 선호되고 필요하다고 인식되는가 하는 지식의 수요, 그러한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 지식을 수용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의 가치와 규범, 집단감정, 생활양식이 그 지식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간여한다. 특히 지식의 공여국과 수용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지식공유의 큰 장애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지식공유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CKSRP 사업은 협력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쌍방향적 소통의 창구로서 지식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5. 지역연구 베이스 지식 플랫폼

본 CKSRP는 기존 지식공유사업에서는 지역연구전통을 강조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지식공유사업에서 지역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서도 밝혔던 것처럼 현지적 수요를 발굴 및 창출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맥락화된 그리고 현

지에 밀착된 교역 및 개발수요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해당지역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그리고 법제도적 이해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추출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전통은 지역연구이다. 현지 아래로부터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밀착형 현지 개발수요 조사는 현지어가 가능한 지역연구자들의 시각과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발수요의 현지화전략은 해당 신흥지역의 역사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환경의 특수맥락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신흥지역 국가들의 현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역과 개발이슈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지역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밀착형, 현지맥락화된 교역 및 국제개발협력 주제를 발굴하는데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요구들을 지역별로 체계화, 분류화, 구체화해서 ‘수요’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현지 상황에 민감함 그리고 실천 가능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6. 지식공유 이전 단계로서 공유지식 창출단계 그리고 융합지식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지식공유사업이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앞서서도 분석했다. 하지만 여기서 원론적으로 ‘공유할 지식이 무엇인가’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기존 지식공유사업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SDGs의 수많은 개발의제도 실질적인 두 협력국 사이에 공유된 지식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한다고 했을 때도,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도 기본적으로 공유된 지식은 아니다. 따라서 본 CKSRP는 ‘공유할 지식’을 창출하는 단계를 핵심적인 사업과제와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국, 양 지역과 양 기관 간에 축적된 공유지식체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단계로서 한국과 협력국 모두에게 유용한 ‘융합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Ⅲ. CKSRP의 모델과 로드맵

본 장에서는 CKSRP의 이론적, 실행적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실행적 모델에서는 한국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에 대한 신흥지역 확산의 적용의미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CKSRP 실행적 모델이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CKSRP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대 및 확산효과가 있을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CKSRP의 이론적 모델

1. 지식전환플랫폼으로서 CKSRP

지식공유사업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지식에 관한 인식론적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의 인식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정혁 2015, 14-16). 첫째, 지식은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시적 지식은 글과 문서로 표현되어 있는 지식을 말하며, 암묵적 지식은 개인 혹은 집단에 체화되어 있으나 글과 문서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지식을 뜻한다. 기존의 지식공유사업은 주로 명시적 지식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공식 문서에 담겨져 있는 지식이 주요한 대상이 되어 왔다. CKSRP 사업은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지식을 다루고자 한다. 공식 문서에서의 명시적 지식 뿐 아니라, 비공식적 문서에 담겨져 있거나,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암묵적 지식도 그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암묵적 지식은 명시적 지식과 달리 사회성원들 사이의 일상적 대화나 행동에 의해 습득되고 전달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문화적 지식에 해당하는데, CKSRP 사업에서는 이러한 암묵적 지식을 발굴하고 이를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식공유의 새로

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교역 및 개발에 대한 현지 수요를 포착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표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식적 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수요가 현지인들이 실생활에서 갖고 있는 현실적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 지식의 발굴과 명시적 지식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지식공유사업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현지 수요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묵적 지식은 지식공유사업에서 전수된 개발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를 인도네시아에 전수한다고 하였을 때, 그 사업의 성공여부는 인도네시아인의 청결과 위생에 대한 암묵적 지식의 성격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둘째, 지식에 대한 이해방법과 유용성 면에서 국지적 지식(local knowledge)과 보편적 지식(global knowled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지적 지식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하고, 보편적 지식은 특정 지역이나 시점에 관계없이 통용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지식의 적응’(adaptation)이 지식공유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식변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식변환의 과정은 해당 지식이 국지적 지식인가 보편적 지식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1) 한 지역의 국지적 지식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1단계로 그 국지적 지식을 최대한 보편적 지식으로 변환한 후, 2단계로 변환된 지식을 다시 지식공유 대상국의 국지적 지식으로 보정하는 두 단계의 적응과정이 필요하다. 2) 보편적 지식의 경우는 그 시대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국지적 특성에 맞게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관한 지식을 인도네시아 농촌에 전수한다고 할 때, 이는 국지적 지식의 공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성격의 국지적 지식을 보편적 지식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다시 인도네시아의 농촌 상황에 적합한 국지적 지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지식의 구분을 2*2 매트릭스로 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나온다. 이러한 지식의 조합에 따른 4가지 유형에 따라 지식공유 체계를 만들어 나갈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이 구분될 수 있다.

<표 4> 지식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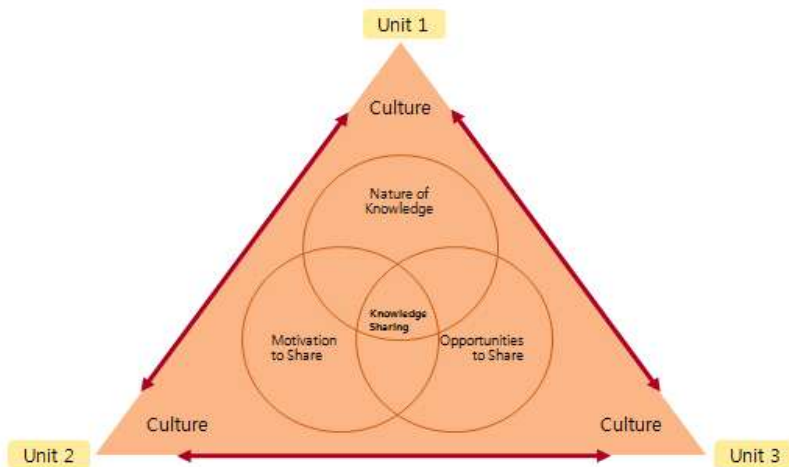
지식의 구분	명시적 지식	암묵적 지식
국지적 지식	①	③
보편적 지식	②	④

첫째, 명시적이면서 국지적 지식의 경우는 지식공유를 위해 1단계로 국지적 지식의 기제에 관한 일반화, 2단계로 그 기제를 대상국에 부합하도록 보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둘째, 명시적이면서 보편적 지식의 경우는 전 지구적 공공재에 해당하며 이러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상호 적용 가능성이 높아서 전통적으로 수직적 교수법에 의한 지식공유가 가능하다. 셋째, 암묵적이면서 국지적 지식의 경우는 지식공유가 가장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수평적 학습과 국지적 지식의 재구성이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공유는 도제학습, 직무파견, 트위닝과 같은 일방향적인 수평학습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고 공여주체와 협력대상 간에 긴밀한 ‘상호학습’을 요한다. 넷째, 암묵적이면서 보편적 지식의 경우는 수직적 교수법이 아닌 수평적 학습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식의 일반성으로 인해 도제학습, 직무파견, 트위닝과 같은 일방향적 수평학습도 가능하다.

2. CKSRP의 설계요소

<그림 5>는 “조직 안에서의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in Organization)”에 관한 모델을 변형해서 “국가 간 지식공유”에 관한 모델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설명한 그림이다. 일찍이 경영학에서는 지식공유가 기업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조직 안에서 공유해서 조직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림 5> 국가 간 지식공유사업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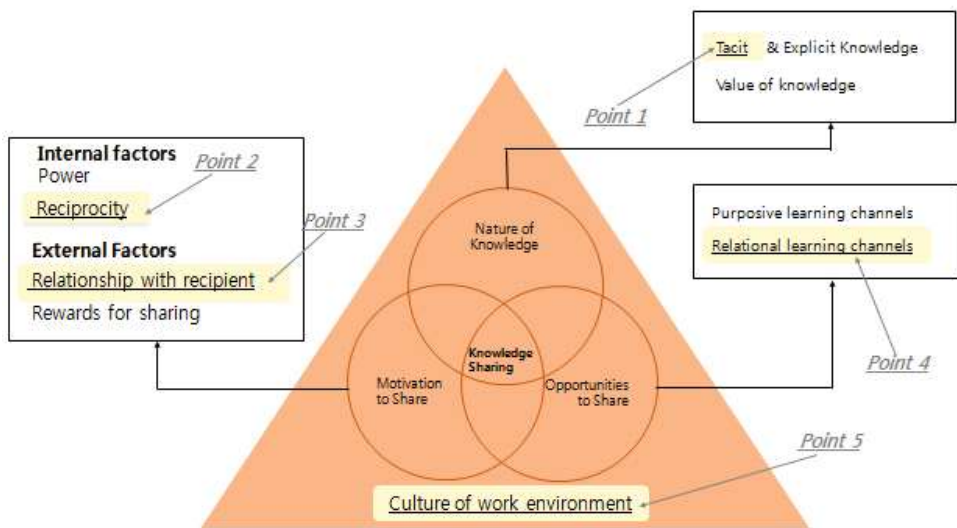


Ipe, Minu. 2003. “Knowledge Sharing in Organizations: A Conceptual Framework.”
p.352의 그림을 Individual에서 Unit의 변화로 재구성함.

이러한 기존의 경영학적 모델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고자 한다. 즉, “한 조직에서 개인 사이의 지식공유”를 “세계 안에서의 국가 사이의 지식공유”의 차원으로 확대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경영학적 모델에서도 조직 안에서 개인이 소유한 지식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가 간 지식공유사업에서 더욱 중요한 측면

으로 부각된다. 두 협력국 사이에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양국의 개발협력을 위한 지식공유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 관한 정책과 기술을 해당국가에 확산할 때, 전수하고자 하는 기술 이면에 존재하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이 수용국의 '문화적 맥락'과 얼마나 치환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흥지역의 교역 및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를 그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한국과 신흥지역 사이의 지식 공유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그림 6> 양국 간 지식공유 설계의 주요차원



Ipe, Minu. 2003. "Knowledge Sharing in Organizations: A Conceptual Framework." p.352의 그림에서 본 글의 방향에 맞게 강조점을 제시함.

<그림 6>을 통해 CKSRP의 이론적 모델이 갖는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면, 지식공유와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네 가지 영역이 제시되어 있다: 1) 지식의 성격, 2) 지식공유의 동기, 3) 지식공유의 기회, 4) 지식공유의 문화적 환경이다.

(첫 번째 영역) 지식의 성격: 암묵적 지식에 방점을 둔 사업

지식의 성격과 관련해서 지식의 암시성(tacitness)과 명시성(explicitness), 지식의 가치(value of knowledge)라는 두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지식의 가치는 전수되는 지식이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연관된 주제인데, CKSRP에서의 지식공유사업은 상업적 가치를 갖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과 같이 배타적 소유권이 확정된 지식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지식의 암시성과 명시성은 명시적 지식과 암시적 지식의 구분과 관련한 지식의 인식론적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CKSRP 사업은 명시적 지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공유사업에서 간과되어 왔던 암묵적 지식을 지식공유의 중요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Point 1).

(두 번째 영역) 지식공유의 동기: 협력국 사이의 호혜성과 신뢰구축에 초점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동기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내적 요인에는 호혜적 동기와 권력의 동기가 존재한다. 이는 지식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간에 그 동기가 호혜성(reciprocity)을 추구하는 것인지, 권력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CKSRP 사업은 호혜성을 지식공유의 핵심적 동기로 상정한다(Point 2). 예를 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한다고 할 때,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식공유는 이를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상호적 혜택을 기대하는 호혜적 동기에 기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동기의 외적 요인으로는 ① 수혜자와의 관계성(relationship with recipient)과 ② 공유에 대한 보상(rewards for sharing)이 있다. 지식의 공여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인지 권력적 위계의 관계인지, 그리고 지식공유에 대해 물질적 보상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는 실제 지식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CKSRP 사업은 지식공유에 따른 물질적 보상은 전제하지 않으며 해당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open access)을 허용한다. 또한 **CKSRP 사업은 수용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성을 지식공유의 기본적인 전제로 상정한다(Point 3)**. 예를 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치 외교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고, 경제적으로 포괄적 협력관계이다. 즉,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성이 구축되어 있다. CKSRP의 지식공유사업은 이러한 관계성에 기초하여 시행되며, 사업의 수행에 의해서 신뢰관계가 확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영역) 지식공유의 기회: 관계적 학습 채널의 활용

지식공유의 기회에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채널이 존재한다. 공식적 채널로는 연수프로그램, 프로그램팀 가동, 기술전수 등이 있으며, 비공식적 채널로는 개인적 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이 해당된다. 전자는 목적형 학습 채널(purposive learning channel)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관계적 학습 채널(relational learning channel)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적 학습 채널은 비공식적인 면대면 소통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한 지식공유의 과정 자체가 상호간에 신뢰와 우정을 구축하는 기회가 된다. CKSRP 사업은 공식적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의 두 가지 지식공유의 방법을 활용한다. 동시에, **CKSRP 사업은 기존의 지식공유사업에서 간과되어 왔던 관계적 학습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Point 4)**.

지식공유행위에 관한 관계적 모델을 제시한 Boer, Berends and Baalen의 연구에 따르면(2011), 관계성에는 4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① 공동체적 관계성(communal sharing relationship): 지식을 사적 소유물이 아닌 공동체의 공유자원으로 인식하며, 공동체 성원은 그 지식에 동등한 자격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② 권위서열관계성

(authority ranking relationship): 위계적 사회에서 지식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③ 동등매칭관계성(equality matching relationship): 지식의 공유자와 수용자가 동등한 관계에 있으며, 지식의 교환이 이들 사이의 일대일 조응과 균형적 상호성을 갖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④ 시장가격관계성(market pricing relationship): 비용-이득의 계산에 따른 지식의 판매와 구매에 기초한 관계성을 의미한다(Boer *et al.*, 2011, 87-88). CKSRP에서의 지식공유의 채널은 동등매칭관계성에 해당하며, 협력국 사이의 평등성, 균형성, 조응성에 기초한 접근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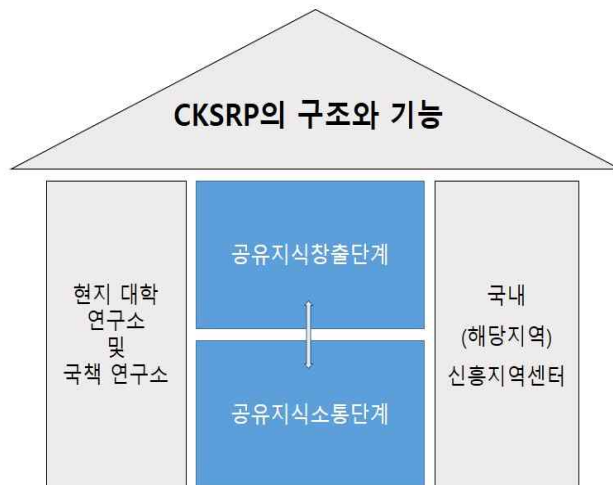
(네 번째 영역) 지식공유의 문화적 맥락: 문화와 지식의 관계에 초점

위에서 언급한 지식의 성격, 지식공유의 동기, 지식공유의 기회가 작동하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것은 문화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집단감정,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문화는 국가 간에 지식이 이전되고 공유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 문화는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차원에 긴밀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 어떤 지식이 선호되고 필요하다고 인식되는가 하는 지식의 수요, 그러한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 지식을 수용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효용성 뿐 아니라 특정 사회의 가치와 규범, 집단감정, 생활양식이 그 지식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간여한다. 특히 지식의 공여국과 수용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지식공유의 큰 장애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지식공유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CKSRP 사업은 협력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쌍방향적 소통의 창구로서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Point 5).*

제2절 CKSRP의 실행적 모델: 구조와 기능

CKSRP(창의적 지식공유연구플랫폼)는 한국의 지역연구센터와 해당 협력국의 연구기관들로 구성되며 이들 사이의 연구협력의 장을 말한다. 이들 연구기관들이 ‘교역 및 개발과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에 대한 현지 수요’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지식을 협력국 사이에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7> CKSRP의 구조와 기능



1) 사업주체

CKSRP 사업의 국내 연구주체는 대학 부설 지역연구소로 한다. 기존의 KSP 사업이 정부와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운영된 것에 반해, CKSRP 사업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지와의 네트워킹이 현지 수요의 발굴과 해석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축적한 대학 부설 지역연구소를 CKSRP 사업의 국내 연구주체로 선정한다. 이들 지역연구소는 국

내의 다른 대학 또는 국책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공동연구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CKSRP의 현지 사업 파트너로는 공유지식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대학연구소를 선정한다. 이는 기존의 KSP가 현지의 정부기관을 사업 파트너로 선정한 것과 사업조직의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다. 또한, 현지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NGO 등도 CKSRP의 보다 넓은 연구 네트워킹에 포함시킨다. 이는 CKSRP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지식 뿐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의 발굴도 중시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2) 운영원칙

① 본 사업은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다년간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때 최초 사업 시작 시기에 장기간 수행 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되 매년 필요에 따라 양국의 협의를 거쳐 주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사업의 연구주체는 국내 대학의 지역연구소와 현지의 국책/민간/대학 연구소로 한다.

③ 본 사업은 기관 대 기관 협력 사업으로 국내와 현지의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한다.

④ 국내 해당 기관은 사업주제에 따라 자체 직원 및 외부연구진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현지 기관 역시 필요에 따라 현지의 다른 기관과 연합하거나 다른 기관의 연구자들을 선택하여 주제 연구를 추진한다.

⑥ 본 사업의 연구팀은 지역전문가와 특정 주제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들 사이에 학제적 연구가 추진되도록 한다.

3) 조직 구성

CKSRP 사업단은 국내의 특정 지역연구소와 특정 신흥지역 연구소들

간의 양자 간 지식공유플랫폼을 단위로 해서 구성되며(신흥지역의 분류에 대해서는 1장 2절 참조), 이들 지식공유플랫폼을 연계시켜 한국과 전체 신흥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글로벌 지식공유연구플랫폼’(Global Knowledge-Sharing Research Platform)으로 조직화된다.

CKSRP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채널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에 의해 지식을 생산하고, 학술회의와 교육 및 연수 또는 인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지식을 유통한다. 그 과정에서 목적형 학습채널 뿐 아니라 개인적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적 학습채널도 활용한다. 온라인 채널은 개별 연구팀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글로벌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의 웹사이트), 개별 연구팀이 해당 신흥지역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본 사업단이 새롭게 창출한 지식이나 기존의 지식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담당자, 전문가,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공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한국의 연구진과 현지의 연구진이 수시로 정보와 지식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기능

CKSRP의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유지식 창출과 다른 하나는 공유지식의 소통이다. 두 기능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됨으로서 서로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유지식 창출 기능]

협력국 사이에 교역과 개발이슈와 관련된 ‘공유된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지식발굴단계는 본 사업단의 국내 연구진과 현지 연구진에 의해

교역 및 개발과 관련된 현지 수요에 대한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흥지역에 따라 수요의 우선순위(priority)**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특정 주제에 대한 수요를 단계별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제 선정 과정에서 국내 연구진과 현지 연구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발굴단계에서는 새로운 조사를 통한 지식의 창출 뿐 아니라, 현지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찾아내서 활용하는 연구활동도 포함된다.

둘째, 지식전환단계는 암묵적 지식의 명시적 지식으로의 변환, 국지적 지식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수집된 자료에 반영된 현지 수요를 해당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이를 이론적 틀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학술적 작업의 단계이다. 이는 새롭게 발굴된 원천 자료를 문서 형태의 지식으로 바꾸는 작업에 수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문서 형태의 지식은 연구논문, 단행본, 보고서, 웹사이트 문서 등의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셋째, 지식축적단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거쳐 생산된 지식을 ‘지식공유연구플랫폼’에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해당하며, 지식의 소통을 통한 지식공유의 물리적 기반이 된다.

[공유지식 소통 기능]

본 사업단에 의해 생산되고 축적된 지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소통됨으로써 지식공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첫째,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지식의 소통

이는 CKSRP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 앞에서 언급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지식 소통 기능이 CKSRP의 조직 구성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연구논문, 단행본, 보고서와 같은 문서적 형태의 지식, 학술회의와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의 소통 방식이 활용된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글로벌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의 웹사이트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지식공유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둘째,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청년인턴제 운영

지식공유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CKSRP 사업은 기성 연구진 사이의 공동연구 뿐 아니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동연구에 대학원생 또는 대학생을 연구조교로 참여시켜 실질적인 연구경험을 쌓도록 한다. 또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여 국내 연구소의 사업 파트너인 해외 연구기관 또는 이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현지 연구자와 연구협력의 경험을 쌓고 현지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인턴 경험은 한국 청년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계기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신흥지역의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을 국내 지역연구소의 인턴으로 받아들여 한국과 신흥지역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한 미래 자원으로 양성한다.

4) 현지 수요 모형

① 교역 및 개발에 관한 수요

신흥지역의 개발 수요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CKSRP 사업이 집중해야 할 영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보고서인 SDGs(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제시된 17개 개발의제가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

<표 5> SDGs의 17개 개발목표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Goal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증진
Goal 5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Goal 6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Goal 7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Goal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Goal 9	회복(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Goal 10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Goal 1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거주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Goal 1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Goal 14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Goal 15	육상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열대림 보호, 사막화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제도 구축
Goal 17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

SDGs 개발의제는 빈곤, 식량, 복지, 교육, 환경, 건강과 위생, 에너지, 인프라, 산업 및 고용, 소비, 사회 불평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현실 과제를 제시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CKSRP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흥지역국의 교역 및 개발에 관한 현지 수요의 발굴과 이에 기초한 지식공유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개발협력에 관한 이러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본 사업단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SDGs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개발의제를 제시한 것이라면, CKSRP는 신흥지역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교역 및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특정한 현지 수요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연구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즉, 신흥지역의 현지맥락과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발의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이 한국과 신흥지역 사이의 지식공유사업이란 측면에서 한국의 필요와 잠재력이 연구의 아젠다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교역과 개발 이슈를 결합한 최근의 “무역촉진원조”(Aid for Trade)는 후자의 측면에서 유용한 준거점을 제공한다.

② 한국 발전경험에 대한 현지 수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은 세계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우선시 고려해야 할 것은 한국의 필요보다는 수용국의 요구라는 맥락에서 한국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해외로 확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식민지로의 전락과 해방,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한국 전쟁의 폐허로부터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형 사회·경제 발전의 단계로 진입한 사례로 세계적으로 흔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노력과 성과, 경험과 노하우는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닌 세계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과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적된 노하우를 확산하는 것은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신흥국가들과 공유하는 것은 비단 그들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하는 한국에게도 큰 역동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신흥 시장 개척

전략은 시장의 확대만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흥 국가들이 기대하는 자국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수반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한국의 안정적 경제 발전을 도모할 동기부여와 기회를 줄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흥시장 진출 전략도 그 범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2015년 초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 중동 및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20여개 국가로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양자 경제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즉, 이들 지역 국가들과 FTA 체결함으로써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한국이 포함된 “메가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⁴⁾

5개 지역에 걸친 신흥시장 개척, 즉, 한국의 “메가 경제권” 구상이 정치, 외교적인 노력의 결과로 실현여부가 결정될 것은 분명하다.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가 해당 국가들과 한국의 경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경험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지역적 원거리성과 경제 교류의 경험 부족, 해당 신흥 지역의 대한국 관계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부족 등으로 그 성장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 국가들이 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다. 이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과 왜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은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신흥지역 국가들의 개발수요(needs)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메가 경제권을 추구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CKSRP에서는 한국발전경험에 대한 현지적 수요파악과 수요파악에 기초하여 국내 학술적 성과들을 현지 맥락에서 재가공하여 그

4) 정책 브리핑, 2015년 6월 19일, 중미 6개국과 FTA협상 개시..신흥시장 개척 (www.korea.kr/, 검색일: 2015.08.05); SBS, 2015년 4월 29일, 신흥국 중심 FTA 2라운드 돌입...新FTA 추진전략 발표 (news.bbsi.co.kr/, 검색일: 2015.08.05)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목적의 하나로 삼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활동-수요과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학술회의, 연구자 및 인턴 파견 등-은 CKSRP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업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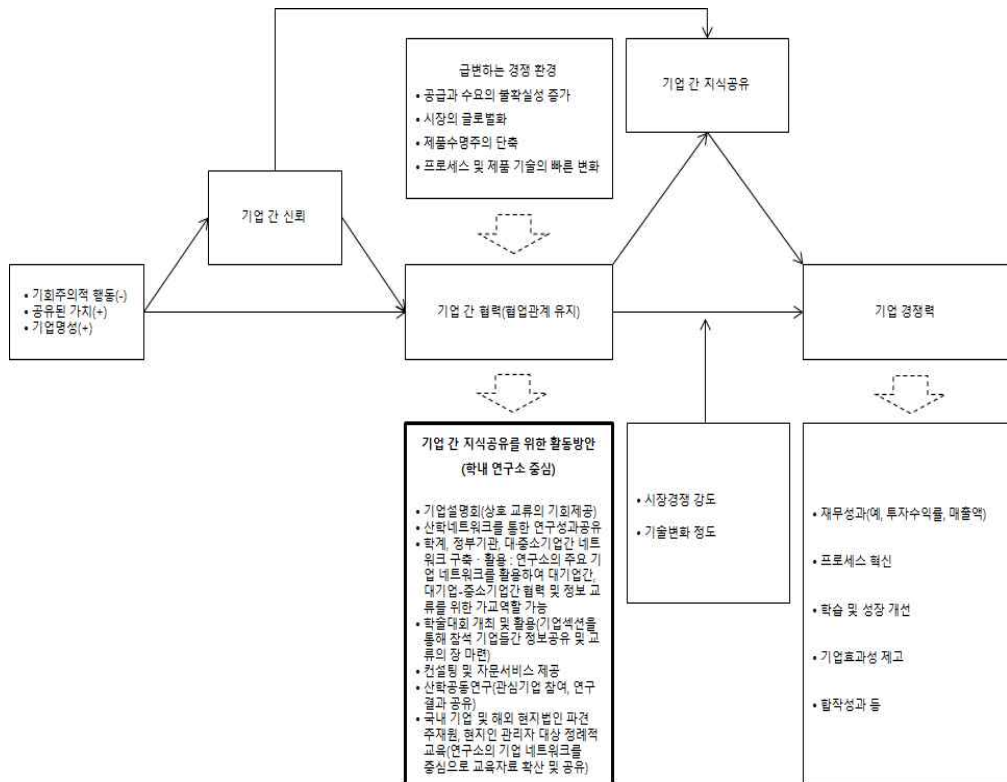
한국과 신흥지역 사이의 지식공유사업이란 측면에서, 교역 및 개발 수요 뿐 아니라 기업 수요가 현지 수요의 중요한 한 측면을 구성한다. 특히 한국과 신흥지역간의 관계에서 이들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기업과 현지기업 파트너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KSP를 포함한 기존의 지식공유사업은 주로 정부기관이 사업 주체로 상정되어 있으며, 기업을 지식공유의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CKSRP는 기업도 지식공유의 중요한 행위자로 포함하여, 기업 수요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기업 간에 공유하는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의 지식공유는 최근 경영학에서 기업경쟁력 증진의 방안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업 내부의 지식공유와 기업 간 지식공유를 포함한다. 본 사업의 성격상 기업 내부의 지식공유는 논외로 하고, 기업 간 지식 공유, 특히 한국기업과 현지기업 간의 지식공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과 현지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적 상대이면서 동시에 협력적 상대이기도 한데, 협력 파트너 사이에 경영 모범 사례 또는 기법(best practice)에 대한 지식공유는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 간 신뢰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Cheng et al. 2008). 기업 간에 지속적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신뢰가 핵심적인 사안인데, 지식공유는 신뢰 구축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간 지식공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최근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란 차원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잘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을 다른 기업에 이전하거나 공유

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지식공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자의 개입이 중요하다. CKSRP 사업의 국내/해외 연구주체인 대학 연구소들이 산학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식공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간담회, 세미나, 강연, 공동연구 등의 방식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 간 지식공유를 위한 활동방안은 <그림 8> 과 같다.

<그림 8> 기업 간 지식공유 모형



제3절 CKSRP 구축의 로드맵

<표 6> CKSRP 사업의 로드맵

단계별	추진방향
1단계 : CKSRP 기반구축 (2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KSRP 연구체계 확립 • 협력 연구기관의 선정 및 협약체결 • Global Knowledge-Sharing Platform 웹사이트 구축 • 신흥지역의 교역 및 개발수요의 전체적 검토 및 우선순위 확정
2단계 : CKSRP 실행 및 성과확산 (3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수요들에 대한 집중적 현지조사 및 학술적 지식으로의 전환 • 연구 네트워크의 확대 및 지식공유방법의 다양화 • 지식공유연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CKSRP 성과의 국제적 공유 및 확산

1. 1단계 기반구축

이 단계는 CKSRP의 연구체계를 확립하는 기간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 ① 교육부는 CKSRP 사업의 연구주체로서 국내 연구기관들을 선정한다. 국내 연구기관들의 선정에는 CKSRP에서 지식공유의 대상이 될 신흥지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선정된 국내 연구기관은 CKSRP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해당 신흥지역에서 협력 연구기관들을 선정하고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또한 국내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 ③ CKSRP 사업에서 수행될 지식공유연구의 중장기 플랜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기관은 신흥지역 협력 연구기관의 협조 하에 해당 지역의 교역 및 개발 수요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수요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한다.

- ④ 위의 작업에 기초해서 국내 연구기관은 신흥지역 협력 연구기관의 협조 하에 특정 수요에 대한 시범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 ⑤ CKSRP의 모든 사업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Global Knowledge-Sharing Platform(GKSP)이라는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개별 사업단은 해당 신흥지역에 대한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이를 연계하여 GKSP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 ⑥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청년인턴제 등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2단계 실행 및 성과확산

이 단계는 CKSRP의 연구 내용을 축적하고 확산하는 기간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 ① 1단계에서 확정된 해당 신흥지역의 교역 및 개발 수요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다수의 특정 주제들에 대해 현지 협력 연구기관과의 협조 하에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학술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최종 결과물은 연구논문, 단행본, 보고서, 웹사이트 문서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 ② 1단계에서 수립된 연구 네트워크를 질적으로 심화하고 양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의 네트워크가 주로 연구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라면 2단계에서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NGO, 기업과의 네트워크로 확장한다.
- ③ Global Knowledge-Sharing Platform의 웹사이트가 한국과 신흥지역 사이의 지식공유의 데이터베이스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 위해 콘텐츠의 내용을 축적하고 최신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 ④ 국내 연구진과 신흥지역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미나 및 학술

회의를 개최한다. 청년인턴제 등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⑤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를 통해 CSKRP 사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킨다.

⑥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KSP나 KOICA가 주관하는 ODA와 CKSRP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실행한다.

⑦ 외부 자문기관을 통해 CKSRP 사업 수행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한다.

제4절 CKSRP의 기대효과

이 절에서는 CKSRP 사업의 기대효과를 학술적 측면, 정책적 측면, 실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학술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CKSRP는 신흥지역연구와 개발협력 연구를 연계시킴으로써 한국의 지역연구와 개발협력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지역연구는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순수 학문적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실용적 연구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흥지역의 교역과 개발협력의 이슈에 초점을 맞춘 본 사업은 한국의 지역연구 전통을 실용적 연구에 접목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지역연구를 통해 그동안 축적하여 온 현지 사회에 대한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영역이기도 하다.

개발협력 연구의 측면에서도 본 사업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개발협력 연구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들을 적용하여 개발이슈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개발대상 지역의 현지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협력 연구자들이 지역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흥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이 기대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현지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은 기존의 개발연구가 안고 있는 중요한 한계로 남아 있다.

한국의 학문 생태계에서 지역연구와 개발연구는 별개의 연구영역으로 설정되어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CKSRP는 지역연구와 개발연구가 중첩되는 연구주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연구자와 개발연구자의 공동연구가 가능하고 필요한 새로운 지식 생산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CKSRP의 학술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학문연구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지역연구에서 순수 학문적 연구가 실용적 연구로 관심을 확대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연구와 개발연구가 접목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 정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CKSRP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 KOICA의 ODA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의 KSP 사업과 ODA 사업은 한국정부와 협력대상국 정부가 사업주체가 됨으로써 정부 간 협력사업이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며,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지식이나 한국의 개발협력 아젠다를 수혜국에게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방식은 공여된 발전경험지식이나 개발협력이 수혜국에서 전혀 수용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KSP 사업이나 ODA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사업이 현지의 실질적 수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에 기초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KSP 사업과 ODA 사업은 이 점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 자문단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CKSRP 사업은 교역 및 개발에 대한 현지 수요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KSP 사업이나 ODA 사업이 현실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실용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CKSRP 사업은 한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급할 수 있다. 현지에 밀착한 수요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 수요에 기초한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요긴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일부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신장이 한계에 부딪침으로써 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장의 다변화 정책에서 신흥시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신흥지역 사이의 관계도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져 가고 있다.

신흥지역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최근 높은 원자재 가격을 배경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신흥 개발도상국으로서 지속적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을 국가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셋째,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흥지역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신흥시장이 단순히 상품판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넓은 의미에서의 교역과 개발이슈가 신흥시장 진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시사하고 있다. CKSRP 사업은 이 점과 관련한 현지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에 집중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IV. CKSRP의 현지 수요예측과 사례적용

본 장에서는 CKSRP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았을 때, 가능한 상황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CKSRP 실행모델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신흥지역에서 어떤 교역과 개발협력 수요들이 가능한지를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예측해보고자 한다.

제1절 CKSRP 모델의 신흥지역에 대한 적용 예시: 인도네시아 ‘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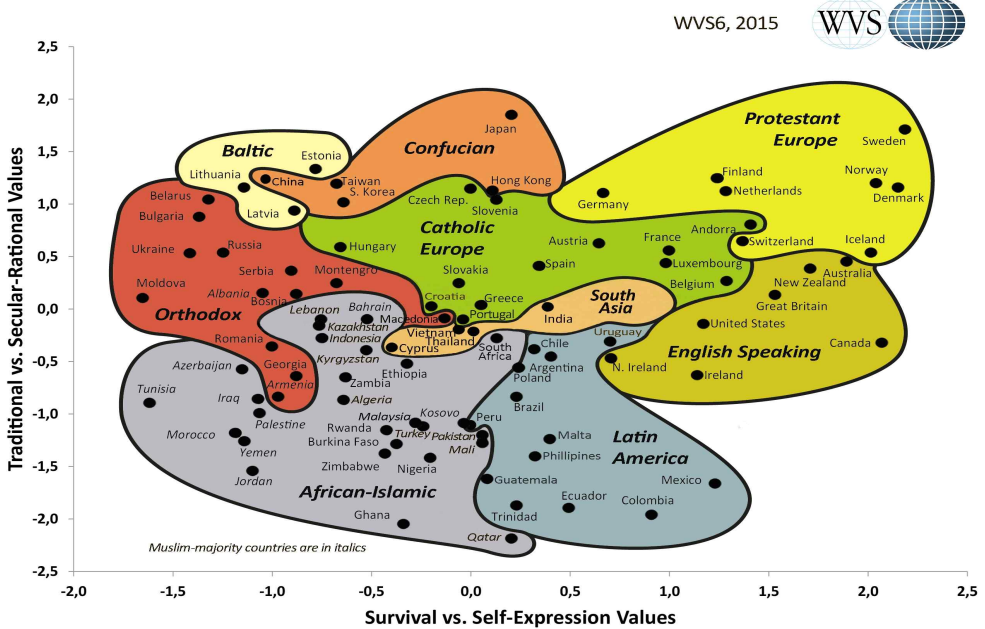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CKSRP 모델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물’이라는 개발이슈를 중심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례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한국과 인도네시아 CKSRP의 이론적 모델 적용의미

한국과 인도네시아 신흥지역 CKSRP 이론적 모델이 갖는 함의를 설명하기 위해 앞의 3장 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CKSRP의 내용인 <그림 5>과 <그림 6>의 5번째 초점에 대해서 부각하고자 한다. 두 협력국 사이에 ‘개발’을 논의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 국가의 문화적 차이라는 점이다. 그로부터 도래되는 인식, 가치,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협력국 사이의 지식공유연구플랫폼 사업의 핵심적 이론적 기초는 ‘문화’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신흥지역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에 민감한 로컬 참여형 CKSRP’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각각의 문화적 특징은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나타난 문화지도(cultural map)에서 가장 최근 2010-2014년 동안 조사하여 만들어진 2015년 세계문화지도이다. X축 0을 기준으로 생존적 가치(경제적 가치)와 자기표현적 가치(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좌우대칭하고 있으며, Y축은 0을 기준으로 전통적 가치(가족, 종교, 마을 등 공동체 가치)와 합리적 세속적 가치가 좌우대칭하고 있다.

<그림 9> 세계 문화지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문화 거리



위의 그림에서 크게 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유교 문화권(confucian)과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african-islamic)에 각각 속해 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X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두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라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 짙은 사회로서 생존적 가치의 점수가 각각 0.7과 0.8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현재

물질적 경제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사회로 분석할 수 있다. Y축을 기본으로 보았을 때,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각각 합리적-세속적 가치 추구 사회 대 전통적 가치 추구 사회로 각각 구분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위의 세계문화지도에 기초해서 보면 인도네시아가 속한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안의 여러 국가 중에서 전통적 가치 추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사회의 전통적 가치 추구 점수는 최대 2.5사회에 비해 0.3 정도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세속적 합리적 가치 추구 점수는 2.5 최고 점수에서 1.0 사회로 나타난다.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 비해 세속적 합리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협력국 사이에 ‘개발협력’을 논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문화의 차이를 언제나 인식해야 하고, 개발을 둘러싼 공유된 지식을 창출하고자 할 때 문화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융합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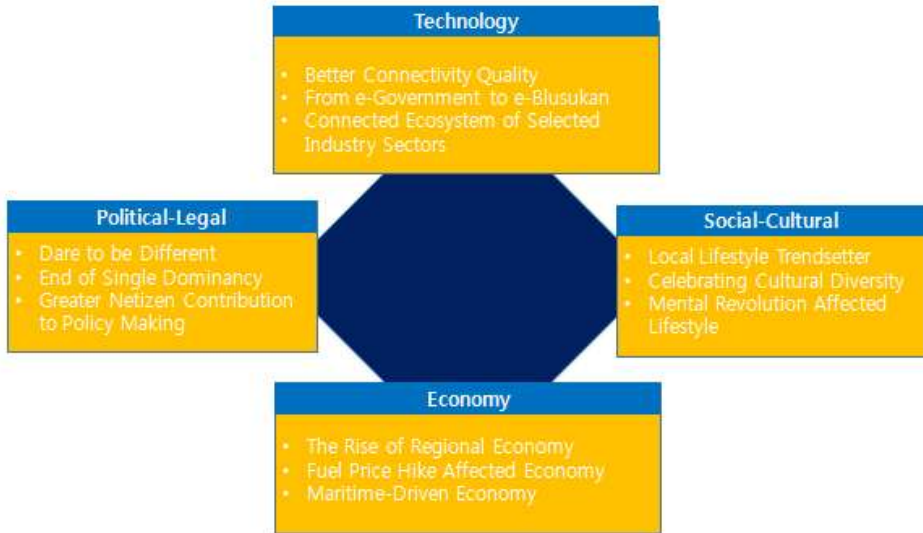
또 하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신흥지역 사이에 개발이슈와 관련된 CKSRP가 작동된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현지 주도적이고, 현지 참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현지국가의 발전전략과 충분히 융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과제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개발이슈의 하나의 예로 ‘물’ 관련 주제가 정해진다면, ‘물’ 주제가 현지맥락에서 현지국가의 발전전략에 상관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은 2005년부터이다. 인도네시아의 2005년은 1997년 시작된 민주화 이후 2004년 최초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유도요노 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해이다. 한국도 이에 맞춰 인도네시아가 요구하는 경제발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정책, 제도, 기술 등을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전수하여왔다. 유도요노 정부 1기와 2기 집권 10년의 통치기간이 끝나고, 2014년부터는 최초 민간출신 대통령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의 집권이 시작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1년 유도요노 정부 시기 만들었던 2025년까지의 경제발전계획(MP3EI)의 거시적 방

향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그의 집권기간 동안 실현할 중기 경제발전계획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RPJMN 2015-2019)을 제시하였다. 이 발전계획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코위 정부 중기 발전계획의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환경적 측면에서 철도, 항만, 도로, 교통 인프라 연계성의 질 확보, 전자 정부를 구축하고 e-블루수칸(e-Blusukan)⁵⁾의 실현, 산업분야의 생태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법정치환경적 측면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과 정책형성에 네티즌의 참여를 독려한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경제권 형성에 박차를 가한다. 넷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증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혁명 등이다. 이 중에서 조코위 정부의 중기 계획 중에서 대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교통 및 사회기반 시설 강화정책, 해양경제권 확보, 정부행정효율성증진을 위한 행정개혁과 정신혁명 등과 같은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최대 다도국가이지만 해양경제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 정책이 그 동안 부족하였기에 신정부는 21세기 해양경제의 중요성 고려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5) 무엇보다 블루수칸의 의미는 인도네시아 자바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탁상공론의 정책이 아닌 현장중심적 정책과 실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조코위 정부의 행정개혁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10> 인도네시아 현 조코위 정부 중기발전계획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의 인프라 확보를 위한 하나의 영역으로서 ‘물(Water)’을 둘러싼 정책들은 그 의미가 크다. 그리하여 본 모델에 기초한 지식공유 플랫폼의 하나의 사례로서 ‘물 관리’, ‘물 안보’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중에서도 2010년 진행된 “인도네시아 물 관리정책방안”과 2012년 KSP 사업의 일환으로 KDI 주관 물 관리 기술교육을 시행했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유역 물 관리 적응기술”로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우기동안 매년 홍수피해로 가공할만한 도시마비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물’은 하천, 강물, 가뭄과 홍수, 관개농업시설 그리고 바닷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코위 정부는 중기 발전계획 중에서 환경 분야의 물 안보 (Water Security) 영역에서 4가지 범주를 설정했다. 첫째, 수원지 보존 (Watershed Conservation) 둘째, 물 유용성(Water Availability), 셋째, 식수 접근성 넷째, 위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물관련 이슈는 SDGs 차원에서도 개발목표 6번째인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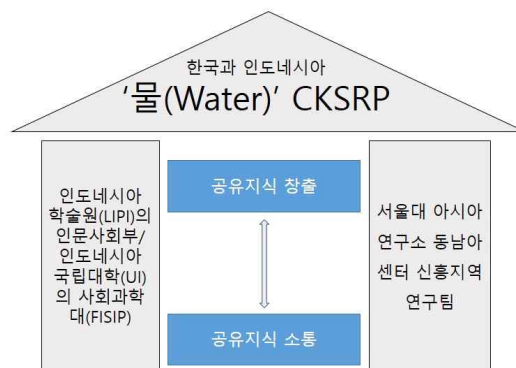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2. 한국과 인도네시아 ‘물’ 관련 CKSRP의 실행적 모델 적용의미: 구조와 기능

위에서 언급한 ‘물’ 주제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신흥지역 사이 CKSRP가 만들어져 운영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우선, 실행모델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물’ 관련 CKSRP를 구성하는 연구주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예상될 수 있다.

‘물’과 관련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사이에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체기관을 언급해 보자면, 국내기관으로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신흥지역연구팀이고 현지기관으로는 인도네시아학술원(LIPI: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이하 LIPI)의 인문사회부(IPSK: Ilmu Pengetahuan Social dan Kemanusiaan)와 인도네

<그림 11> 한국과 인도네시아 물 관련 CKSRP의 구조



시아국립대학(UI: Universitas Indonesia)에 사회과학부(FISIP: Fakultas Ilmu Social Dan Ilmu Politik)를 현지파트너로 삼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현지사정상 LIPI나 UI 한 기관만으로는 충분한 상태가 아니어서 서로 보

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동시에 현지파트너로 삼고자 한다.

LIPI는 인도네시아 고등교육의 핵심적인 상징기관으로 농업부터 과학기술영역까지 전 학문영역을 다루는 국책연구소이고, 그 중에서 CKSRP와 관련된 부서로는 인문사회부서가 적합하다. 그리고 UI 산하 FISIP에는 신문방송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범죄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그리고 국제관계학이 세부학과가 있고, 관련 연구기관들이 있다. 그리고 ‘물’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국내이든 현지이든 산하 연구컨소시움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센터 신흥지역연구팀은 국내 ‘물’ 관련 연구소와 특히 인도네시아에 물과 관련된 개발협력을 진행하는 기관과 필요에 따라 세미나, 콜로키움,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현지 파트너인 LIPI와 UI는 그 내부에서 ‘물’ 주제관련 연구진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물’ 주제 관련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지식플랫폼 형성을 위한 기관간 MOU 체결이 완성된 단계를 말한다.

다음으로는 실행모델의 기능적 측면의 두 가지, 하나는 공유지식 창출 기능과 공유지식 소통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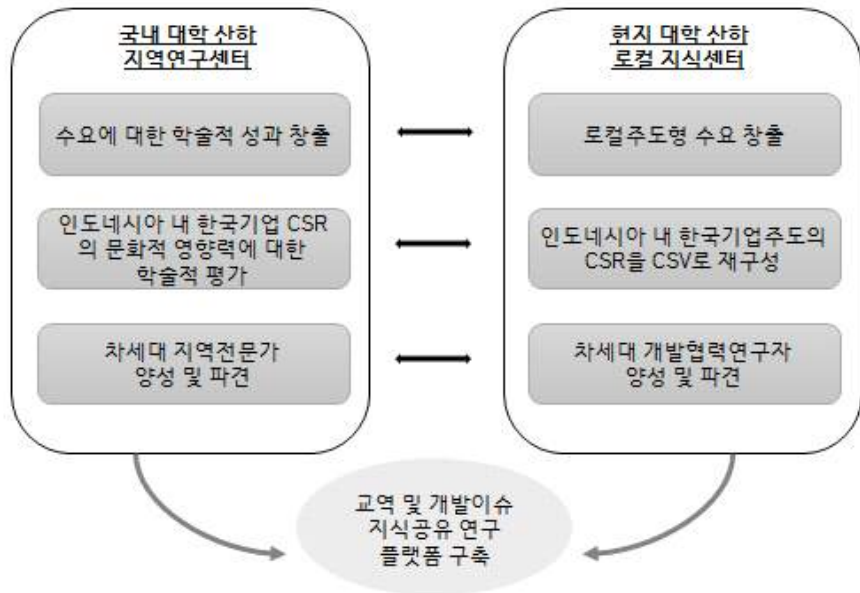
[‘물’ 관련 공유지식 창출 기능]

‘물 관리와 물 안보’에 대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의 운영은 위의 모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지역발전 로컬지식센터로부터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영역, 주제 및 이슈를 발굴하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인 스스로가 그리는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현 단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첫째, 인도네시아 지역발전 로컬 지식센터에서 기존 인도네시아에 진행된 물 관련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즉, 인도네시아 지역발전 로컬 지식센터는 그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를 진행하는데, 평가의 초점은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의 실질적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가발전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적 평가 속에 두 국가 사이의 문화적 공감, 소통, 충돌, 마찰, 접변 등등 다양한 양상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 한국의 지역연구센터는 인도네시아에 전수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학술적 의미 등을 창출, 지원, 교류한다. 얼마만큼 실질적 기여를 해왔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이해, ‘물 문화’에 대한 학문적 쟁점과 평가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연구센터는 한국의 물 자원 및 물 안보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친화의 맥락 속에서 발전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지역연구팀은 ‘인도네시아적 상황’을 전제로 한국의 물 정책, 물 관리 정책에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지향과 가치, 물 문화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물 관리’에 관한 국지적 지식을 보편적 지식으로 재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물 문제’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새로운 해결접근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도네시아 로컬 지식센터는 ‘물 문제’를 중심으로 로컬 주도로 개발협력의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지역연구센터는 첫 번째 단계의 연구와의 연속성이지만, 인도네시아 연구팀이 발굴한 수요주체에 대한 학술적 탐색을 진행하면서, 양 연구센터 사이에 ‘발굴된 수요’의 학술적 의미에 대한 공감을 형성한다.

<그림 12> 한국과 인도네시아 CKSRP 기능: 공유지식 창출과 소통



셋째, ‘물 관리’ 나 ‘물 안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각종 CSR 사업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통해, 이러한 CSR 사업이 CSV로 지식 전환할 수 있도록 두 연구센터는 공동으로 노력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한 지식공유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해당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례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의 지식공유연구 플랫폼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었던 한국기업의 CSR 사업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서로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CSR 사업의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로컬적 차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어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여자’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공유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물’ 관련 지식공유연구플랫폼에서도 ‘물’과 관련 기업의 CSV 사업을 연 관시킬 수 있다.

넷째,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 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국 연구센터가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축은 파견된 차세대 연구자들(석·박사과정생의 연구원)이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관련 주제의 지역전문가 또는 개발협력 전문가의 쌍방향적 교류를 통해 두 기관의 공동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해 ‘물 관리와 물 안보’에 대한 ‘공유된 가치’를 학술적으로 창출해 내는 것이 본 사례의 지식 플랫폼 운영의 최종 목적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 ‘물 자원’, ‘물 관리’, ‘물 안보’에 대한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인식과 가치에 대한 차이와 공유지점을 밝혀내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물 안보의 공동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확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 관련 공유지식 소통 기능]

첫째, 소통기능은 공유된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의 공유지식 창출의 네 번째 요소가 공유지식 소통 기능의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양국 연구센터가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축은 파견된 차세대 연구자들(석·박사과정생의 연구원)이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관련 주제의 지역전문가 또는 개발협력 전문가의 쌍방향적 교류를 통해 두 기관의 공동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물’ 관련 공유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 가공된 정보, 재구성된 정보 등등은 꾸준히 홈페이지, On-line을 통해서 양국에서 사회화노력을 진행한다. 그리고 지식발전 현황에 대한 “Annual Report” 등을 발간하여 그 결과물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한다.

셋째, 관련하여 Off-line에서도 학술회의, 워크숍, 포럼 그리고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면서 ‘현지 지역에 기초한’ 개발의제에 관한 연구 성과들

을 공유한다.

넷째, 이러한 공유된 지식을 현지 개발도상국에 사회화하기 위해 기업의 CSV 사업과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신흥지역연구사업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의 하나가 그 해당 현지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다. 따라서 이렇게 생산된 공유지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또한 생산된 공유지식을 ‘기업설명회’, ‘전문가양성프로그램’ 등에 중요한 콘텐츠의 하나로 활용하고, 이렇게 교육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관련 전문가를 연계시킬 수 있는 장도 공유지식 소통기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제2절 신흥지역의 교역 및 개발협력 수요에 대한 예측

1.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신흥시장 진출을 피하는 나라에는 기회의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의 에너지 자원과 시장으로서의 큰 잠재력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3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 자원의 세계적인 부존지역이며, 희토류(Rare Earth Elements)와 우라늄이 대규모로 매장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는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동 지역의 원유 매장량은 55억 톤(전 세계 매장량의 3.3%), 천연가스는 1.160bcm(6.19%)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미탐사 지역인 카스피 해 등에서 탐사 영역을 넓혀갈 경우 그 매장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7> 중앙아시아 에너지 3국의 석유 및 가스 확인 매장량

국가	석유 확인매장량, 억 배럴	가스 확인매장량, Tm ³
카자흐스탄	300 (세계 12위)	1.5
투르크메니스탄	6	17.5(세계 4위)
우즈베키스탄	6	1.1m ³

아울러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 에너지 광물인 우라늄이 풍부하고 전자제품과 광학유리,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그리고 동, 석탄, 철광석 등 고부가가치 자원이 많은 지역이다.

광대한 농경지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중앙아시아는 광활한 농경지를 이용한 곡물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그러나 아직 농업기술과 제도적 조건이 성숙되지 못해 농업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 선진 기술을 갖춘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경우 농업생산량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진출을 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는 소비재 산업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의류, 의약품, 여성 위생품, 가전제품 등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소비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소비재 시장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인구는 약 7,300만이며, 중산층이 발전하지 못해 구매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소비재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욕구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은 1992년 국교 수립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공식적인 무역 통계가 잡힌 것은 1994년이며, 이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 규모는 4.3억 달러이었다. 이것이 2012년에는 약 33.9억 달러, 2014년에 약 3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다. 2014년 기준으로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약 20억 달러, 수입은 2,700만 달러로 다른 나머지 4개국을 합친 것보다 교역량이 많다.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는 비교적 차이가 있다. 소련 시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동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였으나, 독립 이후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면서 선도 국가로서의 지위를 카자흐스탄에 넘겨주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과 함께 유럽 자본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CIS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중앙아시아 경제를 주도해가기 시작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은 1인당 GDP가 11,762 달러이었던데 비해, 천연가스 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절반 수준인 5,500 달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약 1,700 달러, 그 외 국가는 800 달러 내외 수준이었다.

카자흐스탄의 발전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가의 뚜렷한 산업화 정책과 대외 자본에 대한 우호적 조건,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내수 경제 등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한국 대외경제연구소에서 평가한 중앙아시아 투자 매력도에서 카자흐스탄은 경제 및 정책적 요인,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요인, 인프라 요인, 법 및 제도요인 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3점을 기록하였다.

<표 8> 중앙아시아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경제적, 정책적 요인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요인		인프라 요인	법, 제도적 요인
	경제	정책	자원부존	산업		
카자흐스탄	3	3	3	3	3	3
키르기스스탄	1	2	1	1	2	3
타지키스탄	1	2	1	1	1	2
투르크메니스탄	2	1	3	2	1	1
우즈베키스탄	3	1	2	3	3	2

* 3점이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으며, 1점은 낮은 것을 의미함.

자료: 조영관 외, 중앙아시아 투자매력도 연구, KIEP, 2010.

그러나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 자유도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중앙아시아 경제 자유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위권에 있으며, 카자흐스탄이 세계 67위로 중위권에 있다. 2014년 한국은 자유도 순위에서 31위이었다.

<표 9> 중앙아시아 국가 경제자유도 (2014)

국 가	경제자유도		투자 자유도	재산권	비즈니스 자유도	노동 자유도	통화 자유도	무역 자유도	금융 자유도
	순위	지수							
카자흐스탄	67	63.7	40	30	74.4	86.7	74.4	78.2	50
우즈베키스탄	163	46.5	0	15	75.7	60.8	63.1	66.1	10
키르기스 공화국	85	61.1	60	20	74.2	83.8	73.7	75.2	50
투르크메니스탄	171	42.2	0	5	30.0	30.0	65.9	79.2	10
타지키스탄	139	52.0	25	20	58.4	45.5	67.7	73.2	40

자료: 헤리티지 재단, 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www.heritage.org); 조병렬, 장태구,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년 5월 30일. p.49)에서 재인용

(1)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과 발전전략, 그리고 수요(needs)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과 농업 분야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제를 지탱하는 분야는 석유 및 가스, 우라늄 등 에너지자원과 광물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야가 카자흐스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이지만, 수출 비중이 80%에 이른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국제 유가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주요 교역품 중 수출품목으로는 광물제품, 비금속, 화학제품 등인 반면, 수입품으로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가전, 휴대폰, 산업기계, 철강 등이다. 즉, 제조업 분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이나 주변 기타 국가와의 교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카자흐스탄 수입 10대 품목 현황 (단위: %)

순위	물품	2012	2013	2014
1	기계	19.81	19.31	20.8
2	전기 기계	11.15	9.17	10.48
3	자동차	7.51	9.04	9.6
4	철/철강 제품	10.4	9.76	5.97
5	의약품	4.2	4.6	4.58
6	플라스틱	3.33	3.33	3.39
7	광섬유	2.89	3.24	3.28
8	항공기, 우주선	1.22	1.43	3.04
9	신발류	1.08	1.65	2.28
10	철도	5.08	3.11	2.15

자료: WTA (www.globalwindow.org)

에너지 자원을 포함하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의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농업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영토 대국으로 총 면적 2억 7,000만 ha 중에서 농경지가 약 8,000만 ha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경작 가능한 토지는 2,210만 ha, 목초지가 5,580만 ha를 차지해 농업 개발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러한 농지 경작을 배경으로 카자흐스탄은 농업 인구가 3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업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세계 10대 곡물 수출국 명단에 올라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EU를 잇는 제6대 밀 수출국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보밀은 단백질 함량이 풍부해 국제 곡물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 중 곡물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전체 카자흐스탄 수출량이 감소했음에도 곡물(HS code 10)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1.31% 증가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통

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농업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3% 이상 증가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15년 1분기 농업분야 성장률 또한 2.4% 증가했다.

농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의 어려움으로 정부 전체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업 인프라 산업 및 발전과 관련해 약 20억 텡게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봄 파종과 관련한 용자를 약 97억 텡게 정도 배당하기도 했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볼 때,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 전략은 크게 2가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에너지 위주의 산업 구조로부터 산업 다변화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여 지속적인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분야의 육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농업 분야와 같은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은 농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에너지 위주의 산업구조로부터 산업 다변화 시키는 것을 국가의 중단기 전략(2011-2015년 카자흐스탄 경제개발전략)으로 추진하고,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제조업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원 개발과 수출은 지속하면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자본 축적을 통해 제조업 분야 활성화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제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제조업 기반(기술과 경쟁력) 자체가 빈약하다는 것이 장애 요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제조업 관련 전문 인력 부족과 양질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카자흐스탄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의 다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추진하는 IT, BT 등 고부가가치 기술과 관련한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과 인력

부족으로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카자흐스탄의 발전 전략을 이해할 때 카자흐스탄의 수요(needs)가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자국 내 사회적 기반 확충을 위한 기간 시설의 확충, 제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 투자, 산업의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노하우, 농업 발전을 견지할 수 있는 농산물 시장의 확보 등이다. 한국은 사회적 기반 시설 구축 및 기술 투자 여력과 운영 노하우도 충분하다. 즉,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발전 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한국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카자흐스탄은 아시아 동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로 통해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2017 아스타나 엑스포, 2017 알마티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최, 그리고 2022 동계 올림픽 게임 개최를 위해서는 중국과 경합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다양한 국제 스포츠 및 국제적인 행사 경험을 배경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산업, 이벤트 업, 컨벤션 산업 등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 전수도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다양한 레저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산업과 발전전략, 그리고 수요(needs)

3,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는 1차 산업 중심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부가가치 기준 산업별 비중으로 볼 때, 농업이 약 23%로 가장 높으며, 이어 광업(13%)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에너지, 면화, 금 등 1차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국가경제의 부침이 심한 편이다. 대부분의 수출품들은 중국(21.2%), 카자흐스탄(15.9%), 러시아(14.7%) 등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편중된 무역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1차 중심 산업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

년대 중반 고유가 기조에 힘입어 평균 8%대의 높은 성장률(2014년 약 7%)을 배경으로 산업화 정책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전략은 “우즈베키스탄의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양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에 잘 나와 있다.

<표 11> 우즈베키스탄의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양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에 따른 주요 발전 방향

산업 분야	주요 내용
전력산업	자원절약형 복합가스터빈 설치 및 태양에너지 기술 이용 도입을 통한 기존 전력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발전소 건설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산업	천연가스·콘덴세이트 완제품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 확대 및 품목 다양화(18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54개 프로젝트)
화학 산업	복합비료·폴리머·합성고무·메탄올·생활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현대 기술 도입 및 수출 다변화
기계류	선진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농기계·트럭·부품 부문 국산화 및 수입 대체 농업 기계, 트럭, 부품 생산 관련 신규 시설 건설, 기존 시설 현대화
섬유·가죽·제화 산업	국내 원료의 심화 가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완제품 및 반제품 생산(염색 원사, 원단, 무두질 가죽, 니트,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을 통한 상품 품목의 구조 개선
전자제품	전기기기 생산 가속화 및 첨단 기술 습득, 정보통신 기술 장비 및 부품 생산 시설 구축
건자재 산업	친환경 건설자재 품목의 다양화
제약 산업	유명 외국 제약업체의 라이선스 및 특허를 이용한 약품 생산 확대와 품목 다양화, 국내원료 및 기술을 이용한 자국산 약품 생산 추진(우즈벡 제약산업공사에서 22개 투자 프로젝트 시행 계획)
식품 산업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반가공품 및 과일·채소의 훈증 기술 도입, 진공 포장, 급속 냉동 및 기타 현대적인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 역량 강화(총 4억1000만 달러 규모의 304개 프로젝트 추진)
광물 산업	알말릭광업공사(AGMK) 및 나보이광업공사(NGMK)는 현대화·장비 재건 관련 4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

출처: 우즈베키스탄의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양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 www.globalwindow.org/

위의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산업, 전력산업, 화학 산업, 기계 및 섬유 산업, 전자재, 식품, 광물 산업의 발전을 주요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자본과 높은 기술력을 구축하려는 목적의 현대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력이 약한 우즈베키스탄의 취약한 제조업과 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편중된 교역 구조를 다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산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금융 산업의 낙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은행업을 제외한 증권, 보험 등의 금융시장은 저발전 상태에 있으며,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폐쇄적인 경제정책과 장기간의 권력독점으로 경제 및 산업 각 부문에 대통령 측근들의 이권 참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도 상황이 좋지 않다. 열악한 기업경영 환경, 높은 수입관세 부과 및 외환통제 등 민간부문 영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가 많아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2월 정부는 외환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달러 구매 시 국내거주인의 현금결제를 제한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결제카드를 통한 대금결제만 가능토록 하는 달러 암시장 양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산업 현대화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해 온 자국 내 제조업 육성 방안은 수입 대체제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에너지 가격이고공행진을 하고 천연가스와 원유, 우라늄 등 에너지 자원을 매각한 자본

으로 수입 대체 산업에 지원함으로써 국산화 프로그램이 한 때 성공하는 듯했지만 최근 원유 가격의 급락과 함께 이 또한 난관에 봉착했다. 자본과 기술의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산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시기의 산업생산은 2005년 9.2%에서 2014년 20%까지 상승했으나 산업 전반의 제조업 기반이 미약해 여전히 대부분을 대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해외 선진 자본과 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의 다변화와 산업 현대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그 첫 번째 사업이 기업 민영화의 가속화이었다. 기업 민영화는 1992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던 시기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지만, 내실 있는 민영화 사업은 아니었다. 2015년에 시작된 민영화 사업은 만성적인 낮은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자본을 확보해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 경제에서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략 산업인 석유·가스 부분의 민영화 기업이 16개 포함되어 있다. 2014년 총 288건의 민영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타슈켄트 주 72건, 나망간 주 39건, 호레즘 주 29건, 페르간 주 23건, 카라칼팍스탄 자치 공화국 21건 순이며, 금액으로는 약 880억 슴(약 3520만 달러) 규모의 민영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타슈켄트 주가 전체의 45%, 카라칼팍스탄 자치 공화국이 4.5%, 부하라 주가 8.7%, 호레즘 주가 3.3%, 나망간 주가 1.8%로 집계되었다. 2015년 민영화 대상 대기업의 업종은 석유가스부문(16), 식료품공업(15), 화학공업(4), 건설분야(5), 자동차산업(1), 교통 분야(3), 재정연구소분야(4) 순이다.

민영화를 가속화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투자 유인책으로 투자자를 위한 각종 혜택도 발표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금 감면 혜택은 3년 내 30만~300만 달러, 5년 내 300만~1000만 달러, 7년 내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비자 및 행정 지원으로는 해외 투자기업 직원들에게 12개월의 복수

입국비자 발급을 가능하게 해주며, 관련정보 또한 상세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방문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약속하고 투자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곧바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표 12> 우즈베키스탄 기업 주요 민영화 사례

기업명	사업종류	지분 매각율	비고
나보이아조트(NavoiAzot)	화학	49%	우즈베키스탄 최대 화학 기업
페르가나아조트(FerganaAzot)	화학	48%	
크바르츠(Kbarch)	유리제품	75%	페르간 주 위치
키질쿰시멘트 (Kijilkumsimenteu)	시멘트	36%	나보이 주 위치
샤르크(Shark)	인쇄	44%	타슈켄트 시 위치
시노(Cino)	가전제품	88.8%	
오닉스(Onix)	크리스탈 제품	54.9%	
투란 은행(Turan bank)	은행	63%	
국제 비즈니스 센터	비즈니스센터	29.9%	

자료: 우즈베키스탄 국영자산 민영화 위원회

우즈베키스탄이 2015년 초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2015-2019년 생산구조 개혁, 현대화 및 제조업의 국산화 확대 프로그램으로 우즈베키스탄 기업의 민영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 투자 여건 또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진입장벽이 높은 우즈베키스탄 시장의 특성상 이번 민영화 대상 기업 투자는 한국 기업에는 현지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는 과거 1990년대 대우 자동차 공장 설립을 기반으로 70여 개의 한국 투자기업이 진출해 있고, 드라마, K-Pop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으

며,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다. 다만, 현지 경제활동 관행상 기업에 대한 공개정보 획득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투자 대상 기업 조사가 필요하며 높은 국가 부패지수와 현지통화 숨의 국내 태환성 결여 문제는 우즈베키스탄 투자 시 걸림돌이자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차, 3차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대부분 한국 상품의 수출이 유망할 수 있으나 환전의 어려움이 수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수입업자가 한국에 대금을 치루기 위해서는 은행에 환전을 요청해야 하는데, 우즈베키스탄 내 외화 부족과 이미 환전을 요청한 상태인 다른 기업들로 인해 총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물류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납기 지연과 같은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13> 한-우즈베키스탄 교역 규모 및 주요 품목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출	1,719	1,767	1,968	자동차부품,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수입	40	42	53	우라늄, 천연섬유사, 제지원료
합계	1,759	1,809	2,021	

출처: 한국무역협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최근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상품 수지가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공업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초에 발표한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양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은 첨단기술 발전, 제조부문 에너지·물적·노동비용 감축을 위한 기존 자원의 최대 이용, 경쟁력 있는 완제품·반제품의 생산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외국 유력 회사와 50:50의 합작법인 설립 등)를 직접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⁶⁾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국의 자본 투자 능력, 높은 기술력, 경영 노하우, 한류 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 등을 교류를 통해 흡수하고 자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과 노하우를 연구하고 자국 실정에 맞는 내용은 적극 도입하려 한다. 따라서 경제개발 및 발전의 노하우를 배경으로 우즈베키스탄과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다양한 경제 시스템들을 분석하는 한편 대안까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개도국 우즈베키스탄과 장기적인 협력의 단계로 진입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볼 때, 전력, 석유가스, 화학, 기계, 섬유, 전자, 식품, 광물 등의 산업에 정부와 민간부분의 투자와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산업 분야에 대한 인적 교류, 기자재, 부품, 원재료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적인 예가 한국으로 파견되고 있는 산업 연수생 교육을 들 수 있다. 연수생들에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교육하고 더 나아가 한국 제품을 사용할 기술까지 습득하게 한다면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 잠재적 협력 파트너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농업 국가이기도 한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확대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농사 기법을 적용한 작물 재배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현지 기후 및 토양 상태가 한국과 다를 수 있지만, 한국 농업 기술

6) 이와 관련하여 846개의 현대·장비재건 사업 시행 등에 408억 900만 달러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711개(196억4,000만 달러)이고, 외국인 투자/차관 유치가 필요한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는 135개(211억 6,900만 달러)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5~2019년 연평균 8% 이상의 GDP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생산은 이 기간에 연평균 9%(1.5배 증가) 성장하면서, GDP의 산업 비중은 현재의 24%에서 2020년까지 27%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계·석유가스·석유화학·화학·섬유·식품 분야의 발전 및 이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 부문 급속히 발전시키고, 특히, 산업부문에서 이 산업 비율이 2014년 62%에서 2020년에 67%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을 배경으로 응용 및 적용함으로써 소득 향상을 유발한다면 그것도 양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자국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 산업의 제품 중 상당수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가공을 통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산업에 관한 고효율적 기술을 갖고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산업 현대화와 수입 대체 효과를 낼 수 있는 자국 제조업 육성을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이다. 기존의 전력망은 개보수 및 신축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력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양질의 전력 생산과 안정적 배분 시스템이 필요한 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현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전력회사들이 우즈베키스탄과 양질의 전력 생산 및 안정적 배분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할 경우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성 때문에 전력 공급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마을 단위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설비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는 신재생 분야의 기술 및 설비 구축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산업과 발전전략, 그리고 수요(needs)

최근 라틴 아메리카 신흥시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의 규모, 풍부한 자원,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경제 영토로 라틴 아메리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 라틴 아메리카(중남미)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 대비 5.9%로 일본의 5.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이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하여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협력의 방향

을 논의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 규모면에서 라틴 아메리카 개별 국가의 경제는 브라질을 제외하면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가 약 6억 명의 인구를 가진 대규모 시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시장 확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들 국가의 1인 당 GDP가 아직 높지 않아 폭발적인 소비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는 분명하다. 아래의 <표14>는 최근 한국과 밀접한 관계 개선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4개국의 인구와 국민소득을 요약한 것이다.

<표 14> 라틴 아메리카 주요 4개국 인구 및 국민소득

국가	내용	
콜롬비아	인구	4천 624만 5천여 명 (세계 29위)
	GDP	4천1억\$ (세계 31위)
	1인당 GDP	8,394\$ (세계 71위)
칠레	인구	1천 736만 4천여 명 (세계 64위)
	GDP	2천 641억\$ (세계 42위)
	1인당 GDP	14,911\$ (세계 50위)
브라질	인구	2억 265만 7천여 명 (세계 5위)
	GDP	2조 2441억 8100만\$ (세계 7위)
	1인당 GDP	11,067\$ (세계 62위)
페루	인구	3천 14만 8천여 명 (세계 42위)
	GDP	2천 100억\$ (세계 51위)
	1인당 GDP	6,625\$ (세계 86위)

출처: 김순성, 라틴 아메리카 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방향성: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를 중심으로, Issue Paper, (2015년 6월 30일, 제12호), p.3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산업은 대체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그동안 몇 차례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결정적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해 현

재의 산업구조가 고착하게 되었다.⁷⁾ 포스코 경영연구소는 오늘날 중남미 국가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를 1) 근대화 과정에서 잘못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2) 쿠데타나 독재 등과 같은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어 산업 발전을 저해했으며, 3) 결국에는 재정 적자와 외화 부족이 만성화됨으로써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게 된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주요 4개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아래 <표9>에서 밝히고 있듯이 콜롬비아는 생산량 기준 세계1위인 에메랄드를 포함하여 석탄, 니켈, 석유, 천연가스 등을 보유하고 있고, 페루는 은, 구리, 아연, 몰리브덴, 석유 등이 풍부하다. 칠레 또한, 레늄, 리튬, 구리 등에서 세계적인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 또한 희귀 금속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표 15> 라틴 아메리카 주요 4개국의 주요 지하자원

국가	주요 지하자원
콜롬비아	석탄(매장 중남미 1위), 에메랄드(생산량 세계 1위), 니켈(매장 중남미 3위), 석유(매장 중남미 5위), 천연가스(세계 44위)
페루	은(매장 세계 1위, 생산량 3위), 구리/아연(매장 세계 3위, 생산량 3위), 주석(생산량 세계 3위), 납, 몰리브덴(매장 및 생산량 세계 4위), 금(매장 세계 8위, 생산량 6위), 석유, 천연가스(매장 중남미 7위), 석유(매장 세계 41위), 천연가스(세계 32위)
칠레	구리, 레늄(매장, 생산량 세계 1위), 리튬(매장 세계 1위, 생산 세계 2위), 요오드, 셀레늄(매장 세계 2위), 몰리브덴(매장, 생산량 세계 3위)
브라질	니오븀, 탄탈(매장 세계 1위), 석유(매장량 중남미 2위, 세계 15위), 철광석(매장량 중남미 2위), 희토류, 니켈, 보크사이트, 주석(매장 세계 3위), 천연가스(중남미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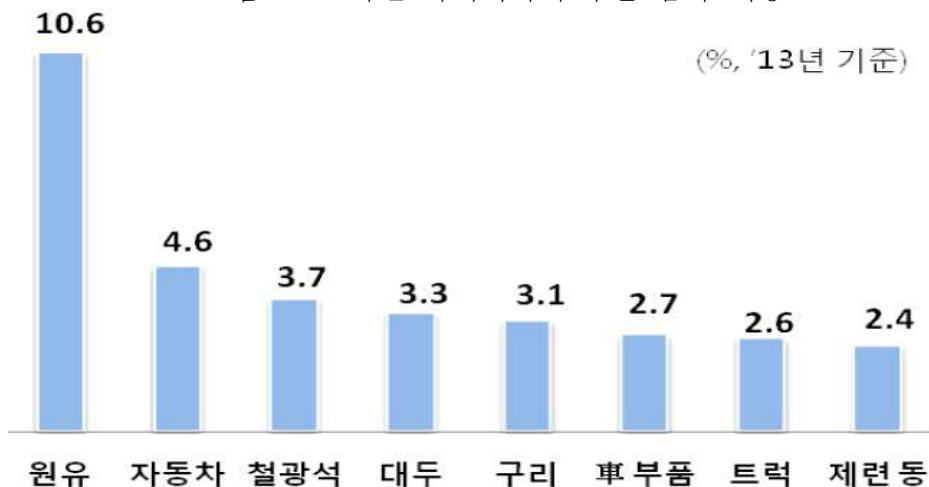
자료: U.S. Geological Survey 2015. 박지환, 김주희 중남미지역 국가의 경제 및 주요 자원 현황과 정책적 지원, 김순성, Issue Paper, (2015년 4월 30일, 제11호), p.24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들 국가의 산업구조는 주요 지하자원과 관련한 산업의 비중이

7) 오성주, 지구 반대편, 라틴 아메리카 바로 알기 (POSRI 보고서, 2015.04.15.), p.1.

클 수밖에 없다. 지하자원의 수출이 경제 발전의 출발점인 것이다.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원유, 철광석, 구리와 같은 지하자원이거나 대두와 같은 곡물 등 1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그림 13> 라틴 아메리카의 수출 품목 비중



출처: ECLAC, 중남미 전체; 오성주, p.5에서 재인용

그렇다고 해서 중남미 국가가 한국과 같이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중남미 국가 대부분의 산업화 성격이 수출보다는 내수 지향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재 중심의 산업은 내부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에너지 등 원료 및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산업은 수출 중심으로 정착해 왔다. 산업화를 통한 소비재의 국내생산 대체에도 불구하고 자본재와 중간재의 취약성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입은 지속되어 왔고, 외화획득, 즉,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 1차 산품의 수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해 1차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점점 높아져 현재에는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전체 수출 대비 1차 산업 의존도가 50%를

넘는다. 라틴 아메리카 10대 기업에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8개를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이는 1차 산업을 제외한 2차, 3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주요 수출품을 분석해도 이러한 양상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전체 수출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대부분 1차 산업이다.

<표 16> 라틴 아메리카 주요 5개국 수출 품목(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

순위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1	원유(13.7)	철광석(14.3)	석탄(64.2)	정제된 동(34)	금(21.3)
2	승용차(7.4)	원유(8.0)	원유(23.9)	동광(16)	동광(14.7)

출처: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경제 붐은 어디서 왔는가?, 2011 라틴아메리카 연보, p.120.

중남미는 중동에 이은 제2의 석유 매장 지역이며, 전 세계 광물자원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자원이 부족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다. 또한, 중남미 지역 경제개발 및 지역통합 차원에서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가 활발한 역동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중남미 지역은 지리적 장애물(안데스 산맥, 아타카마 사막, 아마존 강 등)로 인해 지역통합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역 간 연결성(connectivity)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의 중요 변수로 이 장애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교역 규모는 2010년 이후 오늘날까지 큰 굴곡은 없다. 대개 500-6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대 라틴 아메리카 교역은 1987년 이후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아시아, 북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한국의 흑자 수출 시장이다. 그러나 한국 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그 흑자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아래 <표 17> 참조)

<표 17> 한국의 대 중남미 교역현황 (단위: 백만 불)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
수 출	36,187	40,131	36,747	36,328	35,898	3,232
수 입	14,645	20,165	19,723	18,364	18,294	1,519
무역수지	21,542	19,966	17,024	17,964	17,604	1,713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주로 선박, 승용차, 광학기기 등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고, 철광, 동광, 연광 등 지하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8>은 2014년 한국의 대 중남미 교역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8> 한국의 대 중남미 수출입 품목 (2014년)

주요 수출품			주요 수입품		
품 목	금액(백만불)	비중(%)	품 목	금액(백만불)	비중(%)
특수선박	4,448	12.4	철광	2,007	11.0
승용차	4,038	11.2	동광	1,904	10.4
일반선박	2,850	7.9	구리	1,379	7.5
광학기기	2,317	6.5	연광	1,172	6.4
차량용 부속품	2,257	6.3	아연광	862	4.7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전

체 해외 투자 대비 약 9.0%의 비중을 가졌던 2010년에 비해 2014년에는 전체 해외 투자 대비 14.1%로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가 2013년 약 297억 달러에서 2014년 247억 달러로 줄었음에도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33억 달러에서 약 35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19> 한국의 대 연도별 직접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해외투자	24,638	29,001	28,423	29,799	24,701
중남미	2,226	2,557	3,342	3,332	3,490
(비중)	(9.0)	(8.8)	(11.8)	(11.2)	(14.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자료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국가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 당 GDP 상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매력 증가율 면에서는 2015년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경제 구조가 세계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에너지 및 자원 가격의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20>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구매력 추이와 전망 (1인당 GDP (ppp 기준) /단위: U.S dollar)

국가	2007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브라질	12,626	13,304	15,065	15,461	15,978	16,096	15,940	18,756
칠레	17,405	17,866	20,188	21,450	22,469	22,971	23,556	29,460
콜롬비아	9,837	10,388	11,618	12,163	12,806	13,430	13,850	17,601
페루	8,098	8,898	10,292	10,931	11,555	11,817	12,187	15,747

출처: 김순성, p.7

라틴 아메리카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브라질의 경우 2005년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36.06% 이었으나, 2012년 비중이 39.42%로 늘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 또한 중산층의 소득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1>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 추이 (단위:%)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브라질	36.06	36.56	37.46	38.02	38.49	-	39.19	39.42
칠레	-	38.33	-	-	38.02	-	38.49	-
콜롬비아	36.64	34.92	34.40	36.78	36.69	36.77	37.94	38.83
페루	41.79	42.1	42.12	44.23	44.43	45.29	45.35	45.7

출처: 김순성, p.6.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소비시장이 내부 산업제품 위주로 재편되는 경향이 있지만, 앞서 밝힌 대로 중간재와 자본재가 빈약한 동 지역에서 중산층의 증가는 소비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장으로서의 잠재적 기능도 충분하다고 하겠다.

다만, 세계 경기 변동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해당국의 산업발전 정책과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혜택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 분산(risk hedge)의 방법을 택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칠레 및 페루와는 FTA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가 이전에 비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페루와 칠레 외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도 FTA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경제 교류는 더욱 증가하고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 전략은 1차 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은 유지하지만, 내부 제조업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기업이 진출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동 지역 국가들의 기대는 매우 높은 것 같다.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위기 또한 해당 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의 과학단지 모델을 페루에 이전하는 것도 현재 추진 중이며, 의료 보건 협정, 전자 정부 협력, 그리고 전력 산업 기술(배전, 스마트 그리드 등)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때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인적 교류를 통해 기술과 노하우도 전수해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산업간 무역 구조에서 한국은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들은 지역 특산물과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는 아직 취약한 고도의 산업 기술을 배경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을 모색한다면 중장기적인 사업과 후속 사업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지역 주요 산업과 발전전략, 그리고 수요(needs)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래를 극동 및 시베리아의 발전에 두었다. 그동안 유럽 중심의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자 아시아-태평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전략의 핵심은 극동 지역을 독자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한 경제지대로 만들기 위해 주변국, 특히, 동북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은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에너지와 광물 자원에 기초한 1차 산업을 매개로 산업을 다변화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

부는 극동에 제조업 중심으로 특화된 선도경제구역을 만들고, 항구를 중심으로 자유항과 경제자유지대를 조성하는 발표를 하였다. 무엇보다 극동 발전기금으로 주변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등 투자기업에 조세혜택 부여를 조기에 발표함으로써 선도사회경제구역과 자유항, 그리고 경제자유지대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에 대한 유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동시에 투자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는 느린 의사결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비교적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련의 국책 사업 발표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러시아의 이러한 극동 발전 전략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동북아 국가들과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1) 극동 러시아의 산업구조

러시아의 산업구조 역시 중남미 국가들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우랄과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에너지 산업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에 펼쳐져 있는 광물자원, 목재, 수산 자원 등을 대외로 수출하고 그것을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2014년 에너지 자원과 유용 광물자원의 수출 비중이 러시아의 총 수출에서 70%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과, 러시아 GDP에서 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30% 안팎으로 높고, 정부 세수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 50% 이상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⁸⁾ 또한, 러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절반 이상이 석유 및 가스,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러시아의 1차 산업 의존도를 가늠케 해준다.

8)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유럽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의해 다른 산업의 수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에너지 가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6-2008년 러시아의 수출 비중은 약 50-60% 정도였다.

<표 22>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 및 아-태 지역으로 수출의 중요성

극동바이칼 지역 자원 현황 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러시아 전체 원유의 6%, 가스의 13.5% - 생산: 러시아 전체 원유의 6.3% 가스의 4.6% - 미탐사 지역이 많아 풍부한 개발 잠재력 보유
러시아 정부는 2035년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아태지역 자원 수출비중 확대 계획 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및 석유제품은 2014년의 12%에서 2035년에는 23%로 증대 - 가스는 2014년 6%에서 2035년에는 31%로 증대 -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원유는 2005년 80.5%에서 2012년에는 70.5%로 감소, 가스는 2005년 77.6%에서 2012년에는 70.9%로 감소

극동의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생산량은 우랄이나 불가 연방구에 비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우랄 지역의 에너지 자원이 고갈 단계에 돌입해 2040-2050년에는 생산 중단위기에 있는 반면 극동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은 전망이 좋다. 아직 미탐사 지역이 많아 적극적인 탐사가 시작될 경우, 대규모 매장지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표 23> 러시아연방 전체 대비 극동지역의 에너지 및 유용광물 생산량 비중(2013년)

	원유	천연가스	석탄	붕소	다이아몬드	주석	금	은	납
매장량 비중	4.1	4.2	9.6	100	80	75	33	35	10

출처: 러시아 통계청

9) О состоя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3 году.(2013년 광물-자원의 현황과 이용)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연방 천연자원 및 환경부). 2014.

10) Reuters. 2014년 1월 24일.

그러나 무엇보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유용광물에 대해서는 러시아 최고의 생산지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붕소는 100% 극동에서 생산되며, 다이아몬드 또한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 원유와 천연가스도 현재 각각 4.2%, 4.2%이며, 그 비중은 현재 탐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매장량이 확인되고 생산을 가동할 경우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금, 은, 주석, 납 등도 대규모 매장되어 있으며 생산량 비중 또한 높은 편이다.

<표 24> 극동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25 기본 개요

관할 부서	- 극동개발부
총 투자액	- 10조 7,094억 루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예산 : 1,238억 달러(3조 8,169억 루블, 35.6%) • 지방정부 예산 : 113억 달러(3,478억 루블, 3.3%) • 민간부문 투자 : 2,123억 달러(6조 5,447억 루블, 61.1%)
수행 기간	- 2014 ~ 2025년(12년간)
대상 지역	- 총 12개 러시아연방 행정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 연방관구 9개 행정지역과 시베리아연방관구의 이르쿠츠크 주, 브라트 공화국, 자바이칼 주
프로그램 구성	- 12개의 부속프로그램과 2개의 연방 목적프로그램
주요 사업	- 시베리아 철도 및 바이칼-아무르 철도정비, 지방공항 정비, LNG 플랜트 등 각종 플랜트·발전소 건설, 제조업 발전 등
주요 목표	- 지역내총생산(GRDP) 및 인구, 수출 증가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2011년 대비 지역내총생산 2.2배 향상 • 역내 인구는 100만 명 이상 늘려 1,200만 명으로 증대 • 2011년 대비 수출 약 3배 확대

출처: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연방 정부령, 강명구,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 (KDB 산업은행 조사연구, 2015.03.18) 재인용

(2) 한국과 극동 러시아의 교역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에너지 자원 위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비재와 중간재 산업에 대한 양국의 협력도 활발하게 전개되고는 있

으나 규모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양국의 교역 규모는 258억 달러 정도이며, 무역수지는 약 55억 달러 적자이다. 이는 에너지 자원의 수입에 따른 것이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라 대러 교역규모는 늘어 한국의 전체 교역의 2.3%(12위)를 러시아가 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기계 64%, 전자전기 제품 12.7%, 화학공업 8.5% 등이고, 수입품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82%, 농림수산물 9.5%, 철강금속이 6.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25>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7,760	10,305	11,097	11,149	10,129
수입	9,899	10,852	11,354	11,495	15,669
교역규모	17,659	21,157	22,451	22,644	25,798
수지	-2,139	-547	-257	-346	-5,540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4년 기준 극동 러시아와의 교역규모는 102.2억 달러이며, 이는 한국 전체 교역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극동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약 26.2%에 해당한다. 러시아 전체 교역액에서 한국과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극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39.6%로 매우 높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교역의 2/5 이상이 극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극동의 대외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3) 신흥지역으로서 러시아의 수요(needs)와 한국의 대응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 전략은 거의 필사적이다. 특히, 유럽의 경제제재와 중국경제의 침체로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유럽으로부터 발전의 동기를 얻고자 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제 교류에 한계를 갖게 되면서 동방 전략은 더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 지역을 대상으로 제조업 중심의 특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투자자에게 최대 70년까지 임대해 주고 관세와 세제 혜택, 그리고 제도적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선도개발 구역 선정은 현재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 나데진스키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성작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최대 12-13개를 더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극동의 주요 거점 도시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극동을 제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정부가 극동의 주요 항구(블라디보스톡 항, 자루비노 항 등)와 핵심 도시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1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제조업과 물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소비 제품을 대체할 산업, 즉 소비 대체제 산업에 우선 정부 지원을 할당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에 저리 용자 등의 방법으로 국제경쟁력까지 갖도록 하겠다는 게 러시아 정부의 선도구역 지정의 가장 큰 목표이다.

러시아 역시 다른 신흥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고기술 집약 산업 육성이 동북아 경제권으로 극동을 빠르게 편입시키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극동 정부와 정부 관료들은 한국의 산업 기술과 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가 한국의 산업화 시스템(공장 단위 사이트)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산업화 과정을 축약적으로 연해주의 산업단지에 적용하고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LS 네트워크가 2014년 수주한 하바롭스크 폐기물 선별처리 프로젝트(약 104억 원)도, 유즈노 사할린의 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수주도 자본과 기술, 그리고 한국 모델의 사업을 고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상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수입품 대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러시아 중소기업들과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품(예, 안마기)의 기술을 이전받아야 구매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사례에 알 수 있듯이, 수입대체 산업육성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의지는 강해 보인다.

최근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 일변도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 다각화 정책과 에너지 효율 부문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1차 에너지 생산 및 수출일변도로부터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자본과 기술력이 풍부한 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대상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이 유력하다. 그러나 최근 대 러시아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관련 분야 진출을 위한 협상이 어려운 상태이다.

V. CKSRP 사업 주체와 실행방안

본 장에서는 CKSRP 사업 주체로서 한국연구재단의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이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1절 신흥지역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1. 일반지역연구와 신흥지역연구사업의 차이점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중점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 그리고 신흥지역연구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의 지역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중 대학중점연구소는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한국(HK) 연구는 인문학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신흥지역연구는 대학연구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연구는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와 성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업에서 지역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에도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과 HK연구소 지원에서 지역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며, 실제 수행되고 있는 지역연구도 해당 지역에 대한 순수 학문적 연구를 지향하는 특징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반면 신흥지역연구 지원은 전적으로 지역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이며,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을 실용적 목적에 활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인문한국(HK)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총 71과제가 지원되었다. 그 중에는 중간에 중단된 연구과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인문한국(HK) 사업의 목적은 대학 내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계 확립과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연구소의

연구기능 강화 및 연구자간 협력을 통해 학술담론의 생산과 소통을 주도하는 것에 있다. 총 71 HK 과제 중에서 지역연구와 연관된 주제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7년에 시작된 연구과제명으로는 “인도문화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고전연구”, “중동지역연구의 토대와 소통: 이슬람과 인간”, “초국가적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위치”, “동아프리카의 언어정책”, “유라시아 정체성과 문명공존: 유라시아학 체계정립과 지역종합정보시스템구축” 등이고, 2008년에 시작된 연구과제명으로는 “열린 지역체계로서의 동남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계적 소통과 대중적 확산을 위하여”, “21세기 라틴아메리카와 트랜스 모더니티: 학제간 연구와 지역종합정보구축” 등이다. 2010년에 시작된 연구과제명으로는 “아프리카, 안과 밖의 교차: 아프리카학의 한국형 패러다임구축”, “현대 중동의 사회변동과 호모이슬라미쿠스: 샤리아 연구와 중동학 토대구축” 등이다. HK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연구는 동남아학, 인도학, 중동학, 라틴아메리카학, 아프리카학, 유라시아학과 같이 지역학(area studies)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순수 학술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인문사회기초연구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은 지금까지 총 122개 과제가 지원된 매우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의 목적은 대학부설연구소 지원강화를 통한 대학 내 연구거점 구축과 특성화 전문화 유도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에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연관된 매우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연구는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시작된 연구과제로는 “세계화와 축적체제 및 계급구조의 변화”, “소통과 공존을 위한 다문화 인문학 정립과 다문화 콘텐츠 연구개발”, “빈곤퇴치를 위한 융복합연구의 허브구축: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발전 거버넌스 모형의 탐색” 등이 있으며, 2011년에 시작된 연구과제로는 “장애인 삶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신(新)한국형 학교체육 모형 개발

및 평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방안연구” 등이 있으며, 2012년에 시작된 연구과제로는 “한국형 수요자중심 교육복지 체제구축 지원요구”, “교육분야 국제협력 기반조성 및 정책개발연구”, “학교폭력 근절 정책지원 정책연구” 등이 있으며, 2013년에 시작된 연구과제로는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동북아시아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성격”, “제국주의 체제와 동아시아 근대학문” 등이 있으며, 2014에 시작된 연구과제로는 “동아시아 전통춤: 예·악·무 문화연구”,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를 위한 신한국형 학교체육모형 개발”, “통합형 U헬스케어 디자인연구” 등이 있으며, 2015년에 시작된 연구과제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중남미 환경협력모델연구”, “녹색성장법학의 국내외 외연확대”, “사회적 기업의 정착화 및 확대적용 방안제시” 등이 있다. 이렇듯 대학중점연구소의 연구과제는 사회적 쟁점에 해당하거나, 국가정책에 필요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 중점연구소 사업에서 지역연구와 관련된 연구주제는 별로 없으며, 동아시아와 관련된 지역연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시작된 신흥지역연구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신흥지역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연구기반 마련이다. 연구거점 지정 등 연구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연구유인 제고와 전문연구인력 양성 등 연구역량확충, 국내외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보공유 활용 확대이다. 둘째 정부, 기업 등의 다양한 신흥시장 진출 전략 지원이다. 즉, 실용적 연구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현안 대응에 필요한 심층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 9월에 6개 대학 지역연구소를 중심으로-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시작되었다가 2013년 1개 대학 지역연구소-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사업팀이 추가되어 7개 신흥지역연구팀이 가동되

고 있다. 신흥지역연구팀 사업 1단계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이 2014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운영된 신흥지역연구팀은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창의적인 분석들을 갖고 지역연구소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신흥지역진출과 관련된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다양한 연구업적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14> 2014년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지역적 범위



7개 신흥지역사업팀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투르크 경제권에 관한 연구기반 구축과 한국의 대응전략: 터키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신성장 전략연구”(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중남미 진출기업들의 위험요인분석과 지속가능한 상호협력관계 구축”(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한국의 북방개척과 시베리아 개발: 학술연구에서 산학연계로”(한림대 러시아연구소), “북방골만 연구역량 강화 및 산업별 투자환경분석:

인도북동부, 방글라데시, 미얀마”(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아프리카 기본 정보체계 및 파트너십 구축: 나이지리아와 알제리를 중심으로”(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이다.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이나 HK 연구사업과 달리 지역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흥지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간주하였던 지역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역연구가 순수 학술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반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신흥지역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학협동의 연구기반을 구축하였다. 셋째, 국내외의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신흥국과의 우호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 역량을 제고시키고,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2. CKSRP 사업 주체로서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강점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신흥지역연구팀이 CKSRP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주체라고 판단된다. CKSRP 사업은 교역 및 개발협력 이슈 그리고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한국과 신흥국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생산하고 이를 소통시키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신흥지역연구팀은 현지의 시장과 경제개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작업을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현지의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과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는 CKSRP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필요한 경험과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흥지역연구팀이 CKSRP 사업의 주체가 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신흥지역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신흥지역사업의 특징과 장점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신흥지역에 대한 체계적 연구

개발협력과 한국발전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CKSRP는 사업 대상국가로 신흥지역을 우선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신흥지역사업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CKSRP 사업의 지역적 범위와 부합한다. CKSRP 사업을 위한 신흥지역연구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신흥지역사업의 연구팀을 활용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사업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신흥지역연구사업은 세계의 중요 신흥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이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부적인 조정을 한다면 명실공히 글로벌 차원에서의 CKSR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과 신흥지역 사이의 교역 관계에 대한 실용적 연구

신흥지역연구 사업은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신흥지역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실용적 연구에 주력하여 왔으며, 주로 한국 기업의 투자 및 현지 자회사 경영, 상품수출,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다. CKSRP가 교역 및 개발협력과 관련된 신흥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발전경험의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신흥지역연구사업이 추진해 왔던 연구주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며, 또한 신흥지역연구사업의 관심을 개발협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현지 네트워크 구축경험과 CKSRP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의 확대

신흥지역연구팀들은 핵심적인 사업 영역으로 국내 및 현지의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과 MOU 협정체결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다. 예를 들어, 고려대 스페인·라틴 아메리카 연구소는 국내 컨소시움으로 콜롬비아 한국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자동차 회사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콜롬비아 중소기업청, 콜롬비아 대학, 콜롬비아 한국대사관, 멕시코 폴리마대학 연구소, 멕시코 Universidad Panamericana, 그리고 콜롬비아·멕시코·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네트워크를 맺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는 국내 컨소시움으로 KOTRA 글로벌 연수원, 한-아세안 센터, 한국동남아연구소, 한국동남아학회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KOTRA 자카르타 지부, 말레이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KOTRA 쿠알라룸푸르 지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네트워크는 CKSRP 사업을 실행하는데 실질적인 협력기관이 될 수 있다. 또한 CKSRP 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인적 연결망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CKSRP은 지식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한국과 신흥국 사이의 연구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업 내용이 되는데, 신흥지역사업팀이 구축해 온 기존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지역전문가 중심의 연구팀과 현지 지식 축적공간으로서 홈페이지

모든 신흥지역연구팀들은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각 홈페이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각 연구팀이 생산하고 있는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 자료집, 뉴스레터 그리고 단행본 등 거의 모든 연구결과물들을 제시하고 있

다.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신흥지역연구팀의 지식축적과 정보제공기능은 CKSRP 사업에서의 온라인 지식공유플랫폼 구축으로 자연스럽게 확장 발전할 수 있다.

신흥지역연구팀들은 해당지역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신흥지역연구팀들은 CKSRP가 추구하는 교역과 개발협력에 관한 현지 수요의 발굴, 한국 발전경험의 현지화를 해당 지역의 맥락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자문, 기업설명회,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인턴쉽 운영

모든 신흥지역연구팀은 기업설명회 또는 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해당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인과 대중을 상대로 현지에 대한 심층적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에서 운영될 수 없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흥지역연구팀의 연구진들은 코트라 글로벌 연수원의 지역전문가 과정, 한국무역협회의 지역전문가 과정, 대기업 교육 연수원의 지역전문가 과정 등에서 강사로 초청되어 신흥지역에 대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흥지역연구팀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석박사과정생들을 연구조교로 채용하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학술대회 발표와 학위논문 작성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부 신흥지역연구팀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해당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의 인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흥지역연구팀은 사회적 교육기능으로 볼 수 있는 각종 자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뿐 아니라 방송, 미디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자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흥지역연구팀의 이러한 교육활동은 CKSRP가 지향하는 지식의 공유와 소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한 경험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 2012년부터 진행된 7개 신흥지역사업팀의 연구 성과는 부록 참조)

제2절 실행예산과 성과지표

본 절에서는 신흥지역연구팀이 기존 사업에 CKSRP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되었을 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떤 성과지표들을 이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표 26> 각 연구팀별 연간 실행예산 추정

비목	세부항목	현행('15년)	확대 개편안	비고(증액)
인건비	전임연구인력	4명 (3,300만원*4명 =13,200만원) ※4대 보험료 포함	6명(3,600만원*6명 =21,600만원) ※4대 보험료 포함	8,400만원
	연구보조원 및 인턴	석사과정생 4명 (600만원*4명 =2,400만원)	·석사과정: 600만원 *4명=2,400만원 ·박사과정: 1,200만원*2명=2,400만원 · 파견인턴(3개월): 600만원*2명=1,200만원	3,600만원

직 접 비	학술활동수당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교원 5명 (480만원 * 5명 =2,400만원)	전임교원 8명 (480만원*8명=3,840 만원)	1,440만원
	연구 활동비	4,000만원 -해외출장여비 -현지조사 -홈페이지 운영 -자료집 발간 -기업설명회 -회의비	12,360만원 -국내·국외 연구네트 워크구축 -현지조사 -웹사이트 확대 운영 -현지연구센터 운영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연구결과물 간행비 -회의비	8,360만원
인건비와 직접비 합 계		22,000만원	43,800만원	21,800만원
간접비(30%)		6,500만원	13,140만원	6,640만원
총 단위지원액		28,500만원	56,940만원	28,440만원

2015년 신흥지역연구사업팀의 현행 예산과 비교해서 CKSRP 사업을 추가해 확대 개편했을 경우 소요될 예산을 추정하면 <표 26>과 같다. 예산 규모가 위와 같이 확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임연구인력 규모를 현재의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흥지역연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CKSRP 사업이 추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임연구인력의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임연구인력은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제개발 협력 전공자 2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임연구인력의 현행 연봉 3,300만원을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내용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보조원의 규모도 현재의 석사과정생 4명에서 석사과정생 4명과 박사과정생 2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여기에 현지 연구소나 기업에서 인턴과정을 밟는 청년인턴 2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다. 연구보조원 규모의 확대와 청년인턴제의 도입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목적과도 부합하며, CKSRP 사업이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 신흥지역을 연결할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연구원의 규모도 현재의 5명 수준에서 8명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역 및 개발협력 이슈 발굴, 한국발전경험의 공유는 그 안에 많은 세부주제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공동연구원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새롭게 재편된 신흥지역연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활동비를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 신흥지역연구팀에서 기존에 수행해 왔던 연구활동에 더하여 CKSRP 사업에서 새롭게 추진할 활동에 소요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CKSRP에서 추진할 ‘글로벌 지식 공유연구플랫폼’이라는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국내외 연구네트워크의 구축, 교역 및 개발협력 수요에 대한 현지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지식 공유와 소통을 위한 간행물 발간, 학술회의 개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표 26>은 새롭게 재편된 신흥지역연구사업의 1개 팀에서 소요될 예산을 추정한 것이다. 신흥지역연구사업 전체로 볼 때 현재의 7개 사업팀을 10-12팀 정도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신흥지역연구는 각 팀이 해당지역에서 대체로 2개 국가만을 담당하고 있어, 모두 합쳐 15개국 이내의 신흥국이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흥지역연구팀을 10-12개 정도로 확충하고, 각 연구팀이 2-3개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 주요 신흥국이 이 사업의 연구대상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한 차원에서 신흥지역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사업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3장에 나타난 CKSRP 실행 모델과 로드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성과들이 지표화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신흥지역연구팀의 사업성과인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 그리고 지역설명회 및 기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아래 <표 27>에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 성과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표 27> 사업성과 지표

1단계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현지수요발굴조사를 통한 우선 순위확보: CKSRP Annual Report를 통한 정리 및 외화 · 우선순위 주제에 관한 국내 및 현지 컨소시움 완료 · 각 연구팀 지식공유플랫폼 웹 사이트의 보강 및 재구축과 글로벌 지식공유연구플랫폼 웹사이트 · 연구원 파견, 청년 인턴제 등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활동: 공유지식 생산 관련 워크샵, 포럼, 학술회의 등 개최 · 연구논문, 단행본, 보고서, 웹사이트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공유 결과물 생산 · 지식공유 연구네트워크의 확장: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NGO, 기업 등 · 학술회의 및 세미나를 통한 학술성과의 국제적 확산 노력

위의 사업성과 지표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현지에서 우선하는 한국발전경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현지 연구파트너와 공동으로 지식을 공유할 연구대상과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현지에 필요한 수요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두 협력국 사이에 공유될 지식의 창출과정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래서 해당 현지수요발굴조사에 관한 CKSRP Annual Report를 생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지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그에 따른 국내 및 현지 컨소시움 구축을 완료한다. 그 다음으로 각 연구팀은 기존 신흥지역연구팀의 웹 사이트를 지식공유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이트로 보강하여 재구축한다. 그리고 모든

신흥지역연구팀의 지식공유사업과 관련된 연구결과물을 집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다. 즉, 한국연구재단 공식홈페이지의 ‘자료실’에 한 코너를 마련하여, 연구결과를 집대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한 ‘글로벌 지식공유연구플랫폼(Global Knowledge-Sharing Research Platform)’ 웹사이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참여형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현지에 파견할 수 있는 한국 연구원 또는 현지에서 올 수 있는 연구원의 인적교류를 통해 1단계 전체 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성과 2단계에서는 1단계에 구축된 기본 연구 인프라를 통해 ‘교역과 개발협력’ 이슈에 관한 지식공유사업의 연구결과물들을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생산하고, 소통시킨다. 학술활동으로는 ‘한국 발전경험’에 대한 로컬주도형 지식공유 창출 과정과 그 학술적 결과에 포럼, 워크샵, 학술회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KOICA ODA와 KSP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주제라고 한다면, 이 사업단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활동의 연과 결과물을 연구논문, 단행본 등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다양한 보고서와 웹사이트 문서를 통해 지식공유기능을 원활히 수행한다. 그리고 지식공유 연구네트워크가 안정화되고, 본 연구결과물들을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NGO, 기업 등과의 접촉면을 더욱 넓히도록 한다. 특히 기존까지 모든 신흥지역연구팀은 신흥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범위를 확장하여 해당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본 연구팀들이 ‘기업의 Best Practice’ 또는 ‘한국발전경험과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지식공유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해외로 확산하기 위해 “교역과 개발협력 이슈에 관한 창의적 지식공유연구플랫폼(CKSRP)” 사업에 관한 이론적 그리고 실행적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모델을 제시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는 한국 정부 및 민간의 신흥시장 진출전략은 여전히 필요로 하는 과제로서, 현지밀착적인 고급 지식과 정보가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사업방향의 하나로 지식공유사업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15년 9월에 UN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공표된 새로운 SDGs 개발의제는 향후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작용할 것이다. SDGs의 성공적인 전략을 위해서 시급히 지역연구와 개발협력이슈의 접합가능성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신흥지역연구는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축적된 역량을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에 접목시킴으로써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고려, 그리고 한국과 신흥지역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협력관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과제는 신흥지역연구와 개발협력의 접합가능성을 지식공유사업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실행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CKSRP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신흥지역과의 교역 및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정보의 형태가 아니라 학술적 형태의 지식으로 생산하고 이를 신흥지역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의 일방적 전달과 확산이 아니라 지식을 함께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신흥지역 간에 협력적 연구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다양한 노선의

기차들이 만나는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하듯이, ‘지식공유연구플랫폼’은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신흥지역 국가들이 지식의 생산, 관리, 소통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지식공유의 장을 의미한다. 이 플랫폼은 면대면 관계를 수반하는 오프라인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온라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구성될 것이다. 둘째, 교역 및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을 ‘아래로부터 창출한다’는 의미에서의 창의적 지식공유를 지향한다. ‘아래로부터 창출된’ 지식이란 의미는 신흥지역의 현지맥락과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한국적 현실과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며, 교역과 개발협력에 대한 신흥지역의 수요 발굴에 기반하여 지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이 갖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CKSRP이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차원의 지식공유사업과 차별성을 갖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수요에 대한 ‘포용적’ 지식 플랫폼이다. ‘포용적’이라는 의미는 수용국 수요를 우선시 하는 것이고, 현지적 개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민간 및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깊이 있게 조사 발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그러하기 위해서 현지의 ‘마을공동체’ 밀착형 수요조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둘째, ‘암묵적’ 지식을 강조하는 지식 플랫폼이다. 그동안 지식공유사업은 명시적 지식을 중심으로 실행하였다면, CKSRP는 그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문서에 담겨져 있거나,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암묵적 지식도 그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셋째, 호혜성과 신뢰성을 기초한 관계적 지식 플랫폼이다. 지식의 공유자와 수용자가 동등한 관계에 있으며 지식의 교환이 이들 사이에 일대일 조응과 균형적 상호성에 기초한다. 넷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지식 플랫폼이다. 지식공유의 성공은 두 협력국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교역 및 개발이슈를 발굴하는데 맥락화하고 한다. 다섯째, 지역연구 베이스의 지식 플랫폼이다. 한국

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역할하지 못했던 지역연구를 CKSRP에서는 핵심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역연구는 현지 참여적, 학제적 접근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식공유 이전 단계로서 공유지식 창출단계 그리고 융합지식을 지향하는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 지식공유사업은 ‘공유할 지식’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 협력국 사이에 ‘공유할 지식’은 생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양국이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양국의 지식과 경험이 재구성된 융합적 지식을 창출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KSRP가 실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학술적 측면에서 CKSRP는 신흥지역연구와 개발협력 연구를 연계시킴으로써 한국의 지역연구와 개발협력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학문 생태계에서 지역연구와 개발연구는 별개의 연구영역으로 설정되어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CKSRP는 지역연구와 개발연구가 중첩되는 연구주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연구자와 개발연구자의 공동연구가 가능하고 필요한 새로운 지식 생산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CKSRP의 학술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학문연구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지역연구에서 순수 학문적 연구가 실용적 연구로 관심을 확대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연구와 개발연구가 접목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CKSRP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 KOICA의 ODA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 KSP 사업이나 ODA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사업이 현지의 실질적 수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에 기초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KSP 사업과 ODA 사업은 이 점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 자문단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

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CKSRP 사업은 교역 및 개발에 대한 현지 수요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KSP 사업이나 ODA 사업이 현실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본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실용적인 측면에서 CKSRP 사업은 한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급할 수 있다. 현지에 밀착한 수요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 수요에 기초한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요긴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일부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신장이 한계에 부딪침으로써 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장의 다변화 정책에서 신흥시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신흥지역 사이의 관계도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져 가고 있다. 신흥지역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신흥시장이 단순히 상품판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넓은 의미에서의 교역과 개발이슈가 신흥시장 진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시사하고 있다. CKSRP 사업은 이 점과 관련한 현지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에 집중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KSRP 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에 관한 학술적 성과를 신흥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 방식으로서, 현지참여형 수요조사에 근거한 개발이슈의 발굴과 이에 기초한 한국과 해당 신흥 지역국과의 공유된 융합 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결국 CKSRP 사업은 한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가장 현지적인 지식과 정보, 연구결과물을 생산해 낼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 2015,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 『KDB 산업은행 조사연구(2015. 3. 18.)』 .
- 권영철 (2003). “기업간 합작제휴를 통한 지식공유와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國際經營研究』 , 14(3), 409-424.
- 김기현. 2011, “라틴아메리카 경제 봄은 어디서 왔는가?”, 『2011 라틴아메리카 연보』 .
- 김순성. 2015, “라틴 아메리카 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방향성: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 이슈페이퍼 제 12호.
- 김영애·신호균 (2012). “이타적 공진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지식공유 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orea Business Review』 , 16(1), 81-98.
- 김종욱·이원준·조성의·전성일·김태웅 (2004). “제10회 세미나: 기업간 지식공유네트워크(케이스 스터디),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 곽성일. 2015. “인도차이나 3국에 대한 무역촉진원조 현황과 과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초청강연 발표문.
- 노무라종합연구소 (2000). “주한 일본계 기업의 성공사례. 노무라종합연구소.
- 대학지원관. 『2012년도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시행계획』 .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박미형. 2015. “Labour Mobility and Human Development,” IOM 이민정책연구원 주최 『한국 ODA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포괄적 수단으로서 이민정책』 컨퍼런스 자료집.
- 박종찬 (2012). “중소기업간 협력활동과 지식공유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기업환경요인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 박지환·김주희. 2015, “중남미지역 국가의 경제 및 주요 자원 현황과 정책적 지원”, 라틴아메리카 지역 이슈페이퍼 제11호.
- 사득환. 2011, “한국 기업의 CSR 활동 평가: ‘전략적 사회공헌’을 넘어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9(1): 1-28.
- 이국용 (2012). “파트너기업과의 관계가 외부협업과 기업간 지식공유활동

- 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409-424.
- 이재규·김우택·강주영 (2002). “XRML 를 활용화 정부와 기업간의 지식 공유체계,”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2(1), 706-715.
- 이태주. 2011, “프로젝트를 추적하다: 국제개발과 인류학적 참여”, 『비교문화연구』 제17(1): 39-80.
- 정진섭·이민재·윤영호. 2014, “공유가치창출(CSV)에 기반을 둔 한국의 ODA 전략” 『국제경영리뷰』 18(4): 75-99.
- 정혁. 2015, 『KSP 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제개발협력실행연구원.
- 조병렬·장태구. 2015, “중양아시아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한국산업경제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5월 30일)』.
- 조상미·Erica YoonKyung Auh·정수정·김경화. 2014, “공유가치창출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정책분석을 통한 경쟁력 제고,” 『KBR』 18(4):241-265.
- 조영관 외. 2010, “중양아시아 투자매력도 연구”, KIEP.
- 조영희. 2014. “국제이주-개발이 연계와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변화,” 『IOM 이민 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4-06.
- 조영희. 2015.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IOM 이민정책 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5-09.
- 최미나·유영만. 2003, “지식창출 및 공유전략으로서의 실행공동체 발전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정보방송연구』 9(4): 177-208.
- 한국개발연구원·한국개발정책학회·한국수출입은행. 2015, 『KSP10년사』, 서울: 기획재정부.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자문 평가보고서』, 서울: 기획재정부.
-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서울: KOICA.
- Boer, Niels-Ingvar, Berends, Hans and Peter van Baalen. 2011, “Relational Models for Knowledge Sharing Behavior,” European Management Journal 29.

- Brain, Joseph. 2003. "Knowledge Management in Academic Libraries: Building the Knowledge Bank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39, No. 4.
- Cheng, F. H., Yeh, C. H. & C. W. Tu (2008). "Trust and knowledge sharing in green supply chains,"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3(4), 283–295.
- Cummings, Jeffrey. 2003. "Knowledge Shar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Global and Russian Energy Outlook to 2040, The energy research institut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2013*.
- Eisenhardt, K. M. & C. B. Schoonhoven (1996). "Resource-based view of Strategic Alliance Formation: Strategic and Social Effects in Entrepreneurial Firms," *Organization Science*, 7(2), 136–150.
- Hoekman, Bernard., and Susan Prowse. 2005. *Economic Policy Response to Preference Erosion: From Trade as Aid to Aid for Trade*. Vol.3721. World Bank Publications.
- Ipe, Minu. 2003. "Knowledge Sharing in Organizations: A Conceptual Framework."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Vol. 2, No. 4.
- Kwon, I. W. & T. Suh (2004).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trust and commitment in supply chain relationships,"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40(2), 4–14.
- Morgan, R. M. & S. D. Hunt (1994).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58(3). 20–38.
- Nonaka, I. & H. Takeuchi (1995). *The Knowledge Creating Company*, Oxford University Press.
- Prahalad, C. K. & G. Hamel (1990).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79–91.
- Primo, M. A. M. & S. D. Amundson (2002).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ffects of Supplier Relationship on New Product

Development Outcomes,"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0, 33–52.

Purvis, Russell L., Sambamurthy, V. and Robert W. Zmud. 2001. "The Assimilation of Knowledge Platforms in Organizatio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Science* Vol.12, No.2.

О состоя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3 году. 2014,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연방 천연자원 및 환경부, 2014, 『2013년 러시아 연방 광물–자원의 현황과 이용』 .

The energy research institut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2013,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2025년까지 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 사회–경제 발전 전략).

О состоя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3 году. 2014,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연방 천연자원 및 환경부, 2014, 2013년 광물–자원의 현황과 이용).

Проект Феда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а>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연방목적 프로그램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발전>).

관련 사이트

Global Development Network (<http://www.gdn.int/>)

WTA (<http://www.globalwindow.org>)

World Values Survey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고려대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http://kulas.korea.ac.kr/ver2013/>)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http://gcc.dankook.ac.kr/gcc/>)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동남아 지식정보센터 (<http://seacenter.snu.ac.kr/>)

한국의대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http://investbengal.hufs.ac.kr/>)

한국의대 중앙아시아연구소 (<http://central-asia.or.kr/xs/>)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http://www.hirs.re.kr/>)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http://africa.hanyang.ac.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부록: 신흥지역연구팀의 사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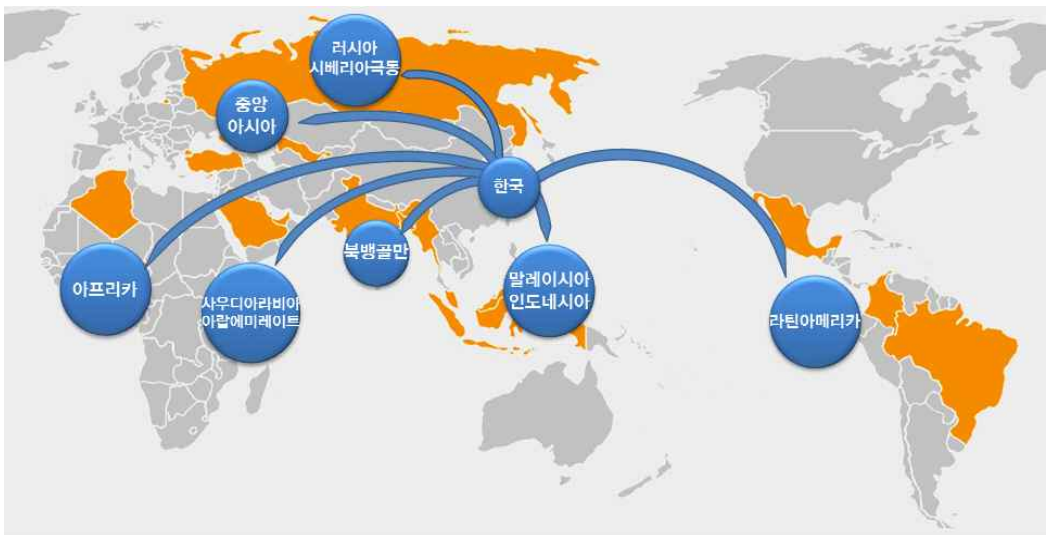
목차

7개 신흥지역과 신흥지역연구팀 연구성과	1
1.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2
2. 중앙아시아 지역과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6
3. 동남아시아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신흥지역연구팀	10
4. 중동지역과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13
5.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과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	17
6. 아프리카 지역과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21
7. 서남아시아와 한국외대 북빙골만 연구사업단	35
8. 신흥지역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 평가	38

7개 신흥지역과 신흥지역연구팀 연구성과

2012년부터 시작된 신흥지역연구팀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전세계의 신흥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로 선정되어 사업이 시작되었다. 7개 지역의 연구사업을 담당할 연구소로 선정된 곳은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동남아시아 지식정보센터,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등이다. 즉,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러시아, 동남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등 7개 지역이다.

<그림 1> 2012년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지역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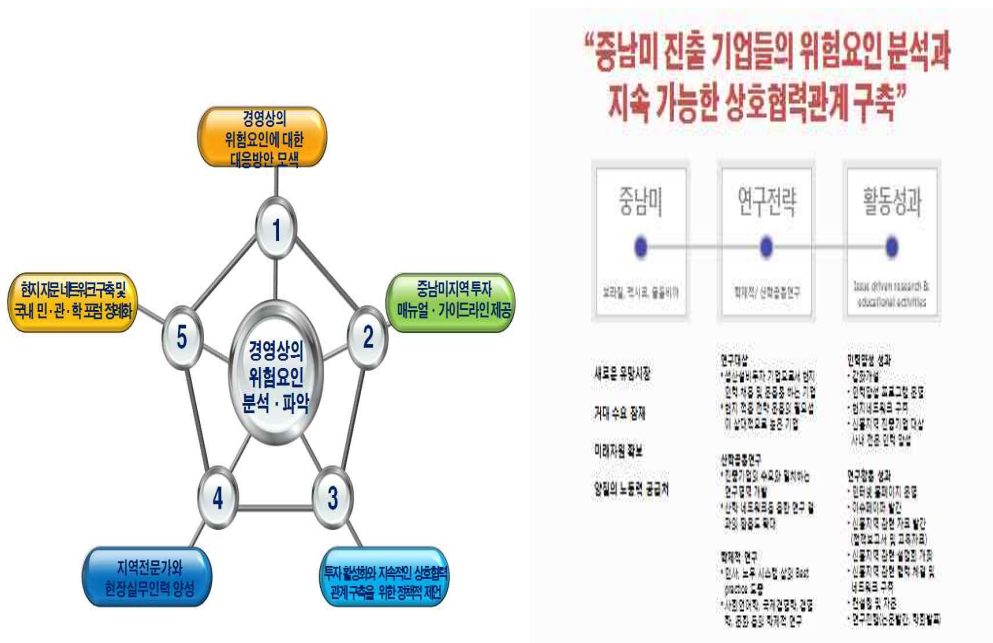
2012년 9월부터 시작된 각 신흥지역연구팀은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독특한 분석틀을 갖고,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 기업 및 지역설명회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신흥지역연구팀은 기존 지역연구 전통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해당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연구의 흐름인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이하의 내용은 각 팀의 해당지역에 대한 연구목적,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1.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연구주제는 “중남미 진출기업들의 위험요인분석과 지속가능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이다. 본 연구팀의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고대 신흥지역연구팀의 연구목적



첫째, 중남미 투자 진출기업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위험요인 파악을 중심축으로 하여, 위의 그림처럼 다섯 개의 최종 연구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 구축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및 민간부문의 사회문화 교류증진을 위한 실용적인 지역 정보 확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영환경상 위험요인을 기업과 업계 수준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여, 경영환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신흥지역인 중남미지역에 투자 및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위하여 투자 매뉴얼·가이드라인과 기업 수준의 정책 및 실천적 대안에 대한 정보 풀(pool)로서의 기능한다.

넷째, 한국기업의 중남미 지역 투자 및 진출 활성화와 지속적인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과 방향설정애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중남미 지역 전문가와 기업수준의 현장실무인력을 양성을 위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 마련한다. 중남미 지역 현지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실시간 자문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더 나아가 국내 중남미 지역 민·관·학 전문가 포럼 정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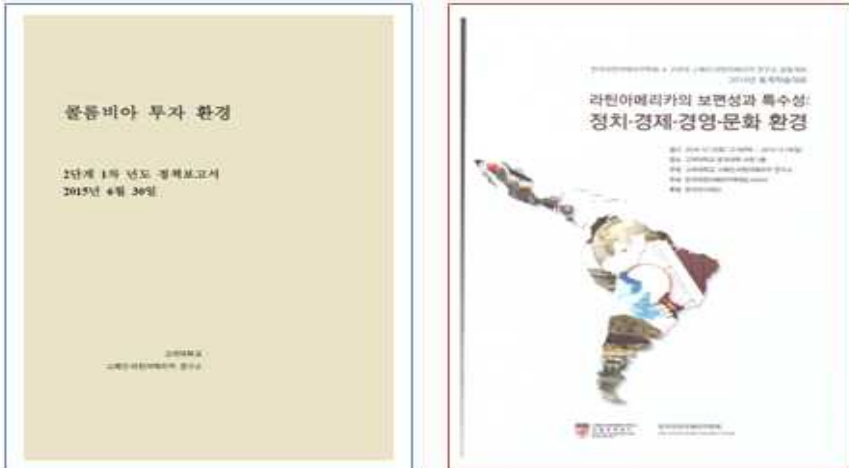
<표 1> 고대 연구팀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 자료집 발간

번호	자료 및 보고서 명	발간일
1차 년도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조세제도”	2012.12.28
	“한·콜롬비아 FTA 영향과 한국기업의 대응 전략”	2013.2.28
	“브라질 사용자 단체 구조 및 역사적 특징”	2013.4.30
	“멕시코의 문화적 환경이 인사관리에 끼친 영향”	2013.6.28
2차 년도	“콜롬비아 유망산업 및 위험요인 분석”	2013.10.31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 고찰”	2014.1.31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의 농산업 및 비료·농약사용 현황”	2014.4.30
	“콜롬비아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 모색”	2014.6.20

<그림 3> 고대 연구팀 각종 연구출판물(1)



<그림 4> 고대 연구팀 각종 연구출판물(2)



<표 2> 고대 연구팀 네트워크 구축 현황

	추진일시	주요 내용
1차 년도	2012.9.25	콜롬비아 한국학회(Asociación de Estudios Coreanos en Colombia)
	2012.10.3	콜롬비아 중소기업청(PROPAÍS)
	2013.9.12	멕시코 콜리마대학(Universidad de Colima)과 연구소 간 체결
	2012.10 ~2013.3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진출 기업 연락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3.6.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 세미나 개최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의의와 전망”
	2013.6.14	브라질 진출 기업 노무관리 담당자 교류: LG, 삼성SDS, 현대자동차 글로벌 노무관리 담당자
2차 년도	2014.2.18	멕시코 경영 환경 간담회
	2013.5.9	파나마 대사관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
	2013.6.17	브라질 주요 대학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
	2014.2.21	콜롬비아 대학 Universidad Central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
	2014.3.20	멕시코 대학 Universidad Panamericana와 교류 네트워크 구축
	2014.4.10	콜롬비아 대학 Universidad de Antioquia와 교류 네트워크 구축
	2014.4.28	콜롬비아 대학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와 교류 네트워크 구축
	2014.6.13	스페인의 Universidad Camilo José Cela와 교류 네트워크 구축
2014.6.18	신임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교류 네트워크 구축	

<표 3> 고대 연구팀 지역설명회 현황

번호	사업명	개최 기간
1차 년도	제1회 학술대회 “라틴아메리카의 현재와 미래”	2013.6.1
	제1회 기업설명회 “브라질 기업 환경 설명회”	2013.6.14

	제2회 기업설명회 “콜롬비아 석유산업 투자 설명회”	2013.6.24
2차 년도	신흥지역연구 지원 사업 성과 발표회	2013.11.14
	제3회 기업설명회 “콜롬비아 인프라 건설 투자 설명회”	2013.11.25~26
	제2회 학술대회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지평 확대"	2014.5.31
	제4회 기업설명회 “멕시코 기업환경 설명회”	2014.6.13

<그림 5> 고대 연구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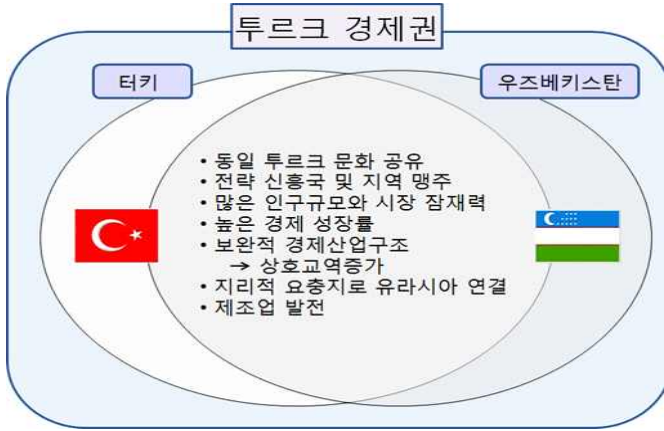
<그림 6> 고대 신흥지역연구팀 홈페이지



2. 중앙아시아 지역과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의 연구주제는 “투르크 경제권에 관한 연구기반 구축과 한국의 대응전략- 터키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이다. 본 연구팀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한국의대 중앙아시아 신흥지역연구팀의 연구목적



◇ 한국의 신흥전략지역으로 터키-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연구

◇ 투르크 경제권 전문인력양성

◇ 국내, 현지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 맞춤형 정보제공

본 연구팀은 새로운 지역적 범주로서의 '투르크 경제권'을 개념화하기 위해 다음 같이 관련 개념 및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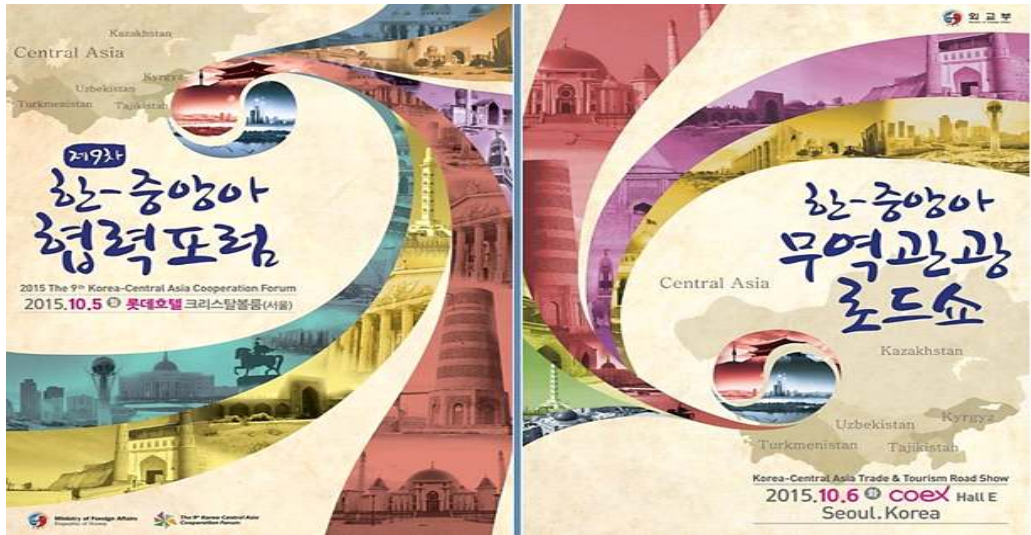
첫째, '투르크인(Turkic peoples)' : 터키공화국 내 터키인을 비롯해 투르크어 계통 언어를 사용하며, 유라시아 대륙에 2억 명을 상회하는 거대 집단 형성하고 있다. 터키공화국(8천만), 아제르바이잔 및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독립 공화국(8천만, 타지키스탄 제외), 그 외 러시아연방 소속 투르크계 공화국, 중동 지역,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동서유럽 일부 등(5천만)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둘째, '투르크 경제권'은 민족, 언어, 역사, 문화, 종교적 공통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공간개념이다.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투르크 정체성이 보존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유라시아 대륙 내 가장 젊은 인구구성과 빠른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는 경제권이다. 향후 유럽과 아시아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발판삼아 거대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

셋째, 新실크로드(물류)와 오일로드(자원)의 교차지대로서 의미를 갖는다. 유라시아 대륙 가운데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고대부터 인적·물적 자원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최근에도 다양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보고로

주목받는 시대이다.

<그림 8> 한국외대 연구팀 기업 및 지역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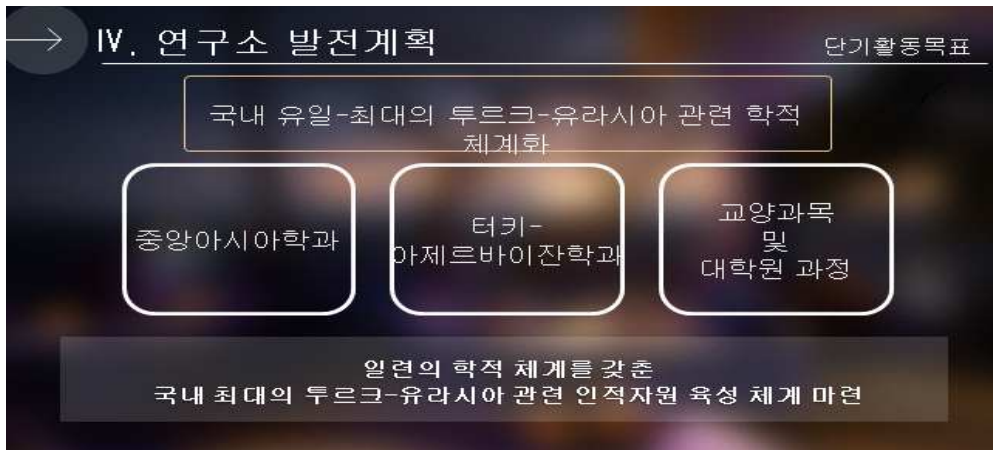
<그림 9> 한국외대 연구팀 이슈페이퍼와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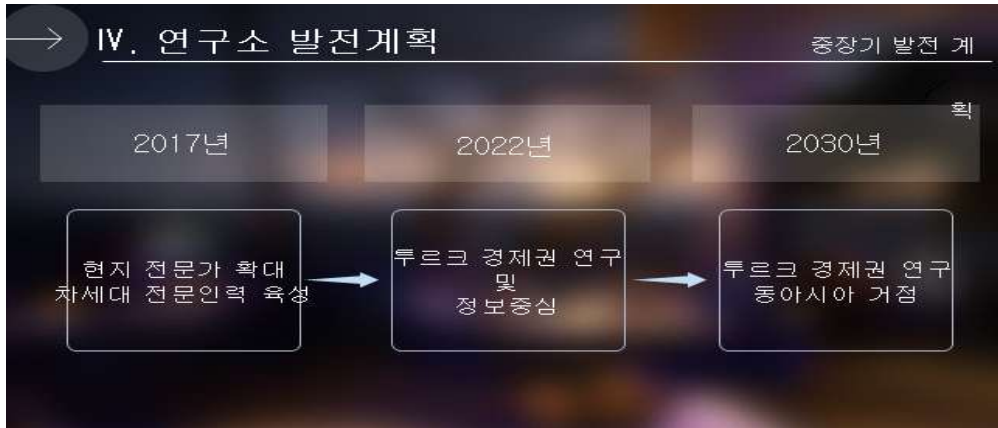
<그림 10> 한국외대 연구팀 단행본 출간



<그림 12> 한국외대 연구팀 연구소 발전 계획 (단기활동목표)



<그림 13> 한국외대 연구팀 연구소 발전계획 (중장기발전계획)



<그림 14> 한국외대 연구팀 네트워크 구축 현황

협력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	체결일자	비고
카자흐스탄 중소기업연합회(KZSMCA)	2014.12.18	카자흐스탄
Global Azia Trading	2015.04.30	우즈베키스탄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2015.05.02	키르기즈스탄
Turk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 Center, Gazi University	2015.06.22	터키
Ea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Erciyes University	2015.06.23	터키
Center for the Korean Studies, Ankara University	2015.06.25	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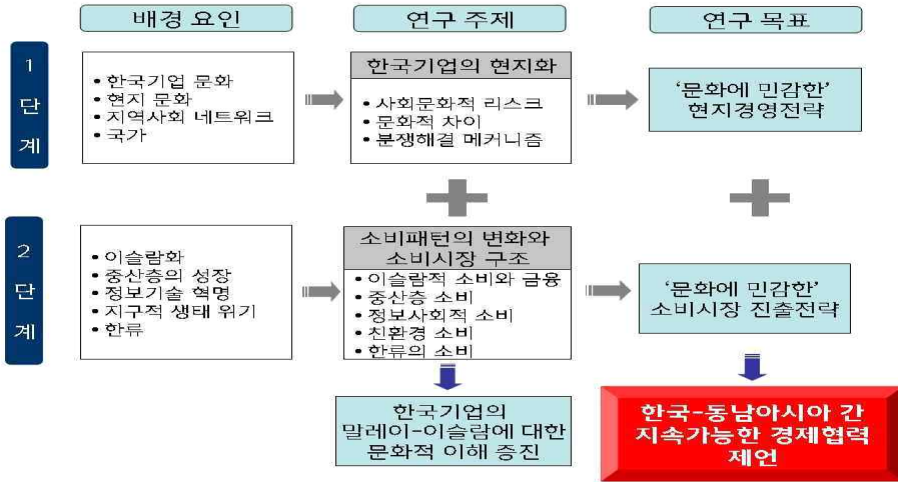
<그림 15> 한국의대 신흥지역연구팀 홈페이지 (중앙아시아 사업단)



3. 동남아시아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신흥지역연구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신흥지역연구팀의 연구주제는 “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 이다. 본 연구팀의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6> 서울대 신흥지역연구팀 연구목적



동남아시아의 해양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한국 정부 및 민간 기업이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두 국가는 언어(말레이어群)와 종교(다종교 사회이지만 이슬람이 지배적) 양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는 낯선 문화적 특성이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관한 다양한 계량적 자료와 공식적 경제 지표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관은 많지만,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문화적 상이함에서 기인하는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종교적·사회문화적 관행과 현지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때, 현지진출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경영과 시장진출은 성장잠재력과 같은 객관적 조건 외에 현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단이 지향하는 ‘문화에 민감한’ 현장 중심 정보와 지식의 생산은 한국-동남아 이슬람 문화권과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의 최종 연구목표는, 단기적 이윤추구나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일방적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불안정성과 위험을 극복하고 한국 기업

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양 국가와의 ‘상호 이익’을 보장하도록 점진적 신뢰 구축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시장진출 방안의 모색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는 1단계(2012.9~2014.8)에서는 현지진출에 성공한 한국기업의 ‘문화적 적응’에 기초한 경영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단계(2014.9~2017.8)는 한국기업의 두 국가 진출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될 소비시장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소매유통업의 구조와 전망에 대한 차별화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여, 현지진출을 고려하는 한국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표 4> 서울대 연구팀 네트워크 구축 현황

	산합협력체결 기관	일시	주요 협약내용
1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2013년 5월 15일	인력 및 정보 교류 현지 진출 한국기업 지원 사업
2	재말레이시아 한인상공회의소	2014년 2월 4일	인력 및 정보 교류 현지 진출 한국기업 지원 사업
3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글로벌 연수원	2013년 9월 16일	동남아시아 교육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운영
4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UK M) 말레이시아와국제관계연 구소	2014년 2월 20일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교 류
5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2013년 5월 24일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교 류
6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2014년 6월 5일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교 류

<그림 17> 서울대 연구팀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 단행본



<그림 18> 서울대 연구팀 지역설명회 및 기업설명회



<그림 19> 서울대 신흥지역연구팀 홈페이지



4. 중동지역과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의 연구주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신성장 전략연구”이다. 본 팀의 연구 및 사업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0> 단국대 신흥지역연구팀 연구목표



첫째, ‘역내 리더십 강화전략’ 연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대외 정책현황과 국내외적 위협요인을 파악한다. 본 연구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역내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 분야의 리더십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전략’ 연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노동 및 교육 개발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이 지역의 문화 및 인구구성 요소에 미칠 변화를 전망한다. 본 연구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교육이 각 국가의 문화 및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나아가 양 국가의 무슬림 여성 인력의 활용방안과 그 결과가 이슬람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경제다변화 전략’ 연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향후 경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 기업에 유망한 진출 및 투자 분야를 개척한다. 본 연구팀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제 다변화 정책을 분석한다. 넷째, ‘글로벌 허브 전략’ 연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교두보로 삼아 한국이 주변 중동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항공, 물류, 관광, MICE(Meeting, Incentive, Conference, Exhibition)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며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경제적 위상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중동, 아랍, 이슬람 국가들을 연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이 중동 지역에 진출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거점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21> 단국대 연구팀 네트워크 구축 현황

MOU체결 및 협력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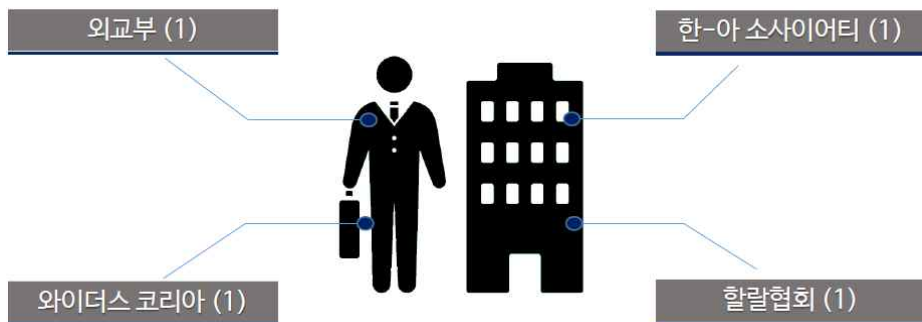
<그림 22> 단국대 연구팀 대외활동



<그림 23> 단국대 연구팀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 단행본 등 다양한 출판물



<그림 24> 단국대 연구팀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 운영



<그림 25> 단국대 신흥지역연구팀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GCC Center at Dankook University. The header includes the university logo and navigation links. The main content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공지사항 (Notice):** Lists recent notices such as '분기, 무슬림 어상을 맛보다' (2015-08-31),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중동비즈니스 스쿨" 개소' (2015-07-02), and 'GCC국가연구소, 제3차 글로벌총 개회' (2015-05-01).
- 학술활동 (Academic Activities):** Details research activities like 'GCC국가연구소 글로벌총 "GCC정치경제변화와 노동시장 전망"' (2015-09-19) and '홍익갑 연구교수 "Halal" 교육프로그램 운영' (2015-09-04).
- 기타 간행물 (Other Publications):** Lists publications such as 'GCC국가연구소 『The Gulf Area Studies』 Vol. 2 발간' (2014-12-30) and '제 1회 할랄포럼(GCC국가연구소 민간기업 설명회) 자료집' (2014-05-21).
- GCC News:** Features news items like '미테크건설, 사우디서 2천50억원 플랜트 공사 수주' (2015-09-21) and 'KCL, 사우디표준형과 태양광발전시스템 협약' (2015-09-21).
- GCC Report:** Provides reports such as '사우디, 메카로의 성지순례(홀리갑)/pdf' (2015-09-24) and 'UAE는 정말로 아랍 난민들을 환영하나(남욱경)' (2015-09-17).

5.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과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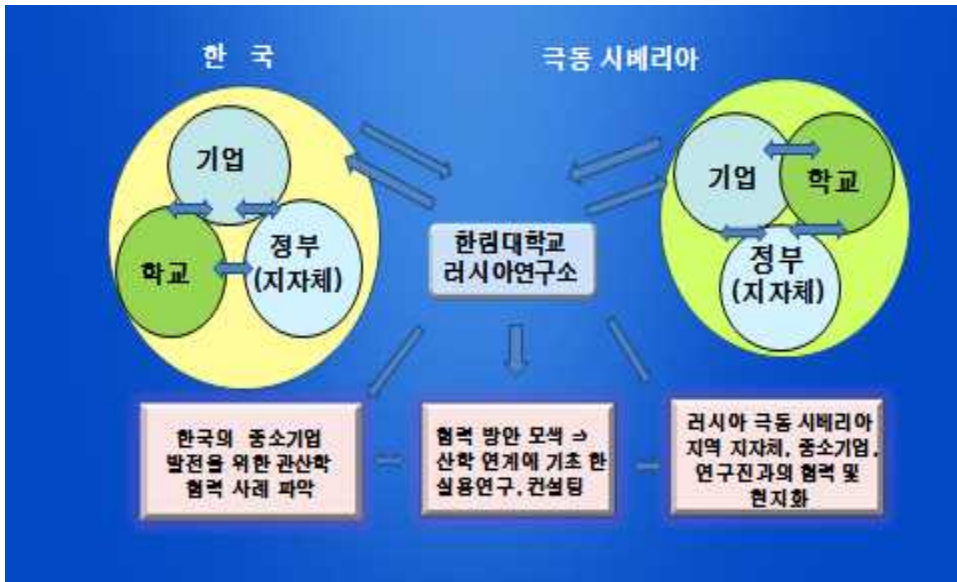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의 연구주제는 “한국의 북방개척과 시베리아 개발: 학술연구에서 산학연계로”이다. 본 연구팀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한림대 신흥지역연구팀 연구목적

목 표
▶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전문 연구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MOU 체결을 통한 중장기적 인적 네트워크 확보
▶ 현지 연구 인력의 수용, 주요 자료 분석 및 정보 생산, 배포 등을 통한 한국 기업의 극동 시베리아 진출에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 및 전략 컨설팅
▶ 한국과 러시아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동부지역(시베리아연방지구, 극동연방지구) 개발과 안정적 발전, 더 나아가서 아·태 경제권에 통합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경제지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양측의 교류가 더욱 왕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은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시장진출에 긴요한 실용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진출방안의 수립과 점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러시아 동부지역의 시장진출에 관한 선행연구는 러시아 개별 지역에 대한 분절적(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학협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러시아 기업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사업협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1단계(2개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 중소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현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연구목표를 두었다. 그래서 학술차원의 연구보다는 수요자가 전문적인 분석과 특별한 가공 없이도 실용 단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2단계에서도 한국과 시베리아가 Win-Win할 수 있는 관·산·학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러시아 시장 진출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안하며, 특히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중소기업에 실용적인 정보 제공, 진출 방안 제안,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단계 1년차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시베리아/극동지역을 비즈니스 지역으로 인식하도록 현지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심층연구에 해당되는 2년차에서는 현지의 유망분야와 협력이 가능한 기업들을 분석하고, 양 지역 상공인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국제 네트워크 구축(연구원 현지 거주 등)을 통해 실용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계를 통한 수익사업을 창출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림 26> 한림대 연구팀 연구 네트워크 모형



<표 6> 한림대 연구팀 네트워크 구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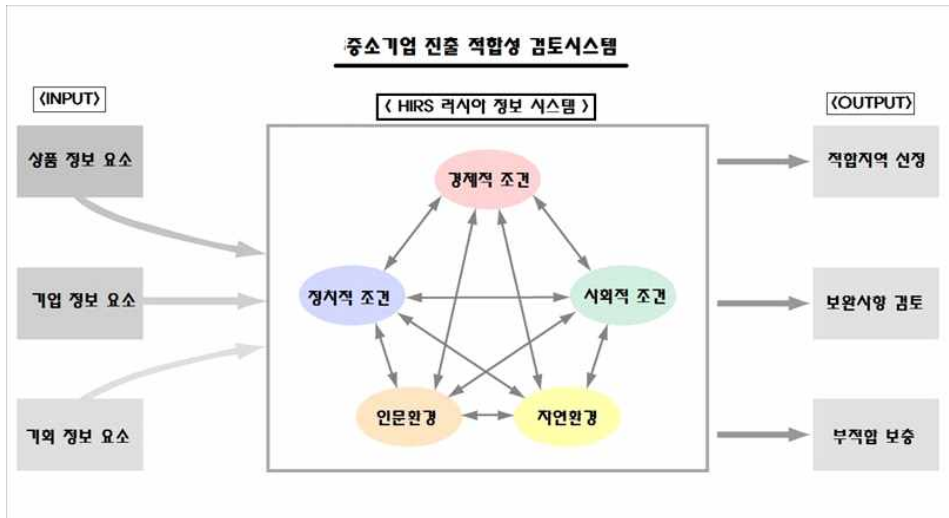
연차	협력체결기관	사업개요	일시
1년차	(주)신한	업무협약 체결	2013.2.1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학술교류 협정	2013.4.12
	울산발전연구원	연구교류 협력 협약	2013.6.4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ar Eastern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s)	학술교류 협정	2013.6.25
	울산상공회의소	연구교류 협력 협약	2013.7.4

2년차	TRC KOREA	업무협약 체결	2013.9.10
	법무법인(유)화우	업무협약 체결	2013.9.24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and Service	학술교류 협정	2013.10.1
	바디텍 메드	업무협약 체결	2013.10.14
	강원발전연구원(동북아연구센터)	학술교류 협정	2013.11.22
	Institute of the East, North-Eastern Federal University	학술교류 협정	2013.12.9
	Russian Academy of Justice 동시베리아분소	학술교류 협정	2014.2.25
	(주) 에너지팜	업무협약 체결	2014.3.20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	업무협약 체결	2014.6.18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학술교류 협정	2014.7.16

<표 7> 한림대 연구팀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 각종 출판물

자료 및 보고서	내용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배포	매 분기 계간 이슈페이퍼 제작 및 배포 - 2013년 이후 총 13회 제작 - 유관 기관 및 중소기업에 배포 - 홈페이지 서비스
정책보고서 발간 및 배포	연 2회 이상 정책 보고서 발간 - 총 4회 발간 - 유관 기관 배포 - 홈페이지 서비스
연구소 총서 및 각종 자료집 발간	연구소 총서 및 단행본 발간 - 총서 현재 총 3회 발간. 단행본 2권 각종 자료집 발간 - 수시로 자료집 발간 및 배포
HIRS 칼럼	현지 진출 기업 전문가의 진출 사례 - 메일링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그림 27> 한림대 연구팀 중소기업의 러시아 지역진출 적합성 검토 시스템 개발



<그림 28> 한림대 연구팀 한·러 경제 및 비즈니스를 위한 B2B 시스템 구축

Business D/B	Company D/B	News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 ✓ 경제산업동향 ✓ 무역정책 ✓ 투자정책 ✓ 법률, 조세 ✓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기업 D/B ✓ 혁신 중소기업 D/B ✓ 투자프로젝트 D/B ✓ 혁신상품 D/B ✓ 전시정보 D/B ✓ 입찰, 경매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경제 동향 ✓ 분석 리포트 ✓ M&A 뉴스 ✓ 한-러 시장 동향 ✓ 러시아 포커스 ✓ 뉴스 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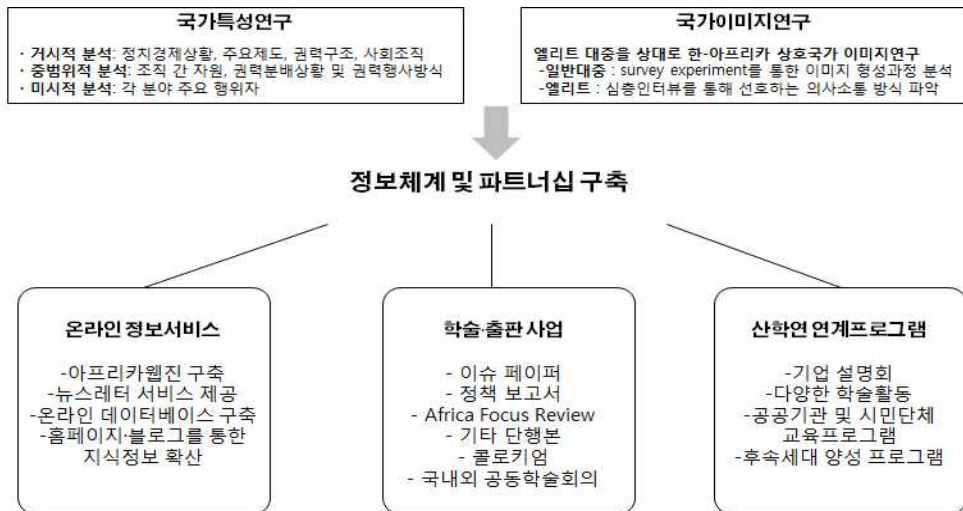
<그림 29> 한림대 신흥지역연구팀 홈페이지



6. 아프리카 지역과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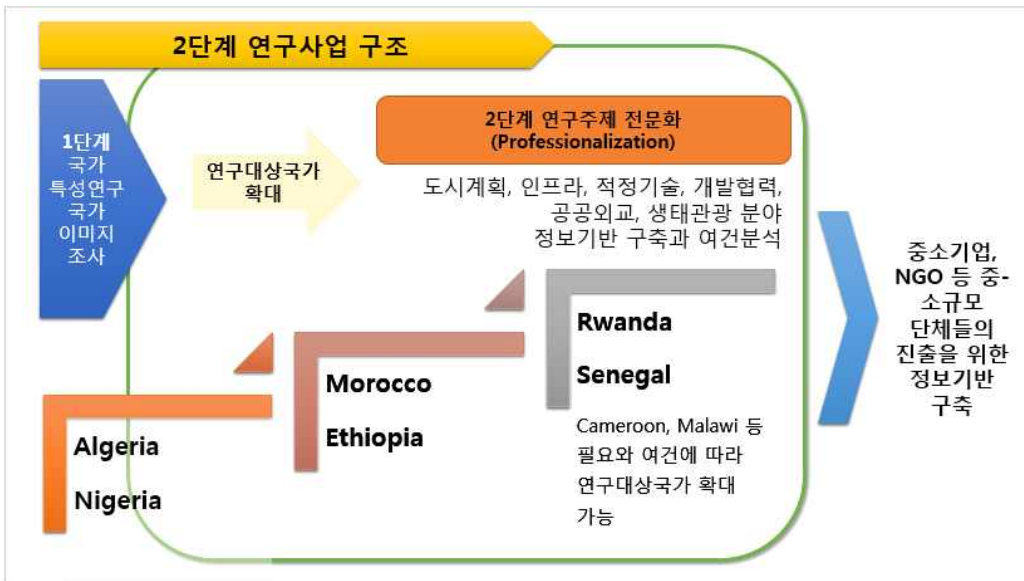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의 연구주제는 “아프리카 기본정보체계 및 파트너십 구축: 나이지리아와 알제리를 중심으로”이다. 본 연구팀의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0> 한양대 신흥지역연구팀 연구목적



한양대 연구사업팀은, 1단계 연구에서 “아프리카 기본정보체계 및 파트너십 구축: 나이지리아와 알제리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2년에 걸친 1단계 연구결과를 심화하는 2단계에서는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통합적 접근: 중소기업진출 지원전략”으로 연구를 개시하였다. 2단계 연구는 1단계 연구 성과(국가특성연구와 국가이미지조사)를 기반으로 연구주제와 내용을 전문화하고 연구지역범위를 확대하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출을 목표로 한다.

<그림 31> 한양대 신흥지역연구팀 연구목표



한양대 연구사업팀은 1단계 연구에서 알제리와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국가특성연구를 수행하였고, 알제리와 나이지리아 엘리트들과 일반대중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1단계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의 성장·발전,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크고 시급한 과제를 발견하였고, 이를 2단계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1단계 CSI 추진체계에서,

2단계에서는 PCD(Professionalization, Case study, Diffusion) 추진체제로 발전시키고, 전문화된 지식과 실증적 현장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지식의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에게 이를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2단계 연구사업의 방향과 목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2단계 연구의 대주제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진출 지원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고실업 등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국내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실질적 지원·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내용(국가특성연구, 국가이미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아프리카 진출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전문분야들을 중 “도시계획과 산업거점개발”, “인프라 건설 분야”, 아프리카 지역 환경에 특화된 “적정기술”과 관련 분야 “개발협력전략”, “생태관광 및 공정관광” 등을 2단계 연구의 전문화 주제로 선정하였다. 한편 1단계 연구대상 국가인 알제리와 나이지리아에서, 대상 국가를 에티오피아,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카메룬, 말라위 등으로 확대하였다. 2단계에서는 국가적, 지역적, 사회·문화적 배경연구를 바탕으로 위 전문화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연구, 시장진출 가능성과 기회 타진, 한계와 제약, 위험요소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과제는 C.S.I [연구역량 (capacity) - 조사분석(survey) - 인큐베이팅(incubating)]라는 연구단계별로 목표를 진행한다. 우선 C는 역량 (Capac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연구의 거점으로서 연구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S는 조사(Survey)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특성을 중심으로 한 토대연구와 연구 대상국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분석을 위한 여론 조사(COI Survey)를 수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I는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의미하며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와 아프리카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이슈 페이지, 설명회 개최, 웹진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포럼과 라운드 테이블, 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실무자와 학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연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연구목표는 학술적 목표와 파트너십 구축 목표로 세분된다. 학술연구목표로는 첫째, 나이지리아 및 알제리의 국가특성 연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둘째, 나이지리아 및 알제리 진출 시 고려해야할 위험요인 및 기회요인 분석 셋째, 나이지리아 및 알제리에서의 한국 국가 이미지 연구 넷째, 한국 내 나이지리아 및 알제리 국가 이미지 연구 다섯째, 나이지리아 및 알제리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 제시이다. 파트너십 구축목표로는 첫째, 아프리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가동 둘째, 국내의 학계, 기업계, 정부관련 인사와 아프리카 커뮤니티(외교관, 유학생, 노동자)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셋째, 현지 대학 연구소 및 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넷째, 한국 기업과 정부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이다.

<표 8> 한양대 신흥지역팀 MOU 체결 실적

날짜	협력체결기관	내용	구분
2013. 12. 5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학술·연구교류	국내
2014. 1. 14	대전발전연구원	학술·연구교류	국내
2014. 4. 24	법무법인 참진	법률자문	국내
2014. 5. 20	(주)한국과기산업	연구·인력교류	국내
2014. 6. 12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학술·연구교류	국내
2014. 11. 26	(사)한-아프리카 교류협회	연구·인력교류	국내
2014. 11. 26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학술·연구교류	국내
2015. 3. 23	(재)국제기후난민구호기금	연구·인력교류	국내
2015. 3. 23	주식회사 투어플랫폼	연구·인력교류	국내
2014. 1. 14	알제리 건강증진 및 연구개발 국립재단 (FOREM)	학술·연구교류	해외
2014. 6. 24	알제리 마그레브연구소(Centre d'etudes maghrebine Algerie)	학술·연구교류	해외
2014. 6. 30	파리 8대학 유럽-마그레브 연구소	학술·연구교류	해외

2015. 2. 11	라이프씨히대학 아프리카 연구소와 MOU 체결	학술·연구교류	해외
2015. 4. 8	삼성중공업 나이지리아 현지 법인	연구·인력교류	해외

<표 9> 한양대 신흥지역팀 정부 및 민간지원실적

날짜	내역	구분
2014. 2. 12	국회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 강연회	국회
2014. 1. 14.	대전광역시 해외 협력사업 지원	정부
2014. 5. 23.	지방자치단체 아프리카 협력사업 지원 (강원 화천군)	정부
2014. 09~12	외교부지원으로 나이지리아, 알제리 노동시장의 구조와 정책 연구과제 수행	정부
2015. 3. 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 ODA팀과 개도국 기술이전 관련 논의 및 컨설팅	정부
2015. 5. 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나이지리아 과학기술 이전과 ODA 관련 자문	정부
2015. 10. ~	성동구청과 개발협력에 대한 중·고등학교 특강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중 → 향후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예정	정부
2015. 7~10	외교지원으로 나이지리아 신정부 출범과 전망 연구과제 수행	정부
2015. 3. 19.	(주) 에이드그린 컨설팅 : 적정기술 기반 개도국(특히 아프리카 지역) 진출 방안 및 국내 개발협력 파트너십 형성 관련 컨설팅 수행	민간
2015. 4. 1.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제개발협력과 민관협력(PPP) 방안' 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자문 수행	민간
2015. 4. 21.	스트라코프(Stracorp) : 기업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진출 파트너십 구축 관련 컨설팅 수행	민간
2015. 5. 1.	(주) 에코니티(Econity) : 환경기술(물 정수기술) 기반 아프리카 진출 방안 및 국내 개발협력 파트너 형성 관련 컨설팅 수행	민간

<표 10> 한양대 신흥지역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실적

날짜	내역	구분 (국내/ 해외)
2013. 11. 28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아프리카팀과의 간담회	국내
2013. 12. 5	한-아프리카 청년 리더 포럼 개최	국내
2013. 12. 17	중소기업중앙회와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참여 연구소 간 협력 논의	국내
2014. 6. 10	알제리 건설컨설턴트 김정화 대표와 민간네트워크 확대와 정보교류 논의	국내
2014.9.24.~26.	제13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국내
2015. 10. 7	신흥지역 성과 발표회 참가	국내
2015. 10. 13	제14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국내
2015. 9. 22	바람직한 한-아프리카 협력의 길 모색 포럼	국내
2014. 1. 14	알제리 비영리단체 FOREM (National Foundation for Health Progress and Research Development) 방문	해외
2014. 1. 14	알제리 상공회의소 사무총장과 면담	해외
2014. 1. 14	삼성물산/엔지니어링 알제리 지사장과 미팅	해외
2014. 1. 15	알제리 국립경영대학원(Ecole Nationale Superieure de Management) 방문	해외
2014. 1. 15	알제리 국립 응용경제/개발 연구소 (CREAD) 방문	해외
2014. 1. 19	알제리 국립사회/문화인류학 연구소 CRASC 방문, ORAN	해외
2014. 1. 19	KOTRA 알제리 지사 방문	해외
2014. 1. 19	알제대학 세종학당 방문	해외
2014. 6. 30	프랑스 파리 8대학 마그레브 연구소와 교류협력	해외
2015. 1. 13	나이지리아 KOICA 사무소 방문, 교류협력	해외
2015. 1. 14	나이지리아 NPC(National Planning Commission) 방문 소장 및 관계자 면담	해외
2015. 1. 14	나이지리아 RMCR(Raw Materials Council and Research) 방문. 소장 및 관계자 면담	해외
2015. 1. 15	Center for Management Development(CMD) 방문, 부소장과 관계자 면담	해외

2015. 1. 15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방문. 담당 실무자 및 연구원 면담	해외
2015. 1. 16	나이지리아 ITF(Industrial Training Fund) 방문. 소장 면담 및 향후 사업 방안 논의	해외
2015. 1. 16	USAID 아부자 사무소 방문. 개발협력 담당자 면담 및 현황 논의	해외
2015. 2. 2	알제리 이미지조사 관련 교류 및 협력	해외
2015. 2. 10	훔볼트 대학, 동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방문 협력방안 논의	해외
2015. 2. 11	라이프찌히대학 아프리카 연구소와 교류협력	해외
2015. 2. 12	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GIGA)와 교류협력	해외
2015. 2. 12	베를린 자유대(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방문	해외
2015. 2. 13	독일개발협력청(GIZ) 베를린 지부 방문 및 지부장 면담	해외
2015. 2. 13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본부 방문 및 면담	해외
2015. 6. 11 ~ 6. 13	일본 와세다 대학, 가마쿠라 여자대학, 교토대학, 고베대학 등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 관련 연구센터 방문, 연구원 면담	해외
2015. 8. 21	8 th World Congress of African Linguistics(일본 교토대학) 참가	해외

<표 11> 한양대 신흥지역연구팀 아젠다 관련 설명회

번호	개최기간	사업명	사업개요	비고
1	2013. 10. 30	지역전문가 초청 투자환경 설명회	알제리 시장 진출전략과 위험요소 초청인사 : 정해웅	전 알제리 대사

2	2013. 11. 1	기업설명회	한국과기산업 알제리 진출 경험과 전략 초청인사: 김성태, 정경남	(주)한국과기 산업 대표이사 / 알제리지사 장 전
3	2013. 11. 4	지역전문가 초청 투자환경설명회	나이지리아 투자환경과 위험요소 초청인사: 이기동	나이지리아 대사
4	2013. 11. 28	아프리카 지역현황 간담회	한국수출입은행 대회협력기금 문재정 팀장 외 3인	한국 수출입은행 본사 국회의원회 관 소회의실
5	2014. 2. 12	아프리카 지역 설명회	국회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 강연회	국회의원회 관 소회의실
6	2014. 6. 26	나이지리아 투자환경 간담회	대우건설 해외영업팀 나이지리아 담당 김귀식과장 외 1인	대우건설 본사
7	2014. 7. 24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원과 안보 초청인사: 신동찬 변호사	법무법인 울촌
8	2014. 9. 24	NGO 전문가 초청 설명회	아프리카와 시민사회의 역할 초청인사: 강도욱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9	2014. 9. 25	부산한상대회	한국 아프리카 교류협회, 재외동포 기업인 및 재외한인회, 대우건설	부산 Bexco
10	2014. 10. 29	에볼라 현황과 대응에 관한 초청 강연	에볼라 위기와 아프리카 초청인사: 정준호	아프리카 의료전문 자유 기고가
11	2015. 1. 28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지방정부와 국제개발협력 초청인사: 엄기증	한국기후변 화대응연구 센터
12	2015. 2. 25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남수단의 안보문제와 PKO활동 초청인사: 정해천	국방대학교 PKO센터

13	2015. 3. 19	기업설명회	(주)에이드 그린 _적정기술 개도국 현지 사업화 방안(담당자: 김성규)	(주)에이드 그린
14	2015. 3. 23	NGO 전문가 초청 설명회	국제재난구호 NGO의 활동과 비전 초청인사: 이 욱	W 재단
15	2015. 3. 25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ODA시장과 진출전략 초청인사: 조현규	KOICA 원조조달계 약팀
16	2015. 3. 25	기업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 ODA팀_기술이전과 ODA(담당자: 김성규)	한국산업기 술진흥원(K IAT)
17	2015. 4. 1	자문회의	국제개발협력과 민관협력(PPP) 방안 자문(동양대 산학협력단) 담당자: 김성규	동양대학교
18	2015. 4. 21	기업설명회	스트라코프(Stracorp)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파트너 십 구축(담당자: 김성규)	스트라코프 (Stracorp)
19	2015. 4. 29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아프리카 저개발과 국제협력 초청인사: 김대유	전 대통령비서 실 경제정책 수석비서관 , 전 통계청장 (주)
20	2015. 5. 1	기업설명회	(주) 에코니티(Econity)- 환경기술 기반 아프리카 진출 방안(담당자: 김성규)	에코니티(E conity)
21	2015. 5. 18	자문회의	나이지리아 과학기술 이전과 ODA 자문(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담당자: 김성규	STEPI
22	2015. 5. 20	기업설명회	아프리카 커피산업 진출방안 초청인사: 이영준	C&C Project 상무

23	2015. 9. 21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외교관의 역할과 아프리카 정세 초청인사: 권혁운	외교부 아프리카과 과장
24	2015. 10. 13	세계한상대회	한국 아프리카 교류협회, 재외동포 기업인 및 재외한인회	경주화백컨 벤션센터
25	2015. 10. 28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나이지리아 보건의료의 개혁방안 초청인사: 한동운	한양대 보건의료연 구소
26	2015. 11. 23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북아프리카 샤리아법과 법원 초청인사: 박규환	영산대학교
27	2015. 12. 18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한-모로코 개발협력 방안 초청인사: Rezrazi Mostafa	모로코

<표 12> 한양대 신흥지역연구팀 학술대회 발표 논문

번호	성명	학술대회명	논문명	비고
1	김성수	동아시아 질서의 재해석과 한반도<아프리카의 갈등과 협력>	Seeking for the just ruler	연구책 임자
2	김성수	Société, modernité et développement en Algérie Et en Corée du Sud : Approches comparatives (Oran,Algerie)	The Role of Korean Middle Class in Democratic Transition: What Are the Causes of their Participation in Democratic Struggle?	연구책 임자
3	김성수	국회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	아프리카 정치경제와 2014년 전망: 알제리와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연구책 임자
4	김성수	2013년도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성과발표회	신흥지역연구 심포지엄: 나이지리아/알제리 개황	연구책 임자
5	김성수	글로벌 위기와 아프리카 대응전략 포럼	유가변동과 미국의 에너지 붐이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책 임자
6	김성수	바람직한 한-아프리카 협력의 길 모색 포럼	주요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현황과 시사점	연구책 임자
6	김동석	2013년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선정 기념학술회의	아프리카 분리주의전쟁에 대한 고찰	전임연 구원
7	김성규	Post-2015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전략 포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 개발	전임연 구원

8	김성규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나이지리아 노동시장 구조와 청년 고용정책	전임연구원
9	김성규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and Asia : Current Status, Issues and Possibilities	Migration and Development with ODA Perspective	전임연구원
10	김성현	2013년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선정 기념학술회의	아프리카 신자유주의와 시민사회: 빈곤 감축전략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임연구원
11	김성현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평가와 전망」공동학술대회, 대전발전연구원	신자유주의와 아프리카 시민사회	전임연구원
12	김성현	Société, modernité et développement en Algérie Et en Corée du Sud : Approches comparatives (Oran, Algerie)	L'Origine du neoliberalisme en Corée du Sud	전임연구원
13	김성현	2014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알제리의 석유 의존 경제와 산업정책: 시대, 생산, 국가	전임연구원
14	김성현	2014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알제리의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정책	전임연구원
15	김성현	글로벌 위기와 아프리카 대응전략 포럼	유가하락의 위기와 알제리 정부의 대응정책	전임연구원
16	김성현	2015년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	유가하락의 위기와 알제리의 정책대응	전임연구원
17	김수원	2014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The Political Economy of Indebted Mercantilism in Ghana	전임연구원
18	김수원	2014년 한-남아공 경제협력 방안 세미나	한국형 경제발전모델의 남아공정치엘리트의 재해석	전임연구원
19	김수원	2014년 세계 해양·영토와 국경	아프리카 국경의 탄생과 변형	전임연구원
20	김정숙	2013년 아프리카연구소 정기학술대회	모로코 5차 헌법 개정과 베르베르인	공동연구원
21	김정숙	2013년 한국마그레브학회 학술대회	마그레브 알제리 선주민 베르베르인의 역사: 수용과 저항	공동연구원
22	김정숙	2013년 한국프랑스학회 정기학술대회	카위의 알제리, 알제리의 카위	공동연구원
23	김정숙	2013년 한국아프리카학회 학술회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의 다카르 연설 텍스트 분석: 석양의 노래	공동연구원
24	김주희	2015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유가하락과 나이지리아의 산업구조 분석	전임연구원
25	김주희	2015년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	유가하락과 나이지리아의 경제개혁	전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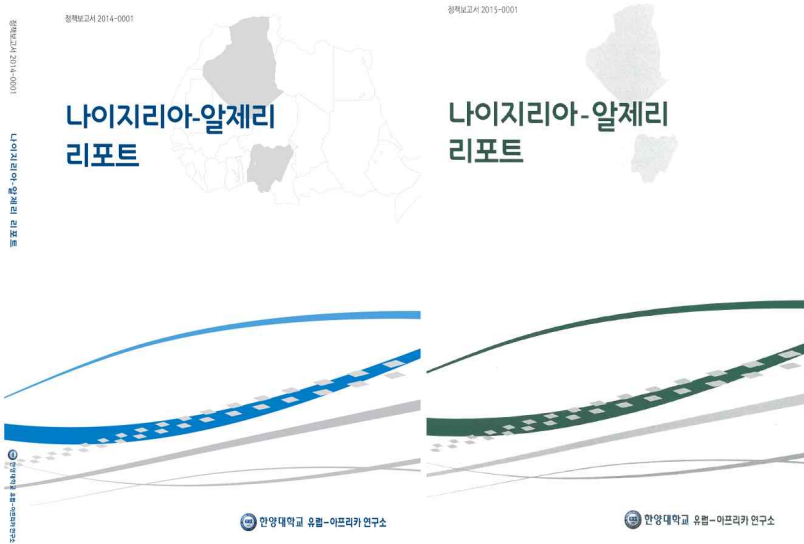
26	김주희	글로벌 위기와 아프리카 대응전략 포럼	유가하락과 나이지리아의 대응전략	전임연구원
27	김태수	2013년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선정 기념학술회의	2001년 이후 알제리-미국관계	전임연구원
28	김태수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평가와 전망」공동학술대회, 대전발전연구원	프랑스 리옹시 국제개발협력 실제와 평가	전임연구원
29	박정윤	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지역거버넌스와 산림지역의 발전에 대한 논의. (발표 박정윤)	전임연구원
30	박정윤	경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지역개발과 공공 책무성 : 프랑스 릴르시 사례를 중심으로	전임연구원
31	박정윤	한국정책과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도시 발전에 있어 연구와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가능성 탐구	전임연구원
32	이한규	2015년 제5차 국제기구총서 학술대회	APCEIU	공동연구원
33	이한규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평가와 전망」공동학술대회,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의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ODA)의 의미와 전망	공동연구원
34	정구연	2013년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선정 기념학술회의	Estimating Absorptive Capacity and Aid Effectiveness: A Case of US Foreign Aid to Sub-Saharan Africa	전임연구원
35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좋은 민주주의연구센터 기획학술회의의 "좋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010년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민주주의" 지표	공동연구원
36	조원빈	SSK-Networking 지원사업 제4회 심포지엄	"좋은 민주주의" 지표 개발 및 측정	공동연구원
37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사회의 갈등과 통합의 리더십	공동연구원
38	조원빈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한국사회의 갈등의 기원과 사회통합 방향	공동연구원
39	조원빈	2014년 성균관대학교-길림대학 국제학술회의	Good Democracy' Index: A Measurement of Democratic Quality	공동연구원

<표 13> 한양대 신흥지역연구팀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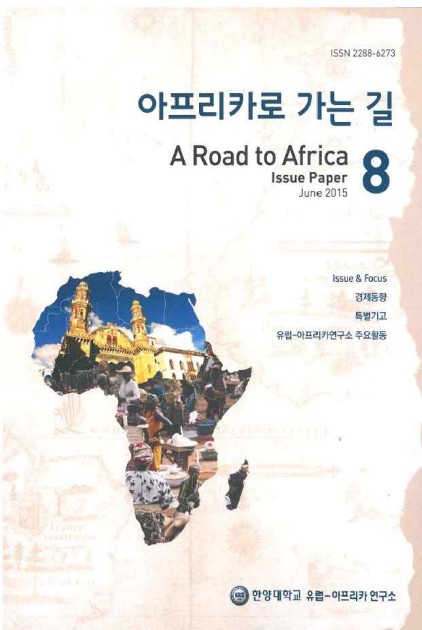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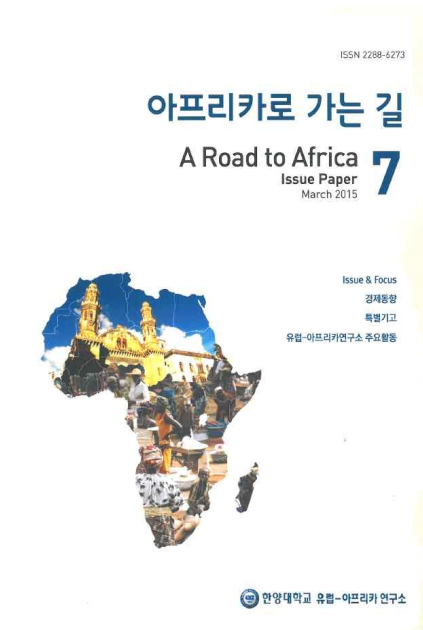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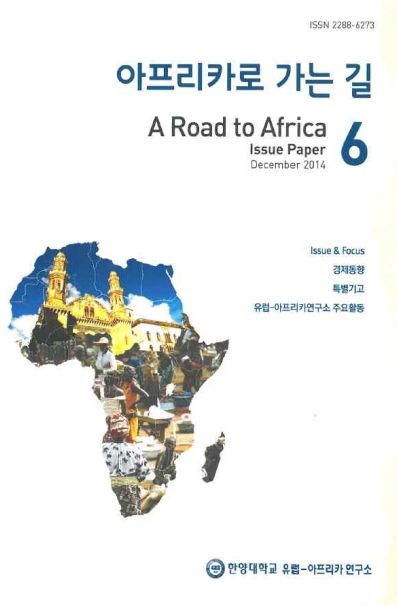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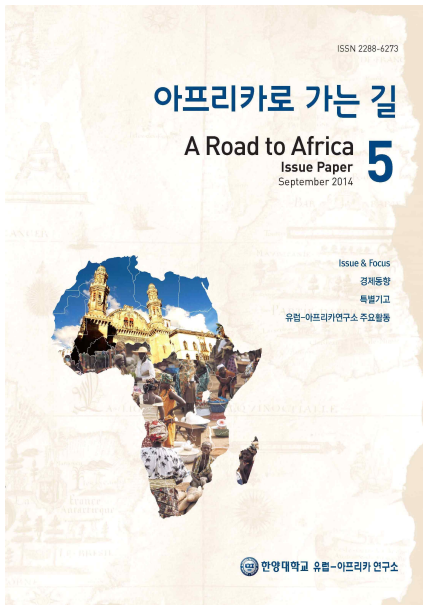
기간	강의명	비고
1학기	세계화시대의 국제개발협력	학부 3학년
2학기	국제개발의 정치경제	학부 3학년
2학기	국제개발과 아프리카	학부 3학년

1학기	아프리카와 지역통합	학부 4학년
2학기	국가발전이론(개발학 강의)	학부 4학년
개설	아프리카 정치경제론	대학원
개설	아프리카 발전정책	대학원
개설	아프리카 정치경제와 성장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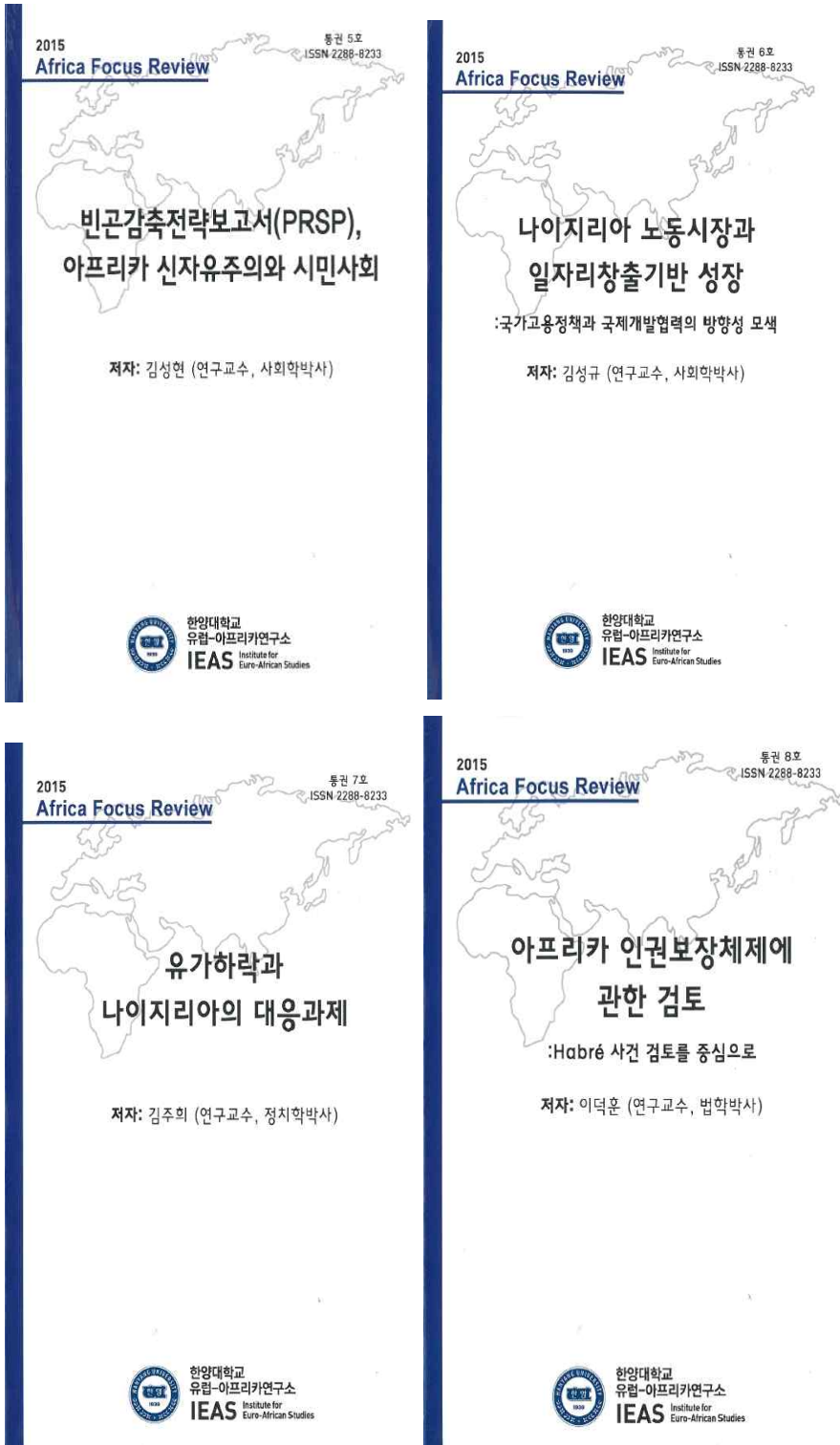
<그림 32> 정책보고서 그림(년 1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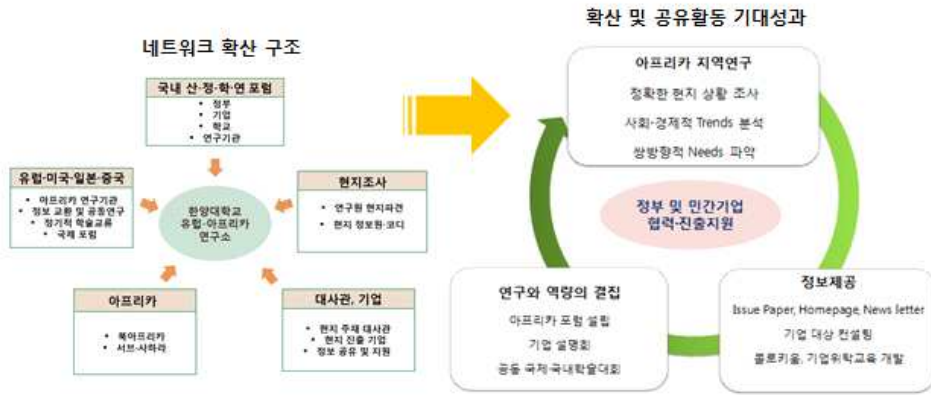
<그림 33> 이슈페이퍼 그림(년 4회 발행)



<그림 34> 아프리카 포커스 리뷰(비정기, 총 8회발행)



<그림 35> 한양대 연구팀 연구네트워크 체계



<그림 36> 한양대 연구팀 콜로키움, 포럼, 설명회, 학술대회, 출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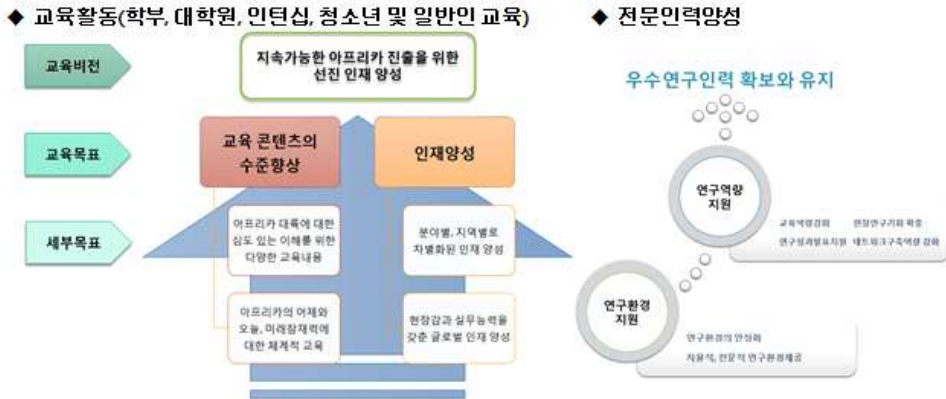
<그림 37> 한양대 연구팀 네트워크 구축 현황과 설명회

날짜	내역	개회기간	사업명	사업개요
2014. 6. 12	한국대 ECC국가연구소	2014. 6. 26	나이지리아 투자박람회	투자유망 산업회 대표전성 김갑식 회장 외 1인
2014. 11. 26	(사)한-아프리카 포럼협회	2014. 7. 24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공로인추진위원회 지원과 안보 초청인사: 신동환 변호사
2014. 11. 26	아프리카 이집트학연회	2014. 10. 29	역삼관 방문 초청 강연	박정관 위키와 아프리카 초청인사: 정경호
2015. 3. 23	W Foundation	2015. 2. 25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남수단의 안보문제와 FKO활동 초청인사: 정위현
2015. 3. 23	투석회사 투석로봇중	2015. 3. 19	기업설명회	미래이코 그림 - 환경기술카드로봇 원자 사업화 발안(담당자: 김성규)
2014. 1. 14	알제리 정강문진 및 연구개발 포럼재단 (FORUM)	2015. 3. 25	NGO 전문가 초청 설명회	국제제남수호 NGO의 활동과 비전 초청인사: 이 투
2014. 6. 24	알제리 아프리카보안연구소(Centre d'etude maghrébine Algérie)	2015. 3. 25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ODA시장과 민중경제 초청인사: 최원규
2014. 6. 30	제18대학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2015. 4. 1	자문회의	국제개발협력과 인문협력(PPP) 방안 자문(중앙대 산학협력단) 담당자: 김성규
2015. 2. 11	라이프비즈니스 아프리카 연구소와 MOU 체결	2015. 4. 21	기업설명회	스트라토로(Serology)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파트너십 구축(담당자: 김성규)
2015. 4. 8	삼일은행업 나이지리아 법인	2015. 4. 29	지역전문가 초청 설명회	아프리카 저개발과 국제협력 초청인사: 김대유
		2015. 5. 1	기업설명회	비 에코너티(Ecooty) - 환경기술 기반 아프리카 진출 발안(담당자: 김성규)
		2015. 5. 18	자문회의	나이지리아 과학기술 이경과 ODA 자문(과학기술협력연구팀(STP)) 담당자: 김성규
		2015. 5. 20	기업설명회	아프리카 문화산업 진출 방안 초청인사: 이철준

양해각서(MOU) 체결 실적

신흥지역 아젠다 관련 설명회
그 외 국내외 네트워크를 위한 방문, 교류, 정부 및 민간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중

<그림 38> 한양대 연구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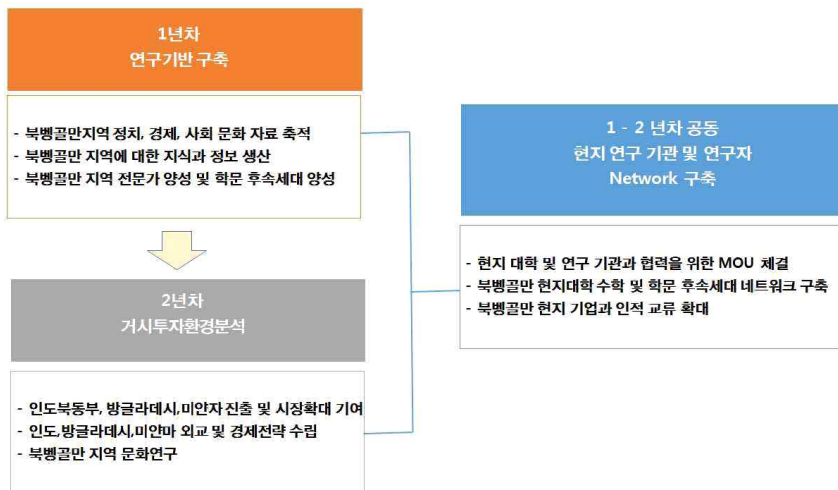
<그림 39> 한양대 신흥지역연구팀 홈페이지



7. 서남아시아와 한국외대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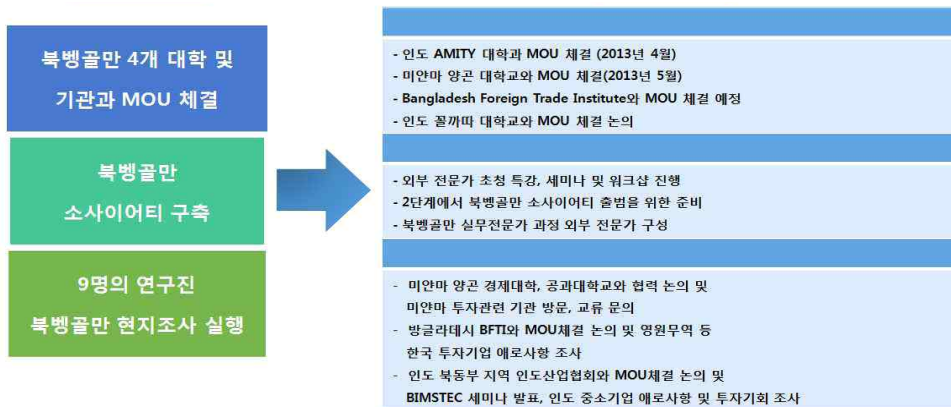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신흥지역연구팀의 연구주제는 “북벵골만 연구역량 강화 및 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인도북동부, 방글라데시, 미얀마”이다. 본 연구팀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0>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신흥지역팀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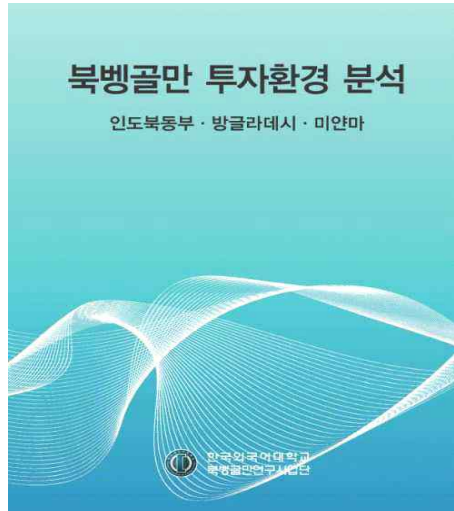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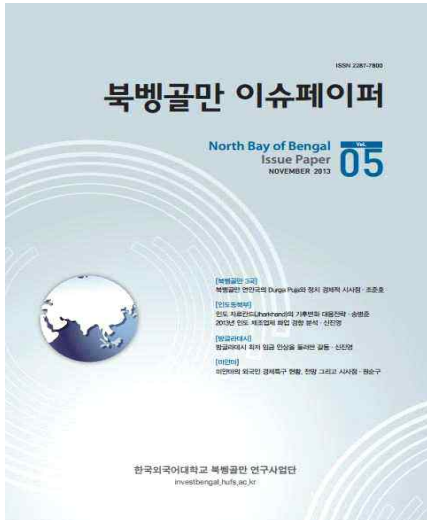


첫째, 본 연구팀은 북벵골만 3국에 관한 각종 기초 자료 수집 및 정보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연구기반을 조성한다. 각 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인도북동부,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가공된 DB는 북벵골만연구사업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기업이 공개적으로 연람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거시 투자환경 분석에 입각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분과별 연구내용을 연 4회 걸쳐 이슈페이퍼를 발간한다. 또한 분야별 주요 아젠다를 연 1회 정책보고서로 발간하여 중소기업에게 배포한다. 셋째, 본 연구단은 연 1회 민간 기업에 대한 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북벵골만 3국의 기초 정보, 최신 투자동향, 투자관련 법령, 신규 투자분야 발굴 등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학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북벵골만 관련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그리고 현지 국가의 언어를 다룬 강좌를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림 41> 한국외대 연구팀 네트워크 구축현황



<그림 42> 한국외대 연구팀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



<그림 43> 한국외대 연구팀 지역 설명회



<그림 44> 한국외대 신흥지역연구팀 홈페이지(북벙골만 사업단)



8. 신흥지역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 평가

앞에서 언급된 7개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연구 및 사업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인문학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경제 분야 중심의 실용적 연구물이 적었던 관계로 할 수 없었던 신흥지역연구의 기반 확충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였다. 둘째, 실용적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민간 부문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지원하게 되었다. 현재 7개의 신흥지역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소는 많은 민간기업의 자문과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셋째, 국내외의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신흥국과의 우호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 발휘 역량 제고 및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 정기 간행물 발간

- 이슈페이퍼(연 4회) / 정책보고서(연 1회) 정기 간행물 발간

- 각 연구소는 개별 논총 및 전문가 리포트, 뉴스레터 등을 발간

신흥지역 연구사업 참여 연구소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	논총	비고
고려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	○	○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	○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동남아 지식정보센터	○	○	○	
한국외대 북벙골만 연구사업단	○	○	○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	○	○	○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	○	○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	○	○	

■ 특별 저서 발간

- 연구소별로 신흥지역사업관련 전문 저서 발간 활동

신흥지역 연구사업 참여 연구소	단행본	콜로키움	학술대회	비고
고려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	○	○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	○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동남아 지식정보센터	○	○	○	
한국외대 북벙골만 연구사업단	○	○	○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	○	○	○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	○	○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	○	○	

■ 기업 설명회 개최

- 산·학 협동모델이자 인문·사회·경제 분야의 융합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기업 설명회

신흥지역 연구사업 참여 연구소	행복장터	정부기관	민간기업	국외
고려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	○	○	○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	○	○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동남아 지식정보센터	○	○	○	○
한국외대 북벙골만 연구사업단	○	○	○	○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	○	○	○	○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	○	○	○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	○	○	○

■ 기업 특강 실시

- 신흥지역진출기업 임원 및 사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특강 실시
- 학술연구를 뛰어넘어 기업이 원하는 전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구축
- 일시적 혹은 정기적 기업특강이 정부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다수 개최

신흥지역 연구사업 참여 연구소	1회	정기	연구원별	비고
고려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	○	○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	○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동남아 지식정보센터	○	○	○	
한국외대 북벙골만 연구사업단	○	○	○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	○	○	○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	○	○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	○	○	

■ 노하우에 대한 신뢰구축과 한국 정책제안

- 신흥지역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인정받아 다수의 기업들과 노하우에 대한 신뢰구축
-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내실 있는 연구역량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며, 기업 및 정부 기관의 공동연구, 혹은 협약체결 요청이 다양화되고 있음.
- 신흥지역연구사업이 진행될수록 쌓여가는 노하우를 통하여 한국에 정책제안이 가능해졌음.